

Ministry Focus Paper Approval Sheet

This Ministry Focus Paper entitled

UTILIZING THE VALUES OF KOREAN TRADITIONAL CONCEPTS IN PASTORAL MINISTRY

written by

DAE WOO LE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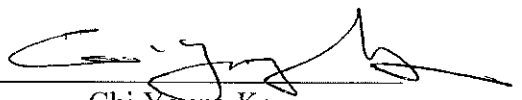
and submitted in partial fulfillment o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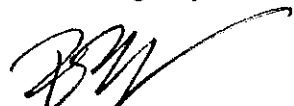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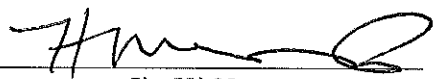
Doctor of Ministry

has been accepted by the Faculty of Fuller Theological Seminary

upon the recommendation of the undersigned readers:



Chi Young Kay

Euiwan Cho

Jin Ki Hwang

April 1, 2013

**UTILIZING THE VALUES OF
KOREAN TRADITIONAL CONCEPTS IN
PASTORAL MINISTRY**

MINISTRY FOCUS PAPER

SUBMITTED TO THE FACULTY OF THE
SCHOOL OF THEOLOGY
FULLER THEOLOGICAL SEMINAR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DOCTOR OF MINISTRY

BY

DAE WOO LEE

APRIL 2013

한국 전통 사상 중
복음에 합당한 가치를 살린 목회 사역

이 논문을 풀러 신학교
목회학 박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함

지도 계 지 영 교수

이 대 우

2013년 2월

Abstract

Utilizing the Values of Korean Traditional Concepts in Pastoral Ministry

Dae Woo Lee

Doctor of Ministry

2013

School of Theology, Fuller Theological Seminary

The primary purpose of this paper is to investigate the three most influential religions in Korean society—Confucianism, Shamanism, and Buddhism—and evaluate their relation to local churches since the church's formation with the influx of Christianity in the late Chosun Dynasty. Second, this paper will identify shamanistic ideas that permeate Korean society and the church, and identify both their positive and negative effects. Third, the study seeks a foundation for the application of traditional Korean concepts to ministry and worship; it examines the essence of worship and identifies elements to restore, thus providing direction for ministry that is most suitable in the Korean context.

Chapter 1 identifies the problem, objectives, scope, and method of the research. Chapter 2 first seeks an understanding of traditionally ingrained perceptions of Korea. Drawing on the idea of *chun*, which has had the greatest impact on the faith of Koreans, it looks closely at the core of Confucian thought and ethics as well as Buddhism and shamanism.

Chapter 3 focuses on the situation at the time of Christianity's introduction in Korea and examines Korean Christianity, which was rooted in Confucian soil. Chapter 4 examines traditional Korean thought and its correlation with church practice by presenting specific examples of both positive and negative influences. Chapter 5 deals with the renewal of Korean church ministry and worship incorporating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Korean mindset.

The research clearly observed the enormous impact of traditional Korean ideas

on the establishment of the Korean church. Where the influence has been negative, it should be eliminated boldly; at the same time, positive influences should be incorporated wisely into the ministry. This final project paper raised two central questions: What kind of church is most ideal in the Korean context? What kind of ministry is most ideal in the Korean church context? The research concluded that the ideal Korean church is a church with one mind; the essence of ideal Korean ministry is oneness. The image of the church that we need to recover reflects the teaching of the Bible regarding the church and ministry: Ministers and congregation at one with each other to serve the church! Ministry that encompasses the true hardship and power of love!

Theological Mentors: Chi Young Kay, PhD
 Euiwan Cho, PhD
 Jin Ki Hwang, PhD

감사의 글

오랜 기도의 준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미국으로 왔고 풀러신학교에서 공부를 하였다. 그동안 많은 것을 경험하며 많은 것을 배웠다. 수업을 통해서도 많은 것을 배웠지만 목회자 특강과, 소그룹 모임인 '교회탐방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많은 도전을 받았다. 풀러신학교 목회학 박사원에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

교회와 성도들을 섬겨야 할 목회자로서 목회철학을 든든히 세우며, 앞으로 내가 해야 할 목회사역을 고민하며 가장 한국적인 교회의 모습, 건강한 교회를 만들기 위해 고민하며 본 논문을 쓰게 되었다. 아무쪼록 부끄러운 논문이지만 본 논문을 통해 한국에서 또는 미국에서 한인교회를 섬기는 목회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척박한 미국 땅 가운데서도 나를 인도하시고 연단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린다. 논문이 완성되기 까지 잘 지도해 주신 계지영 교수님과 부심을 맡아 세심히 검토해 주신 조의완 교수님께 감사드린다. 또한 지금까지 아버지의 뒤를 이어 훌륭한 목회자가 되기를 바라며 물심양면으로 뒷바라지 해주시며 기도해 주신 부모님과 사위를 위해 마음 써 주시고 격려해 주신 장인 장모님께 감사드린다. 마지막으로 남편을 위해 아낌없는 잔소리와 헌신을 베푸는 평강공주 이지영 사모께 감사드린다.

목 차

제 1 장 서론	1
제 1 절 문제 제기와 연구 목적	1
제 2 절 연구 방법과 연구 범위	2
제 3 절 논문의 구성	4
제 2 장 한국 전통 사상의 이해	5
제 1 절 유교의 영향	6
1. 천(天)의 이해	6
가. 천인(天人)관계	6
나. 인내천(人乃天) 사상	8
2. 인(仁)에 대한 이해	10
가. 공자의 인(仁) 사상	10
나. 맹자의 인의(仁義) 사상	11
다. 인(仁)의 실천덕목으로서의 충(忠)과 서(恕)	13
3. 예(禮)사상에 대한 이해	14
가. 효제(孝悌) 사상	15
나. 오륜(五倫) 사상	16
4. 조상숭배와 제사	17
가. 조상숭배에 대한 이해	17
나. 한국에서의 제사의 형성과정	19
제 2 절 불교의 영향	20
1. 불교의 핵심 사상 이해	20
가. 법인사상(法印思想)	20
나. 연기법(緣起法)	22

2. 불교의 구원관 이해	23
가. 사성제(四聖諦)와 팔정도(八正道)	23
나. 대승불교(大乘佛敎)에서의 구원	24
다. 열반(涅槃)과 해탈(解脫)	25
제 3 절 샤머니즘의 영향	26
1. 샤머니즘의 신관	28
2. 샤머니즘의 인간관	29
3. 샤머니즘의 내세관	30
제 3 장 유교적 토양에서 뿌리내린 기독교	32
제 1 절 기독교 유입당시 사상적 배경	32
1. 조선후기 시대적 배경	32
2. 기독교 수용 과정	35
가. 중국의 기독교 수용	35
나. 한국의 기독교 수용	37
제 2 절 한국 초기 교회의 형성 과정 및 특징	38
1. 초기 지식인 교인들의 특징	38
2. 초기 한국 교회의 예전 형성 과정과 특징	40
3. 초기 한국 교회의 성장 원인	42
제 3 절 초기 교회의 형성 과정중 제사문제	44
1. 선교사들의 제사에 대한 견해	45
2. 예전의 형성 과정중 제사의 영향	46
제 4 장 한국 전통 사상과 교회와의 상관성	49
제 1 절 한국 전통 사상의 부정적 영향	49

1. 무속과 샤머니즘적 요소	49
가. 신비주의와 열광주의	49
나. 신앙의 무속화	51
다. 무속적 축복관	52
라. 샤머니즘적 예배관	53
마. 샤머니즘적 기도	54
2. 유교적 요소	56
가. 조상숭배와 제사의 영향	56
나. 가부장적 권위주의	57
3. 그 밖의 부정적 영향들	59
가. 불교의 영향	59
나. 공로 및 보상주의	60
다. 초월주의	61
 제 2 절 한국 전통 사상의 긍정적 영향	62
1. 천(天)사상과 복음	63
2. 충효(忠孝)사상과 섬김	64
3. 인의(仁義)와 선(善)	66
4. 한(韓)철학과 한마음 공동체	67
5. 서당교육과 제자훈련	69
6. 제의(祭儀)와 기도	70
 제 3 절 한국 전통 사상의 핵심가치 적용 모색	71
1. 인(仁) 문화의 따뜻한 정서	72
2. 천인일체(天人一體)의 종교성	74
3. 수양철학(修養哲學)의 도덕성	75

제 5 장 한국 전통사상의 목회적 적용	77
제 1 절 한국적 정서를 고려한 목회	77
1. 인(仁)문화권의 특성을 살린 한마음 공동체	77
가. 향내형(向內形) 교인들의 특징	77
나. 한마음 목회 한마음 공동체	80
다. 흥(興)을 돋워 신바람을 일으키는 목회	81
2. 공통분모로 묶은 소그룹 활성화	83
가. 개성이 뚜렷한 교인들을 하나로 묶기	83
나. 선비정신과 소그룹을 통한 양육	84
3. 수양(修養)을 위한 수양회(修養會)	86
4. 주인의식 강화를 통한 사역 분배	89
5. 한(恨)이 아닌 애(愛)로 맺힌 성도로 양육	91
6. 삼강오륜(三綱五倫)을 접목한 인격·윤리교육	93
7. 서당교육의 전통을 살린 303 비전암송학교	97
8. 효(孝)의 실천을 통한 교회의 덕 세우기	101
가. 노인들을 위한 섬김 사역	102
(1) 노인 공동체 만들기	102
(2) 예배 및 양육	103
(3) 다양한 섬김 프로그램	104
나. ‘순복음 인천교회’를 통해 살펴본 효(孝)의 실천사역	105
제 2 절 한국적 정서를 고려한 예배	107
1. 한마음 공동체 예배	109
가. 한마음 공동체 예배의 구성 및 특징	109
(1) 온 가정이 교회 안에서 하나되어 드리는 예배	109
(2) 경건한 분위기를 잘 살린 예배	110
(3) 음악적인 요소를 잘 활용하는 예배	112
(4) 고유명절과 절기의 조화를 잘 이루는 예배	112

(5) 말씀과 성례전이 잘 어우러지는 예배	113
나. 한마음 공동체 예배 형식 제안	114
2. 한마음 추도(추모) 예배	116
가. 추도예배의 의미	116
나. 추도 예배의 종류	117
다. 교회내 신자들을 위한 방안	118
라. 교회 밖 불신자들을 위한 방안	119
마. 한마음 추모예배 형식 제안	121
제 6 장 결 론	125
제 1 절 요약	125
제 2 절 제언	127
참고문헌	129
Vita	136

제 1 장

서 론

제 1 절 문제 제기와 연구목적

가장 한국적인 사상과 문화는 무엇일까? 한국인의 정서는 무엇이라 말할 수 있을까? 한국의 전통 사상이 과연 기독교에 부정적인 영향만 주었을까? 한국인들의 정서에 맞는 목회사역을 하려면 무엇을 알아야 할까? 한국의 전통 사상 중 복음에 합당한 유익한 가치들을 목회 사역에 적용시킬 수 없을까? 필자는 이런 고민과 문제를 제기하며 본 논문을 쓰게 되었다.

그동안 한국교회는 내적으로도 외적으로도 팔복상대한 성장을 이루어 왔다. 하지만 지금은 그 성장을 멈추고 있다. 여러 가지 이유를 들 수 있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한 한국 교회의 본질적인 문제와 함께 한국의 고유 정서를 이해하기 위한 목회자들의 노력 부재라 말하고 싶다.

한국에서는 목회성장과 관련된 많은 세미나가 열리고 있다. 많은 중소형 교회 목사들이 세미나에 참석하고 있다. 그들에게는 부흥에 대한 열망과 갈급함이 있기 때문이다. 세미나를 통해 배우고 그곳에서 제공받은 많은 자료들을 적용하며 부단히 노력을 해보지만 성공으로 이어지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 그 주된 이유는 환경과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교회 실정에 맞게 적용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것 또한 쉬운 일은 아니다. 그렇게 하려면 근본부터 다시 새롭게 정립해야하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현재 시급한 과제중 하나는 현대의 대중문화와 함께 전통 사상·문화의 변혁적 수용이다. 토착화 신학은 기독교 신앙의 차별성을 충분히 담보하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민중 신학은 전통 문화의 문화적 측면을 이데올로기적으로 환원하였

다는 이유로 한국 교회의 신학으로 자리 잡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¹⁾

이런 고민들 속에 이질감 없는 가장 한국적이면서도 성경이 말하고 있는 바른 예배, 한국인들의 정서를 잘 살린 바른 목회 사역은 무엇일까? 하는 물음을 던지며 글을 전개해 나가고자 한다.

본 논문의 연구 목적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 사회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유교사상을 중심으로 무속 및 불교 사상에 대해서 알아보고 교회와의 상관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유교가 사대부 중심의 고급 학문이었다고는 하나 국가를 운영해 가고 윤리규범의 기준이 된 가장 큰 영향력을 미친 사상이었기에 유교에 가장 큰 비중을 두고자 한다. 이를 통해서 교회 안에 혼재되어 있는 한국 전통사상의 요소들을 찾고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나누어서 살펴보고자 한다.

둘째, 교회 내에 스며있는 샤머니즘적인 요소, 한국적인 정서들을 찾아보고 긍정적인 요소와 부정적인 요소들을 분류해 보고자 한다. 지금까지 한국 전통 문화와 사상에 대한 신학적 접근의 시도가 있었지만 부정적인 결과물들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예전(Liturgy) 가운데, 성도들의 신앙 가운데 스며있는 영향들이 모두가 부정적이라 단언할 수는 없다. 한국 교회 성장의 배경에는 분명 유익한 전통 사상의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왜곡된 신앙은 바로 잡고 유익한 것들은 오히려 살리고 잘 적용해 나가야 할 것이다.

셋째, 예배의 본질을 살펴보고 우리가 회복해야 할 부분들이 무엇인지를 냉철히 살펴보고 가장 한국적인 목회사역에 대한 방향을 제시하고 나름의 대안을 통해 갱신의 노력을 해보고자 한다.

제 2 절 연구방법과 연구범위

본 논문은 문헌중심의 연구방법을 중심으로 진행이 될 것이다. 하지만 ‘목회학’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학문적이고 이론적인 전개만이 아닌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것들을 함께 다루는 다양한 방법들이 사용될 것이다. 이를 위해서 일차적으

1) 임성빈, *기독교 문화와 한국문화*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2008), 9.

로는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관련 참고문헌을 중심으로 살펴보고 정리해 보고자 한다. 동양 사상에 대한 부분들은 원전을 일부 참고하여 이해를 돕고자 한다. 참고문헌은 동양사상의 이해, 교회의 형성과정, 성도들의 신앙에 영향을 미친 전통사상의 부분들로 축소를 하여 단행본, 번역서적, 논문, 학술지 등을 참고해서 논지를 전개해 나가고자 한다. 본 논문의 특성상 통계, 설문, 인터뷰 등의 방법은 사용하지 않을 것이며 5장에서는 나름의 근거를 바탕으로 주관적인 견해들이 들어갈 수 있음을 미리 밝혀둔다.

연구의 범위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서 설명하고자 한다.

첫째, 한국전통사상에 대한 부분이다. 본 논문에서는 크게 유교, 불교, 무속 및 샤머니즘까지 광범위하게 다루고 있다. 범위가 넓지만 본 논문에 꼭 필요한 부분만을 선별하여 개괄적인 차원에서 다루고자 한다. 그중에서도 유교에 보다 많은 비중을 두고자 한다. 오랜 전통 속에서 흘러온 천(天)의 근원과 인간과의 관계, 인의(仁義), 예(禮), 제의(祭儀) 사상 등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 유교 윤리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중심으로 정리해 볼 것이다.

둘째, 전통사상과 기독교의 접목 부분이다. 전통 문화의 영향을 살피기 위해 먼저 기독교가 처음 유입될 당시의 상황과 특징을 이해하고자 한다. 기독교가 한국 사회에 받아들여지는 과정에서 한국 전통 사상의 긍정적인 작용과 부정적인 작용의 두 가지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필자는 토착신학과 민중 신학의 관점이 아닌 복음에 합당한 전통문화의 긍정적 수용과 점진적 발전을 꾀하고자 한다. 이에 '변혁적 수용'²⁾이라는 용어를 사용할 것이다.

2) 임성빈은 그가 엮은 책, *기독교 문화와 한국문화*에서 '변혁적 수용'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토착화 신학은 기독교 신앙이 차별성을 충분히 담보하지 못하였고, 민중 신학은 전통 문화의 차별성을 충분히 담보하지 못하였다고 설명하고 이에 변혁적 수용을 말하고 있다. 본 연구자는 전적인 동의는 아니지만 이 용어가 본 논문을 전개하는데 있어서 가장 용이한 용어인거 같아 사용함을 밝혀둔다.

제 3 절 논문의 구성

1장 서론에서는 문제제기와 연구 목적, 연구 범위와 연구 방법들을 설명하고자 한다. 2장에서는 먼저 한국 전통사상에 대한 이해를 하고자 한다. 한국인들의 신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천(天)에 대한 사상을 중심으로 유교의 핵심 윤리사상과 아울러 불교 및 무속신앙, 샤머니즘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3장에서는 기독교 유입당시의 상황들을 중심으로 유교적 토양위에 뿌리 내린 기독교에 대해서 알아보하고자 한다. 4장에서는 한국 전통사상과 교회와의 상관성을 긍정과 부정의 두 관점으로 구체적인 사례를 들며 살펴보고자 한다. 5장에서는 한국교회 목회사역 및 예배 갱신을 위한 고찰을 하고자 하는데 한국적인 정서를 이해하고 장점을 살려 접목해 보고자 한다. 6장에서는 요약 및 결론을 내리고자 한다.

제 2 장

한국 전통 사상의 이해

이번 장에서는 한국 기독교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 한국 전통 사상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유동식 교수³⁾를 비롯하여 한국 전통 사상에 관심을 갖고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현대 신학자들이 한국 전통 사상과 기독교와의 상관성에 대한 연구를 시도했다. ‘한국 교회의 전통문화 수용’과 ‘기독교와 전통종교의 관계’ 연구에 있어서 선구적인 역할을 한 신학자는 ‘유동식’이고 문화적인 측면에서 초석을 놓고 이론적인 유형을 정리한 신학자는 ‘김경재’이다.⁴⁾ 하지만 보수적인 한국 신학의 풍토로 이러한 시도는 배척을 받아왔다. 복음을 훼손한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기독교의 모든 부분에서 정체의 위기를 맞고 있는 지금에 와서는 사정이 달라졌다. 정체의 극복과 전성기를 보내고 침체하고 있는 서구 교회의 모습을 보며 이를 극복하기 위한 타개책으로 이 문제가 다시 거론되고 있다. 산재한 많은 교회의 문제점들을 해결해 나가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부터 다루어 져야 한다. 이에 한국교회와 목회사역 갱신을 위해서 먼저 해야 할 일은 한국 전통 사상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가장 성경적이면서도 가장 한국적인 목회사역 방안들을 마련하고 적용한다면 한국교회의 새로운 바람을 일으켜 새롭게 갱신되어 지리라 기대한다.

3) 토착화 신학의 선구자로 불리는 ‘유동식 교수’는 1922년 황해도 남천에서 출생하였다. 감리교 신학교를 졸업한 후, 보스턴대학 동경대학 등에서 연구하였으며, 신학석사, 문학박사 학위자이다. 연세대학교 신과대학 교수로 정년 은퇴하였으며, 기독교 토착화를 위한 다양한 시도와 한국의 전통 유·불·선과 현대의 기독교를 접목한 풍류 신학을 전개해 왔다.

4) 임성빈, *기독교 문화와 한국문화*, 166.

제 1 절 유교의 영향

1. 천(天)에 대한 이해

가. 천인(天人)관계

예로부터 우리 민족은 하늘에 대한 경외의 마음을 가져왔다. 하늘이 왕을 세우고, 하늘이 사람의 운명을 결정하며, 하늘이 화복을 내려준다고 믿어왔다. 또한 하늘과 내가 하나라는 천인합일(合一天人)의 믿음을 가져왔다.

하늘과 인간이 하나라는 한국인의 정서는, 하늘을 매개로 하여 인류가 하나 되고, 만물이 하나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일체주의(一體主義)로 나타난다.⁵⁾ 이러한 가운데 기복 신앙이 민간 신앙으로 자리 잡게 되었고 자연스레 오늘날 기독교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가장먼저 살펴보아야 할 것은 바로 ‘천(天)’에 대한 이해와 ‘천인(天人)’ 관계이다. 하지만 천(天)과 인간(人間)의 관계에 대한 부분은 그 범위가 넓어 간략하게 설명하는 것이 어렵다. 그렇기에 본 논문에서는 큰 맥락을 중심으로 이해하는 차원에 그칠 수밖에 없음을 밝혀둔다.

중국 고대의 ‘천(天)’ 사상은 종교성(宗教性)을 많이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공자 이후 인문학이 발달하면서, 천(天)에 대한 관념이 달라졌다. 천(天)의 절대적 종교성이 시간이 갈수록 줄어들고 인간을 부각시키는 주체로서의 천(天)의 성격이 점점 강하게 되었다.⁶⁾

중국의 저명한 유학자(儒學者)인 풍우란(馮友蘭)⁷⁾란은 天의 개념을 다섯 가지로 나누었다. 이는 물질지천(物質之天), 주재지천(主宰之天), 황천지천(皇天之天), 운명지천(運命之天), 자연지천(自然之天), 의리지천(義理之天) 등으로 구분하여 설명하고 있

5) 이기동, *한마음의 나라 한국* (서울: 동인서원, 2010), 172.

6) 勞思光, *중국철학사 (中國哲學史)*, 정인재 역 (서울: 탐구당, 1997), 25.

7) 중국 현대 철학자로 북경 대학을 졸업하고 미국에서 유학하였다. 주요 관심사는 중국의 전통 철학인 송 및 명 의리학(理學)을 현대 철학의 관점에서 재생하는 것이었다. 신정주학파(新程朱學派)라고도 불리는 그 독자적인 판념론 철학은 중국에서의 근대적 아카데미즘의 성립을 촉진시켰다. 인민 공화국의 성립 후, 자기의 계급적 입장을 반성하고, 그 후에도 학문적·사상적 비판을 받으면서 학자로서의 활동을 계속하였다. 그의 주저인 *중국철학사 (中國哲學史)*, 1934)는 고대 이래의 중국 철학사에 관한 최초의 체계적 저작으로 꼽히고 있다.

다.⁸⁾

이처럼 천(天)에 대하여 다양하게 이해하고 있지만 다음과 같이 요약하여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인간의 고민과 문제를 해결하여 주는 주재성(主宰性)을 가진 소박한 형태의 종교적(宗教的) 천(天)이고, 두 번째는 상제(上帝)의 절대적 권위가 상실되고 인간의 역량이 중시되면서 나타나는 도덕성(道德性)을 가진 천(天)이며, 세 번째가 우주의 근본 원리를 자연으로 이해하는 자연(自然)의 천(天)이다.⁹⁾

천(天)이라는 관념은 이렇게 종교적이며 주재적인 의미와 함께 자연적인 의미가 함께 사용되어 왔다. 고대 제정일치(祭政一致)의 사회에서는 이러한 절대적인 존재에 대한 숭배 의식은 곧 정치활동이었다. 즉 사람들의 지식이 발달하기 전에는 자연계에서 일어나는 모든 자연 현상들에 대해 과학적으로 판단하지 못했다. 그래서 홍수가 나거나, 가뭄이 들거나, 천둥이나 번개가 치는 현상 등을 주재자(主宰者)가 인간 사회에 대한 경고의 의미로 내리는 것이라 믿게 되었다. 이러한 절대적 존재를 숭배함으로써 삶의 안정을 추구했던 것이다. 그런데 절대적 존재의 관념으로 나타난 것은 천(天)뿐만이 아니다.

중국 고대 은(殷)나라에서는 ‘제(帝)’ 또는 ‘상제(上帝)’라는 관념이 천(天)과 같은 절대 신의 권위를 지닌 존재로 인식되었다. 제·상제는 부족(部族) 국가의 성격이 강했던 은나라를 지켜주는 조상신이었으며, 또한 여러 부족신중 최고의 권위를 지닌 존재였다. 그러나 은나라가 멸망하고 주(周)나라가 들어서면서 주나라는 은나라를 정복한 자신들의 행동을 정당화시키기 위하여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였다. 즉 주나라의 건국은 하늘의 뜻인 천명(天命)에 의한 것이었다고 정당화 하였다. 이때부터 천(天)은 절대적 권위를 지닌 존재로서, 점차적으로 정치적 영역으로 확대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천명(天命)은 통치자의 권위를 상징하였으며, 그렇기에 통치자는 반드시 천명(天命)을 받아야만 했다.¹⁰⁾

천(天)과 인간의 도덕 관계에 관해서는 중용(中庸)에서 더욱 자세하게 나타난다. 중용의 첫머리에서는 “하늘이 인간에게 명령한 것을 본성(本性)이라 하고, 본성을 따

8) 馮友蘭, 중국철학사(中國哲學史), 박성규 역 (서울: 까치글방, 2001), 61.

9) 李世鉉, “先秦 儒家의 天人關係論 研究”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1999), 6-12.

10) 유학주임교수실, 유학사상 (서울: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01), 37.

르는 것을 도(道)라 하고, 도를 닦는 것을 교(敎)라”¹¹⁾ 하여, 인간과 천(天)과의 관계를 설정하고 있다. 곧 인간의 본성은 천(天)으로부터 부여받은 것이라고 여겼다. 이렇게 천(天)으로부터 부여받은 본성의 자연스러움을 그대로 따르게 된다면 각 개인이 생활하는 데에 마땅히 실천해야 할 기준이 필요하게 되는데, 이것이 바로 도(道)이다. 그러므로 도(道)란 인간의 구체적인 행위에 대한 판단 기준이 된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 판단 기준, 또는 행동 기준이 되는 도(道)를 지켜서 인간으로서의 자질을 갖추도록 하는 것이 동양의 근본 교육정신이다.

즉 유교(儒敎)에서의 천인(天人)관계를 정리해 보면, 천(天)은 시대의 흐름에 따라 여러 가지 관념적 의미로 사용되어 왔지만 한국에서는 절대적이며 주재적인 종교적 의미로 자리매김 했다. 그렇기에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 이를 이용하기도 했으며, 무속신앙의 여러 형태를 낳는 부작용을 초래하기도 했다. 또한 천(天)이 인간에게 성(性)을 부여해 본성(本城)을 가지게 되었고, 이 자연의 본성을 따르는 것이 도(道)이고, 도(道)를 닦는 것이 교(敎)다. 이는 한국 전통사상 형성 과정에서 근간이 되어 왔다. 그렇기에 본래의 성(性)을 회복하기 위해 도(道)를 닦고, 여러 가지 수양의 방법들을 고안해 내고 가르치는 모습들을 지금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나. 인내천(人乃天) 사상

천인(天人)관계에 대한 문제는 오랜 역사 속에서 이어져 왔다. 특히 유가(儒家)에서는 인간존재의 본질과 인간행위의 도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열쇠로서 천인관계의 문제를 추구해 왔으며, 유가 천(天)개념의 변화는 공자(孔子)에게서 그 단서를 찾을 수가 있다. 물론 공자는 전통적인 천(天)개념에 대해 긍정의 입장을 취하는데, 이는 공자가 외천명(畏天命), 지천명(知天命)의 자세를 강조하고 있는데서 확인 할 수 있다. 그러나 공자는 천(天)이 의지를 가진 인격신이라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인사(人事)를 더욱 중요한 문제로 취급하였으며 특히 “인간의 덕성은 天이 부여한 것”¹²⁾이라고 하여 천(天)을 윤리적으로 이해하는 새로운 견해를 제시하였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천(天)은 수양(修養)을 통한 천인합일(天人合一)로서의 대상

11) 中庸, 1장 “天命之謂性 率性之謂道 脩道之謂敎”

12) 中庸, 1장 “天命之謂性”

으로 그 개념이 바뀌게 되었다. 이는 인간이 최고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의도에서였다. 이후 유가(儒家)의 천인관계론에서 주도적 흐름을 형성하게 되는 천인합일론(天人合一論)의 최초 제기라는 점에서 그 의의를 갖는다.¹³⁾

맹자(孟子)에 의해 제기된 의리천(義理天) 개념과 천인상통론(天人相通論)은 이후 중용(中庸)과 역전(易典)을 거치면서 “天命을 일컬어 性이라 하고 性을 따를 것을 道라고 한다”¹⁴⁾는 표현에서처럼 명확한 이론으로 정립되었다. 나아가 송대(宋代) 성리학에 이르러 이기론(理氣論)의 논리와 결합하면서 집대성 되어 하나의 종합적 체계를 이루게 되었다. 천(天)의 이러한 보편적이고 윤리적인 법칙성은 천지만물에 부여되어 있는 것이므로 인간의 인성(人性) 속에서도 내재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고려 중기에 들어와 조선시대에 그 기반을 확고히 하게 된 한국 성리학에서 천(天) 또한 천인합일(天人合一)로서의 대상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

인내천(人乃天) 사상은 1905년 동학의 대교주인 손병희가 동학을 천도교로 재편하면서 내세운 사상으로, 하늘과 인간을 동일시하는 사상이다. 당시의 천(天)에 대한 개념은 서학의 천주교 또는 성리학을 토대로 한 절대적 권력자인 임금만이 소유한 개념이었다. 이것을 과감하게 모든 인간이 소유할 수 있도록 한 개념이 바로 인내천이다. 인내천은 누구든지 성품을 닦고 마음을 닦아 본래의 나를 회복하면 하늘과 같이 될 수 있다는 사상이다. 이것은 도덕질서의 확립을 위한 것임은 물론이거니와 평등사상과 인간존중 사상의 싹을 틔운 근대 한국사상의 근간을 이루었다. 내가 아닌 타인을 상대할 때에 하늘과 같이 대하라는 인간 존엄의 사상이 인내천 사상으로 말미암아 확산되기 시작한 것이다.

인내천 사상은 인간의 존엄성을 하늘과 관련시켜 생각해 오던 우리 민족 고유의 전통사상인 천인합일(天人合一) 사상에서 비롯된 것이라 볼 수 있다. 천인합일은 하늘과 인간이 원래 하나이고, 인생은 자학적으로 천인합일의 경지에 도달하는 것이라 생각하였다. 이러한 천인합일은 자연의 천(天)을 인간의 도덕적 요구에 의해 천(天) 자체에 인간의 도덕성을 부여하였다. 그럼으로 말미암아 천(天)의 도덕적 의미와 현상에

13) 양정숙, “동학 인내천 사상의 연원과 특징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2007), 17.

14) 中庸, 首章, “如天命之謂性 率性之謂道 修道之謂教”

이르러서는 천인합덕(天人合德)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생겨나게 되었다.¹⁵⁾

이와 같이 인내천 사상은 남을 하늘같이 떠받든다는 인간존중의 정신이라 할 수 있다. 인내천 사상은 한국 전통 사상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자리매김 하였다. 이는 한국 사회 전반에 나타나는 문화현상 가운데서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인정받지 못하면 소외되고 인정받기 위해 몸부림을 친다. 하늘과 내가 하나라 여기기에 무시당하면 몹시 괴로워하고 사소한 일에도 자존심을 곧잘 세운다. 이러한 모습은 바로 인내천 사상의 영향에서 비롯된 것이라 볼 수 있다.

2. 인(仁)에 대한 이해

가. 공자의 仁(인) 사상

일반적으로 기독교를 사랑의 종교라고 한다. 성경을 봐도 분명히 이를 알 수 있다. 동양 사상에서도 사랑에 대한 강조가 있었다. 그것을 인(仁) 사상이라 할 수 있는데 물론 기독교의 사랑과는 차이가 있다.¹⁶⁾ 인(仁) 사상은 동양의 지자(智者)들의 사상에 핵심을 이루고 있는 사상이며 이에서 파생된 많은 사상들이 생겨났다. 따라서 반드시 인(仁)을 이해해야만 동양윤리를 이해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관계에 대한 실질적인 것들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흐름과 특징을 이해한다면 목회사역에 유용하게 접목할 수 있을 것이다.

유학(儒學)은 인간의 윤리·도덕을 기초로 한 철학이고 종교이다. 흔히 유학의 근본 사상을 인(仁)이라고 하지만 “인이란 무엇인가?” 라는 물음에는 여러 갈래로 대답할 수 있다. 공자는 제자들을 가르칠 때 맞춤형 교육방식을 사용했는데, 한 사람 한 사람의 특성이나 자질, 학문 진도에 따라 각기 다른 방식을 썼다. 인(仁)이라는 한문 글자를 봐도 그 뜻에 사랑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인은 인(人)과 이(二), 곧 이인(二人)으로 이루어진 글자이다. 이인(二人)이란 두 사람을 말하며, 너와 나 그

15) 조민환, “유가예술사상에 있어서 천인합일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1985), 75.

16) 성경에 나타난 사랑은 예수그리스도가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희생의 사랑이 근본이 된다. 하지만 유교 경전에 나타난 인(仁)은 의(義), 예(禮), 지(智)등 많은 사상들을 함축하고 있다. 이는 뒤에서 조금 더 설명할 것이다.

리고 그 사이의 관계를 말한다.¹⁷⁾

동양윤리의 근본 원리가 된 것이 인(仁)인데, 공자사상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원리 또한 인(仁)이라 할 수 있다. 공자 사상의 핵심인 인(仁)은 주로 두 가지 측면의 내용을 가지고 있다. 하나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¹⁸⁾ 이고, 다른 하나는 “자기를 극복하고 예로 돌아가는 것”¹⁹⁾이다. “사람을 사랑하라(愛人)”는 것은 우선 혈연관계를 기초로 한다. 그런데 공자는 이러한 심리적 감정을 도덕 감정으로 발전시켰다. 아울러 효제(孝悌), 충서(忠恕)와 사랑에는 차등이 있다는 도덕 행위를 발전시켰다. 따라서 인(仁)은 도덕 감정과 윤리 규범의 결합이다.²⁰⁾

공자가 말한 인(仁)의 본질은 먼저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따라서 “유자가 말하기를, 그 사람됨이 효도하고 우에 있으면서 윗사람에게 거역하기를 좋아하는 이가 적고 윗사람에게 거역하기를 좋아하지 않으면서 난동 일으키기를 좋아하는 이가 있지 않았다. 군자는 근본에 힘쓰니, 근본이 서야 道가 발생하는 것이다. 孝와 悌라는 것은 仁을 행하는 근본일 것이다”²¹⁾ 라는 말이다.

한국 전통 사상의 핵심중 하나가 바로 효(孝)인데 이 효의 근원 또한 인(仁)임을 알 수 있다. 뒤에서 다시 살펴보겠지만 이는 기독교의 효와도 상통하는 부분이 많다. 이미 오래전부터 효도에 대한 실천을 해온 민족이 바로 우리 한국인들이다. 유난히 사람들과 함께 나누는 것을 좋아하고 섬김을 실천하는 훈련이 되어 있기에 한국에서 복음이 빠른 속도로 뿌리 내릴 수 있었던 좋은 요소가 된 것이다.

나. 맹자(孟子)의 인의(仁義) 사상

맹자(孟子)는 공자(孔子)의 중심사상인 ‘인(仁)’에 ‘의(義)’를 더하여 그의 사상을 확립해 나갔다. 공자가 인의(仁義)를 말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맹자 시대에 와서 이와 같이 의(義)가 강조된 것이다. 이는 당시 시대적 배경과도 관련이 있다. 공자 당시

17) 유학주임교수실, *유학사상*, 23.

18) 論語, 顏淵, 樊遲問仁. 子曰: 愛人

19) 論語, 顏淵, 顏淵問仁. 子曰: 克己復禮爲仁

20) 이후덕, “先秦 儒學의 仁思想 研究” (박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대학원, 2000), 37.

21) 論語, 學而, 有子曰: 其爲人也孝弟, 而好犯上者, 鮮矣; 不好犯上, 而好作亂者, 未之有也, 君子務本, 本立而道生. 孝弟也者, 其爲仁之本與

의 춘추(春秋) 시대는 씨족중심의 공동체 사회였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을 평화롭게 하는 일에 중점을 두어 인(仁)을 강조하였으나 맹자 시대에는 전쟁이 많은 시대였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 속에서 개인의 사리사욕을 배제하고 국가와 국가 간의 질서를 바로 잡기 위해 인(仁)과 의(義)를 같이 주장하게 된 것이다.²²⁾

인의(仁義)는 사람과 금수를 구별시켜 주는 중요한 요소이며, 덕을 이루고 성인이 될 수 있는 근거다. 모든 선(善)이 또한 이로부터 나온다. 그래서 ‘맹자(孟子)’에는 인의(仁義)의 언급이 많다.²³⁾

의(義)는 인간 행위를 위한 지침을 말하는데 인(仁)이 선험적인 인간의 본성에 근거한 개념이라면 의(義)는 인간의 행위가 드러나는 측면에 중점을 두고 한 말이다. 따라서 의(義)는 인간이 행해야 할 마땅한 행위이며 당위성이다. 이 당위성 역시 선천적으로 주어진 것이다. 그러므로 맹자에게 있어서 인(仁)과 의(義)가 분리되어 사용될 경우는 서로 다른 개념으로 사용된다. 즉 인(仁)은 하나의 포괄적인 원리이고, 의(義)는 행위 법칙이다. 다른 한편으로 맹자는 두 가지 개념을 하나의 개념으로도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인의(仁義)가 인(仁)·의(義)·예(禮)·지(智)를 모두 포괄하는 대표 개념임을 나타내는 것이며 동시에 모든 덕목을 대변하는 개념임을 나타낸다. 따라서 맹자에게 있어서 인(仁)과 의(義)는 분리되어 있을 때는 개별 덕목을 나타내고, 합쳐 있을 때는 모든 덕목을 대표하는 개념이 된다.²⁴⁾

맹자는 공자의 사상을 계승하여 발전시킨 인물이다. 우리가 맹자를 알아야 하는 이유는 맹자가 동양윤리(東洋倫理)를 집대성 시킨 인물이기 때문이다. 오륜(五倫)등 구체적인 덕목들을 정하고 실천하도록 가르쳤다. 동양의 윤리와 기독교의 윤리의 문제를 놓고 보면 상충하는 부분들도 많지만 수용하고 적용할 수 있는 부분들 또한 많이 있다. 이는 뒤에서 다시 설명하고자 한다. 물론 제도와 법질서의 기초를 놓은 순자(荀子)의 사상까지 살펴보면 좋겠지만 본 논문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해 지기에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자 한다.

22) 勞思光, 중국철학사(中國哲學史(古代篇)), 정인재 역 (서울: 探求堂, 1997), 119-123.

23) 蔡仁厚, 맹자의 철학(孔孟荀 哲學), 천병돈 역 (서울: 예문서원, 2000), 69.

24) 崔瑛甲, “先秦 儒家의 道德哲學에 關한 研究”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1998), 91-92.

다. 인(仁)의 실천덕목으로서의 충(忠)과 서(恕)

효(孝)는 자신이 상대방의 입장으로 바꾸어서 생각하는 서(恕)의 체험을 통하여 얻게 되는 느낌에 기초한 것이지, 결코 강제나 복종을 위한 것이 아니다.²⁵⁾ 효를 ‘백행의 근본’이라 부른 것은 강제적이고 억압적인 것이 아니라 가장 친근한 존재인 부모에 대해서조차 서(恕)를 하지 못한다면 타인이나 사회, 그리고 국가와 우주에 대한 서(恕)는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공자(孔子)와 증자(曾子)의 대화 속에서 공자의 “나의 도는 하나로 꿰뚫어진다”²⁶⁾를 증자가 충서(忠恕)로 해석하면서부터 충서는 인(仁)을 실천하는 가장 중요한 실천 덕목이 되었다.

공자가 ‘삼야! 나의 도는 하나로써 꿰었느니라’라고 하자, 증자가 ‘예’라고 대답하였다. 공자가 나가니, 문인이 ‘무엇을 말한 것입니까?’라고 하자, 증자가 ‘부자의 도는 자기 마음을 극진히 하는 충과 남의 마음을 헤아리는恕일 뿐이다’라고 하였다.²⁷⁾

공자의 제자들이 공자 사후 집필한 논어에 보면 서(恕)에 대해 “자기가 원하지 않는 일을 타인에게 시키지 말라”고 정의하고 있다. 따라서 서(恕)에 대한 정의는 비교적 명확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大學에서도 이와 비슷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윗자리에 있는 사람이 먼저 자신의 부모에게 효도를 다하면 백성들도 이를 보고 배워 자신의 부모에게 효도를 다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윗자리에 있는 사람이 반드시 갖추어야 할 자신을 비추어 남을 헤아리는 絜矩之道이다.²⁸⁾

윗사람에게서 싫어하던 것으로써 아랫사람을 부리지 말고, 아랫사람에게서 싫어하던 것으로써 윗사람을 섬기지 말고, 앞사람에게서 싫어하던 것으로써 뒷사람에게 먼저 시키지 말고, 뒷사람에게서 싫어하던 것으로써 앞사람을 따르지 말고, 오른쪽 사람에게서 싫

25) 論語, 學而, “君子務本, 本立而道生. 孝弟也者, 其爲仁之本與.”

26) 論語, 里仁, “參乎! 吾道一以貫之”

27) 論語, 里仁, “子曰: 參乎! 吾道一以貫之” …子出. 門人問曰: 何謂也? 曾子曰: 夫子之道, 忠恕而已矣“

28) 大學, “上老老而民興孝 …… 是以君子有絜矩之道也”

어하던 것으로써 왼쪽 사람과 사귀지 말고, 왼쪽 사람에게서 싫어 하던 것으로써 오른쪽 사람과 사귀지 말지니 이것을 絜矩之道라고 부른다.²⁹⁾

충(忠) 또한 인(仁)의 실천방법으로 서(恕)와 함께 설명되고 있다. “인자는 자신이 서고자 하면 남도 세워주고, 자신이 어떤 목적을 이루고자 하면 남도 이루어지도록 해준다. 가까운데서 취해 비유할 수 있으면 仁을 하는 방법이라고 말할 만하다.”³⁰⁾ 서(恕)가 부정적이고 소극적인 내용을 담고 있는 것과는 달리 충(忠)은 긍정적이며 적극적인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런 사상들이 동양사상 전반에 스며들어 있고 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시대에 따라 새롭게 정립되어 졌다. 때로는 정치에 이용되기도 했지만 예(禮)를 중시하여 관계를 정립하고 거기에 따른 도(道)를 행함으로 본분을 다하여 왔다.

3. 예(禮)사상에 대한 이해

가. 효제(孝悌) 사상

한국인들에게 있어서 ‘효(孝)’와 ‘제(悌)’ 라는 말은 친숙한 말이다. 유난히도 가족애가 강하고 형제애가 강하기 때문이다. 이런 배경의 근원에는 인(仁) 사상이 자리 잡고 있으며 이를 행하는 근본으로 효(孝)와 제(悌)가 강조되어 왔기 때문이다. 바로 예(禮)를 지키는 도덕 행위는 모두 효제의 도덕 감정에 기초해서 실천되어 왔다.

유교에 있어서 예(禮)는 인간 생활의 근본 요소일 뿐만 아니라, 형이상학적 근본 개념으로서도 언급되고 있다. 따라서 예(禮)는 아주 구체적이며 실천적이다. 또한 예(禮)는 결코 추상적이거나 초월적 관념으로서 사유 속에서만 모색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 속에서도 구체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³¹⁾

공자의 사상을 뿌리로 하여 자라난 유교는 인(仁)을 도덕규범의 근본 원리로 규정한다. 여기서 부모에 대한 효(孝)와 형제간의 우애(友愛)를, 공경의 개념으로서의 제

29) 大學, “所惡於上, 毋以使下; 所惡於下, 毋以事上; 所惡於前, 毋以先後; 所惡於後, 毋以從前; 所惡於右, 毋以交於左; 所惡於左, 毋以交於右: 此之謂絜矩之道”

30) 論語, 雍也 “夫仁者, 己欲立而立人, 己欲達而達人 ……能近取譬, 可謂仁之方也已”

31) 금장태, *유교사상과 종교문화*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7), 145.

(梯)를 가족적 도덕규범의 이론적 뼈대로 제시한다. 이는 인간의 보편적 윤리 규범이 가족 관계의 규범에 기초하여 실현됨을 보인 것이다. 따라서 도덕적 원리인 인(仁)을 바탕으로, 그 실천에 있어서는 효(孝)와 제(悌)의 가족적 도덕규범이 기초가 된다.³²⁾

효(孝)에 대한 구체적인 정립은 공자 이후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이전에도 효(孝)사상의 흔적을 찾아 볼 수 있다. 은대(殷代)의 복사(卜辭)나 금문(金文)에도 이미 효(孝)라는 말이 나오며, 시경(詩經)이나 서경(書經)에도 효(孝)에 대한 기록은 다양하게 나타난다. 다만 공자는 효(孝)에 관한 이론적 체계를 세웠다는 것에서 그 의의를 둘 수 있다. 공자에 의하면 부모 생전에는 예를 다하여 모시고, 돌아가시면 예로써 장사지내며, 제사를 지낼 때도 예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³³⁾

공자는 ‘효라는 것은 아버지의 뜻을 잘 계승하며, 그 일을 이어받아 잘 수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무왕의 형제로 일컬어지는 주공의 행실에서 효(孝)의 정신이 어떠한 것인지를 엿볼 수 있다. 공자는 주공이 그의 아버지인 문왕의 뒤를 이어 그 예법을 준행하고, 아버지의 음악을 연주하기를 즐겼으며, 아버지가 우려르던 것들을 우려르고, 아버지가 사랑하던 것들을 또한 그렇게 사랑하며, 죽은 이 섬기기를 산 사람을 섬기는 것과 같이 하였고, 현재 자리에 없다 하더라도 마치 함께 있는 것처럼 살았다고 하며 효(孝)의 원형으로 꼽는다.³⁴⁾ 이는 예(禮)의 한 부분으로서의 효(孝)의 의미가 어떤 것이며 그 효(孝)의 정신이 어떤 것인지를 잘 가르쳐 주는 내용이다. 결국 자식이 해야 할 효도란 단지 아버지를 잘 봉양한다는 차원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정신을 잘 본받으며, 아버지의 이름을 부끄럽지 않게 해야 한다. 그런 단계를 거쳐 윤리적으로 완성된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효도를 다했다고 말할 수 있다. 즉 이것이 유교의 효(孝) 정신이다.

결국 이러한 사상을 기반으로 하여 한국의 효사상이 형성되었으며 효(孝)에 대한 상별을 시행하는 등 지속적으로 장려되어 왔다. 이러한 영향으로 제의(祭儀)문화 또한 발전하게 된 것이다. 우리의 전통 사상에서 조상 그리고 부모의 존재는 죽어 없어지는 존재가 아닌 영원히 함께 영(靈)으로 공존하는 대상이 된 것이다. 따라서 조상에게

32) 금장태, *유교의 사상과 의례* (서울: 예문서원, 2000), 140.

33) 차용준, *효사상과 조상숭배* (서울: 신아출판사, 2000), 17-18.

34) 이기석 역해, *신역(新譯) 소학* (서울: 홍신문화사, 1997), 172-173.

제사 지내는 행위는 점차 무속신앙(巫俗信仰)의 한 형태로 발전하게 되었다. 조상에게 복을 빌며 극진한 정성으로 말미암아 가정이 보호를 받고 복을 받는다는 믿음을 가지게 된 것이다.

나. 오륜(五倫) 사상

동양윤리를 집대성 한 사람이 맹자인데 맹자의 윤리사상의 핵심이 바로 오륜(五倫)이다. 맹자의 오륜(五倫) 규범은 서경(書經)의 오전(五典), 오례(五禮)인 주(周)나라의 국가 형성에 기본이 되는 계급과 계층 간의 귀천상하의 차별 윤리를 제도화한 것이다. 맹자는 이것을 주관적이고 내면적인 도덕성과 결부시켜 오륜의 사회적 윤리규범으로 나온다고 보고, 오륜과 결부시킨 것이다.

맹자는 '성인 인륜지자야(聖人 人倫之至也)'³⁵⁾라 하면서 인륜(人倫)을 중요시 했다. 그는 인성에 의해 오륜(五倫)과 효제(孝悌)가 형성될 수 있음을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인간에게는 도리가 있는데, 배불리 먹고 따뜻이 옷을 입어서 편안히 거처하기만 하고 가르침이 없으면 禽獸와 가까워진다. 이 때문에 성인이 이를 근심하시어, 契로 하여금 司走를 삼아 인륜을 가르치게 하셨으니, 父子간에는 친함이 있으며, 君臣간에는 의리가 있으며, 夫婦간에는 분별이 있으며, 長幼간에는 차례가 있으며, 朋友간에는 믿음이 있는 것이다. ³⁶⁾

이러한 오륜(五倫)은 맹자가 처음 제시한 것은 아니지만, 사회윤리로서 인간사회의 대부분을 망라한 포괄적인 규범이다.

서경(書經) 순전(舜典)에 오전(五典)·오당(五常)·오교(五敎)라 하여 부자(父子), 군신(君臣), 부부(夫婦), 장유(長幼), 봉우관계(朋友關係)를 말하고 있고 중용(中庸)에도 군신(君臣), 부자(父子), 곤제(昆弟), 봉우(朋友)에 대한 다섯 가지를 말하고 있다. 맹자는 공자의 효제사상(孝悌思想)을 이어 '입즉효 출즉제(入則孝 出則悌)'³⁷⁾라는 말을 갈

35) 孟子, 離婁上2

36) 孟子, 滕文公4: 人之有道也 飽食煖衣 逸居而無教 則近於禽獸 聖人有憂之 使契爲司徒 教以人倫 父子有親 君臣有義 夫婦有別 長幼有序 朋友有信

이 하였다. 이러한 오륜(五倫)과 효제(孝悌)는 선천적 성선의 실천규범으로서 가족윤리의 근간이 되고 있다.

오륜은 관계에 대한 윤리 규범으로 오늘에 이르기 까지 동양의 유교 문화권에서 윤리사상의 근간을 이룬다. 그 내용은 첫째, 부모와 자녀사이의 관계, 둘째 친구사이의 관계, 셋째 임금과 신하간의 관계, 넷째 연장자(年長者)와 연소자(年少者)간의 관계, 다섯째 부부사이의 관계이다.³⁸⁾

맹자가 주창한 오륜사상은 동양 윤리의 근간을 이룬다고 말할 정도로 중요한 사상이다. 관계의 처세(處世)를 중요시한 동양 사상의 구체적인 덕목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또한 예로부터 동방예의지국(東方禮儀之國)이라 불릴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이러한 사상들이 근간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구시대(舊時代)의 산물이라 여겨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이는 실로 안타까운 일이다. 우리 전통 사상의 우수하고 유익한 부분들이 많다. 우리 민족의 뛰어난 장점 중 하나는 중국에서 전해 들어온 사상도 우리의 것으로 소화하고 발전 전개시켰다는 것이다. 이는 실로 놀랍고도 우수한 우리 민족의 장점이다. 따라서 유익한 것들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계승하고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 특히 우리 기독교가 이런 일에 앞장을 서야한다. 성경적 토대 위에 한국 전통 사상의 변혁적 수용을 통해 교회와 목회 사역에 적용시켜 나간다면 가장 한국적인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4. 조상숭배와 제사

가. 조상숭배에 대한 이해

조상숭배와 제사의 문제는 초기 기독교 수용 당시부터 지금까지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이다. 시간이 흐르고 여러 가지 상황가운데 제사가 우상숭배라는 주장보다는 문화의 한 측면이며 이해하고 수용해 나가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하

37) 論語, 學而 및 孟子, 滕文公下4

38) 오륜의 구체적인 내용들은 5장에서 설명하였다. 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들은 필자의 석사논문을 참고하기 바란다. 이대우, “맹자의 윤리사상연구”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2003).

지만 이에도 신중을 기해야 한다. 정확히 알지 못하고 수용을 한다면 어떤 다른 목적으로 이를 이용하려 한다면 복음이 훼손될 수 있기 때문이다.

유교(儒敎)라는 큰 틀에서 한국 전통 사상을 이해하기 위해 여러 항목들을 살펴보고 있지만, 사실 조상숭배는 유교의 전유물은 아니다. 물론 유교를 통해서 제례(祭禮)가 형성되었지만 서양에서도 조상숭배에 대한 모습들이 존재했었고, 유교가 전래되기 이전의 한민족(韓民族)에게도 조상숭배의 모습이 존재하고 있었다.³⁹⁾

고대 고조선 시대에는 천신(天神), 지모신(地母神), 곡신(穀神)등을 숭배하는 제천의식이 있었다. 조상에 대한 제사가 없었던 것처럼 보이지만 삼한(三韓)의 무석과 고구려의 동맹제(同盟祭)등에는 시조신(始祖神)에 대한 제사가 있었다.⁴⁰⁾

고대부터 지속되어온 조상숭배 사상은 제사를 통해 보다 구체적인 틀을 갖게 되면서 종교적인 모습에 가까워져 갔다. 구한말 조선의 조상숭배는 유교가 제도화 되는 가운데 점차 강화되었다. 유교를 종교화해 경전의 해석을 통해 전통을 계승하였으며, 하늘을 신앙의 대상으로 여겨 숭배하는 태도, 인간 내면의 성찰과 수양 그리고 사회적 윤리규범의 실천 등을 통해 궁극의 상태를 지향하는 두 경향이 공존하면서 독자적인 흐름을 형성해 갔다.⁴¹⁾

이러한 역사의 흐름 가운데 조상숭배 사상은 보다 구체적으로 의례화 되었고, 조상 제사와 풍수사상, 무속신앙에 까지 영향을 미쳤다. 조선시대에는 조상숭배의 관행이 사회문화 전반에 걸쳐 나타났는데 대표적인 관행으로 상례(喪禮)를 통한 관행, 제례(祭禮)를 통한 관행, 민간신앙을 통해 나타난 관행, 세시풍속을 통해 나타난 관행 등을 들 수 있다.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조상 숭배에 있어서 죽은 자가 죽음으로써 가족과 관계가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관계를 가지며 교제를 나누는 인간의 자연적인 정(情)의 발로라고 여겨왔다.⁴²⁾

39) 이중호, “선교적 관점에서 바라본 조상숭배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목원대학교 대학원, 2010), 5.

40) 이은태, *한국고대 종교상의 성격* (서울: 종로서적, 1984), 743.

41) 박남규, “한국 개신교의 제사 금지 정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과 대안 연구” (박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대학원, 2009), 57.

42) 류순하, *기독교예배와 유교제사* (서울: 숭실대학교출판부, 2000), 59.

나. 한국에서의 제사의 형성과정

앞서도 살펴보았지만 한국에서는 고대부터 조상숭배의 모습이 있어 왔다. 시간이 흐르면서 조상숭배의 모습이 제례(祭禮)를 통해 보다 체계화된 종교적인 모습에 가까워져 갔다. 그렇기에 제사에 혼용되어 있는 조상숭배와 죽음의 추도를 다르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 오늘날 제사에 있어 우상의 요소가 되는 조상숭배의 부분을 제거하고 죽음을 추도하는 관점에서 충분히 제사를 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인들이 행하고 있는 조상숭배는 고대로부터 전해 내려온 풍습으로서, 고대의 샤머니즘에서는 사자(死者)의 영(靈)을 위로하기 위한 제사로 시작되었다. 삼국시대와 고려 시대로 넘어 오면서 불교의 영향을 받아 죽은 자의 명복을 비는 의미로서의 제사가 행해졌다. 조선 시대에 이르러서는 유교의 영향을 받아 효(孝)사상과 결합하여 윤리적인 형태로 변하게 되었다.

조상숭배 의식은 일반적으로 신령한 존재에게 드려지는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최상의 경의(敬意)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이것은 인간의 종교적 본성에 기인한 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 이같은 제사의 기원은 인간의 역사와 그 시작을 같이 한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13세기 고려 말 성리학이 들어오면서 곳곳에 사당을 짓기 시작하였다. 사당은 제사를 지내는 곳이었다. 조선이 건국되면서 태조는 고려의 불교를 성리학으로 바꾸었다. 고려와 새 왕조와의 근본적인 차이를 강조하기 위해 성리학이 바탕이 된 유교를 조선의 국교로 받아들이면서 주자가 강조한 조상의 제사를 장려하기 시작한 것이다. 세종 때에는 제사가 성행하여 집집마다 가묘가 있었고, 집안에 사당을 두고, 방 앞에 신주를 모시고 거기에다가 절을 했다는 기록이 남아있다.⁴³⁾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오래 전부터 제사 풍습이 내려오면서 유교적인 개념을 넘어서는 현상이 있었는데, 그것은 효를 넘어선 신앙의 상태라는 것이다. 다시 말해 제사를 지내는 것이 단순한 효의 표현일 뿐 아니라 하나의 신앙의 형태로 발전한 것이다.

이상과 같이 살펴볼 때 제사는 분명 종교성을 띄고 있었고 종교적 기능을 했음을 알 수 있다. 한국 기독교에서 제사를 우상을 섬기는 행위라 정죄하고 이를 거부해

43) 손봉호, *제사와 현대 문화* (서울: 도서출판 엠마오, 1991), 34-35.

은 것도 이러한 연유에서 이다. 하지만 이러한 종교적 기능이 희석된 현대에 있어서 이를 재조명해 보고 분별하여 수용할 필요가 있다.

제 2 절 불교의 영향

불교는 한국에 들어온 최초의 외래 종교라 할 수 있다. 불교는 석가가 도달한 불타, 즉 진리를 깨닫는 자가 되는 길을 가르치는 종교이다. 그 방법은 인간의 수양과 노력이다. 본 논문에서 불교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는 바로 불교가 민간 신앙에 많은 영향을 주었기 때문이다. 특히 구원관에 있어서 아직까지도 열반(涅槃)에 들어가는 불교의 구원관과 혼동하는 성도들도 있다. 따라서 불교의 핵심 사상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1. 불교의 핵심 사상 이해

가. 법인사상(法印思想)

기독교 신학의 출발점을 삼위일체(Trinity)로 본다면 불교 교리의 출발점은 삼법(三法)이라 볼 수 있다. 불교 교리의 핵심이 되는 삼법은 석가가 가르친 근본 사상에 이를 법인사상(法印思想)이라 한다.⁴⁴⁾

법인사상의 뜻은 ‘변함없는 진리,’ ‘불교의 증거’ 라는 것이다. 이러한 법인사상은 실제로 불교의 교리 형성과 변천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왔는데, 중국에서는 오래 전부터 이 법인사상에 부합되는 가르침은 진설(眞設)로 인정했고, 이에 어긋나는 가르침은 부처의 가르침이 아닌 것으로 여겼다.⁴⁵⁾

불교에서 법(法)이란 석가가 가르친 사물의 존재의 법칙을 말한다. 여기에는 세 가지로 나누어 설명되는데, 법인(法印)이란 법의 표시와 특징으로 석가는 삼법인을 말한다. 삼법인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⁴⁶⁾

44) 김익원, *그리스도인이 본 불교* (서울: 성광문화사, 1989), 125.

45) 무진장, *불교개설* (서울: 홍법원, 1980), 223.

46) 삼법인에 관한 내용은 다음의 책을 참고하여 정리하였다. 서재생, *기독교와 불교의 비판론*

첫째, 제행무상(諸行無常)이다. 정신계, 물질계를 포함한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변화한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항상(恒常)함이 없이 변화하기에 무상(無常)하다는 것이다. 계절도 변하며, 사람도 태어나서부터 죽음에 이르기 까지 변하기 때문에 무상하다는 것이다. 불교 학자들은 실상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현상의 덧없음을 외적, 시간적 표현이라고 보고 있다. 즉 제행무상은 “모든 존재가 항상함이 없이 변화한다”는 법칙을 절대화 한 것이다. 이는 또한 불교가 모든 존재를 보는 관점이다.

둘째, 제법무아(諸法無我)이다. 현상계에 존재하는 모든 것에는 고정된 절대적인 실체가 없다는 뜻이다. 현상계의 모든 존재는 시간적으로 볼 때 무상하며, 공간적으로 볼 때 그 실체가 없다는 것이다. 일체의 모든 존재는 인연이 있어 존재하다 그 인연이 다하면 없어질 뿐, 그 속에는 ‘나’라고 고집할만한 것은 하나도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불교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의 느낌과 생각 그리고 가치관과 세계관 등이 모두 교육을 통해 배웠거나 경험을 통해 익혀 온 개념이나 이야기일 뿐이라는 입장이다. 그렇기에 불교에서는 창조자 하나님 개념이 들어서기 어렵다. 또한 자칫 인간의 책임성을 주변 환경 탓으로 돌릴 우려도 있다.

셋째, 열반적정(涅槃寂靜)이다. 열반 세계의 특징은 제행무상과 제법무아의 특징과는 달리 아무런 움직임도 변화도 없는 적정(寂靜)만이 있다는 것이다. 열반이란 말은 ‘불어서 끈다’라는 뜻이다. 사물의 실상이 공(空)함을 깨달을 때 인간은 해탈의 경지에 오른다고 보았다. 그렇기에 적정이란 고통의 번뇌에서 벗어나 고요한 마음의 평화를 얻은 상태를 말한다. 즉 열반은 “최고의 행복”을 의미하며 불교에서 추구하는 궁극적 목적이자 최고의 이상관이라 할 수 있다.⁴⁷⁾

이러한 삼법인설의 세 가지 법칙은 사물을 볼 때 고정된 실체가 아닌 변화와 과정으로 보는 입장으로 상호 연결된 하나의 실천이론의 법칙으로 보는 시각이 옳다. 따라서 불교에서 주장하는 삼법인설이란 제행이 무상하고 제법이 무아하기에 인간의 욕망과 집착을 벗어나서 열반에 이르기를 노력해야 한다고 말하는 근본교리이다.

(서울: 도서출판 신애, 1992), 54.

47) 김익원, *그리스도인이 본 불교*, 125.

나. 연기법(緣起法)

연기법(緣起法)은 부처가 깨달은 진리로 불교의 가장 핵심적인 교리로도 인식되는데 그 진리의 내용이 연기(緣起)이다. 심지어 이 연기법을 아는 것이 부처를 보는 것이라고 주장하는 경전도 있을 정도다.⁴⁸⁾ 연기(緣起)란 모든 것은 원인과 조건이 있어서 생겨나고 원인과 조건이 없어지면 소멸한다는 것이다.⁴⁹⁾ 곧 모든 것은 홀로 존재하지 않고 상호관계 속에서 존재한다는 것이다. 즉 악한 행동에는 고통의 결과가 오고, 착한 행동에는 행복의 결과가 오는 인과법과 관련된다. 현대 불교의 입장에서 연기법을 생활 속에서 수련하는 실천적 방법으로 “모든 존재에 대한 공경과 감사의 생활,” “기쁨 가득한 공존의 생활,” “안으로 늘 깨어 있는 생활,” “분별력과 집착을 놓아버린 자유로운 생활” 등을 제시하고 있다.⁵⁰⁾

석가는 인간의 고뇌의 발생과 원인에 대하여 12가지의 연기법을 제시했다.⁵¹⁾ 십이연기론(十二緣起論)은 모든 괴로움을 떠나기 위해서 그 발생과 소멸을 12가지로 풀어 놓은 주장이다. 이 교리의 근본 목적은 인생의 근원적인 문제인 고통이 어떻게 해서 생겨나고 또 어떻게 사라지는가를 규명하기 위한 노력이라 볼 수 있다.

즉 12연기법이란 “인연하여 일어남”이라는 계기적 또는 발생적 의미인 시간적 인과관계가 아닌, “인연하여 일어나 있음”이라는 상태 혹은 모습을 말하는 공간적 인

48)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 *불교의 이해와 실행* (서울: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 2004), 41.

49) Ibid., 42.

50) 대한불교조계종 포교원, *불교의 이해와 실행*, 90.

51) 12 연기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①무명(無明)-밝은 지혜에 머물지 못하고 어두워진 상태, ②행(行)-무명으로 인하여 의식작용을 일으키는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 ③식(識)-의식 작용을 일으키는 바탕이며 행의 결과 식이 형성된다, ④명색(名色)-의식 작용을 일으키는 바탕인 식과 감각기관을 가진 몸이 함께 갖추어진 것, ⑤육처(六處)-명색이 갖추어지면 여섯 가지의 감각기관, 즉 눈, 귀, 코, 혀, 피부가 작용을 하게 되는 이를 육입이라 한다, ⑥촉(觸)-감각 기관이 감각작용을 일으켜 감각대상과 감각주체의 접촉이 이루어지는 것, ⑦수(受)-감각작용을 통해서 감각주체가 감각대상을 감각하면 감각대상에 대한 느낌을 동반하는데 그것을 일컬음, ⑧애(愛)-감각대상에 대한 느낌이 생겨나면 좋은 느낌을 받는 감각대상에 대하여 애착이 생기는데 그것을 일컬음, ⑨취(取)-감각대상에 대하여 애착이 생기면 그것을 집착하게 되는데 그것을 일컬음, ⑩유(有)-집착을 지속적으로 가지다 보면 집착의 덩어리가 쌓이는데 그것을 일컬음, ⑪생(生)-집착의 덩어리가 쌓이면 나라는 의식으로 구체화되는데 그것을 일컬음, ⑫노사(老死)-나라는 것이 생겨나면 어쩔 수 없이 나의 늙음과 나의 죽음이란 현상이 동반되는데 그것을 노사라 한다.

과관계를 말하는 것이다.⁵²⁾

2. 불교의 구원관 이해

가. 사성제(四聖諦)와 팔정도(八正道)

석가는 인연법에 근거하여 인간이 해탈을 이루기 위한 가장 근본적인 원리를 제시했는데, 이를 ‘사제(四諦)’ 또는 ‘사성제(四聖諦)’라고 하며, 팔정도(八正道)와 함께 불교의 구원관을 이루는 가장 중요하고도 기본적인 교리이다. 사성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⁵³⁾

첫째, 고제(苦諦)이다. 사람은 태어나는 것도 괴로움이요, 늙는 것도 괴로움이며, 죽는 것도 괴로움이다. 원한 있는 자와 만나야 되는 것도 괴로움이요,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것도 괴로움이요, 구하나 얻지 못하는 것도 괴로움이요, 번뇌의 수풀 위에 뿌리박고 있는 이 몸이 주내하는 것도 괴로움이다. 이것을 팔고(八苦)라 한다. 인간의 괴로움은 욕망에서 부터 비롯된다. 따라서 고(苦)는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것이며, 그 원인은 집제에서 설명된다. 이 고제는 연기법과 더불어 불교의 구원관을 알아가는 출발점이라 할 수 있다.

둘째, 집제(集諦)이다. 집제는 괴로움의 원인을 밝히는 교리인데, 사람이면 누구나 겪게 되는 외로움의 원인에 관한 것이다. 인간의 근본 미혹으로 인한 욕망과 애착이 모여 생긴 괴로운 갈애(渴愛)가 괴로움의 원인으로 본다. 오늘날 거액의 금융채무와 갚기 어려운 사치로 인한 카드빚, 대입 수능시험 성적이 나빠 괴로움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지만 자살이나 도피로 해결할 수 없다. 불교에서는 이런 살고 죽는 괴로움을 극복하는 대안으로 열반으로 가는 멸제(滅諦)와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도제(道諦)를 말하고 있다.

셋째, 멸제(滅諦)이다. 석가는 모든 번뇌와 고통이 사라진 상태를 열반(涅槃)이라고 했다. 즉 열반은 단절한다는 의미를 가진 말이다. 아울러 다시는 그것이 일어나

52) 배중호, *철학개론*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1987), 171.

53) 사성제에 관한 내용은 다음 책을 참고하여 정리하였다. 김익원, *그리스도인이 본 불교*, 124-125.

지 않게 되었다는 말이다. 따라서 이것은 미래의 결과이다. 이렇게 되기 위한 원인과 방법이 바로 도제이다.

넷째, 도제(道諦)이다. 해탈을 얻기 위해서는 여덟 가지의 바른 길인 팔정도(八正道)⁵⁴⁾를 행해야 한다. 도제에서는 해탈을 위한 구체적인 수행법인 팔정도를 가르치고 있다. 이 팔정도만 바르게 수양하면 마음속에 쓸데없는 집착이 사라져 해탈에 이르게 되며 열반의 경지에 이를 수 있다고 한다.

자기 인격완성을 통한 해탈을 이루기 위해 사제와 팔정도를 불교에서는 가르쳤지만, 대승불교에서는 팔정도 대신 육바라밀(六波羅蜜)이라는 독자적인 수행법을 가르쳤다. 이는 뒤에서 다시 살펴보고자 한다.

나. 대승불교(大乘佛敎)에서의 구원

대승불교에 있어서 구원은 성불을 목적으로 하고 성불의 방법에 있어서는 보살을 통한 타력구원을 말하고 있다. 대승불교는 소승불교와 달리 자신의 구원을 중요시 여기는 것이 아니라 보살을 통한 대중 구원에 그 목적을 둔다. 그렇기에 누구라도 성불의 서원을 세워 보살의 도에 정진한다면 그 사람이 보살이며 장래에 반드시 성불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보살이란 누구나 될 수 있는 보살로서 보편화된 성불 그 자체이다. 남녀노소 귀천상하를 막론하고 누구나 수행을 하면 붓다와 똑같은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보살의 길은 재가자나 출가자를 막론하고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길이다.

그 수행 방법은 육바라밀(六波羅蜜)이다.⁵⁵⁾ 대승불교에서는 이러한 수행을 통하

54) 팔정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정견(正見)-빈틈없이 열여섯 행을 닦을 때 사제를 분명히 보는 것, ②정사유(正思惟)-사제를 볼 때 빈틈없는 마음이 상응하여 바른 뜻을 움직여 잘 깨쳐 알고 헤아려서 바른 뜻을 더욱 증장시켜 열반에 들어가는 것, ③정어(正語)-빈틈 없는 지혜를 가지고 네 가지 사된 생활을 버리고, 입의 입을 거두어 온갖 바른 말 가운데 머무는 것, ④정업(正業)-빈틈없는 지혜를 가지고 온갖 사된 행위를 없애 깨끗하고 바른 몸의 행위 가운데 머무는 것, ⑤정명(正命)-빈틈없는 지혜를 가지고 몸·입·뜻으로 짓는 세 가지 활동 가운데 다섯가지 사된 생활을 없애고 깨끗하고 바른 생활중에 머무는 것, ⑥정정진(正精進)-빈틈없는 지혜에 상응하여 부지런히 열반의 길을 닦는 것, ⑦정념(正念)-빈틈없는 지혜에 상응하여 바른 도와 그것을 돕는 방편을 생각하는 것, ⑧정정(正定)-빈틈없는 지혜에 상응하여 선정에 드는 것.

55) 육바라밀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보시(布施)-자기 소유물을 필요한 사람에게 베풀어 주

여 성불에 이를 수 있다고 가르친다. 대승 불교의 특징은 보살들에 대한 신앙이다. 신앙의 대상으로서의 붓다가 초인화 되어 부상되었듯이, 이 보살들도 초인화 되어서 구제력이 강조되었다.⁵⁶⁾

재가자(在家者)들은 윤회의 틀에서 자유하지 못했지만 천상계에 다시 태어날 것을 소원했다. 그것이 바로 생천(生天)에의 바람이다. 이는 56억 7천만년 후에 나타날 미륵이 도솔천에 내려와 완성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중생들은 미륵불이 있는 땅인 정토, 즉 번뇌를 통한 청정한 세계인 불국토(佛國土)에 왕생 할 것을 믿었다. 이런 정토에 대한 염불(念佛) 즉, 정토에의 완성을 기원하는 것이 정토신앙이다.⁵⁷⁾

이상에서 살펴본 초기불교의 ‘사상제 팔정도’ 원리는 불교의 구원관이 팔정도를 수행함으로 해탈의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자력 구원의 구원관을 말하였고, 대승불교에서는 보살 신앙과 정토신앙과 함께 타력구원관의 길을 제시하였다.

다. 열반(涅槃)과 해탈(解脫)

불교의 목적은 열반(涅槃)에 이르는 것이다. 열반은 해탈(解脫)을 전제로 하고 있고 불교의 출발은 윤회(輪廻)의 세계로부터의 탈출하는 것이다. 두 번 다시 윤회하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바로 불교의 이상(理想)인 것이다. 이 탈출이 바로 해탈이다. 즉 해탈이란 윤회의 세계와 연결 지어진 모든 속박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을 뜻한다.⁵⁸⁾ 보조국사 지눌은 “생각이 없이 안다(無念而知)”라고 표현했고, 영가 현각(永嘉 玄覺) 선사는 ‘선종영가집(禪宗永嘉集)’에서 “지향하여 생각을 일으키는 것이 끊어진 뒤에 고요하며, 신령스럽게 아는 자성이 분명하고 또렷하다”고 해탈의 경지를 설명하였다.⁵⁹⁾

윤회의 세계는 불교 이전 사후 세계관이다. 석가 당시 인도인들은 사후(死後)는

는 것, 즉 자비를 말한다. ②지계(持戒):계와 율을 지켜 악을 멸하는 것 ③인욕(忍辱):고통을 참고 그것을 받아들여 원한과 노여움을 없애고 마음의 평화를 찾는 것. ④정진(精進):몸과 마음을 가다듬과 선행을 실천하는 것. ⑤선정(禪定):마음을 한 곳에 모아 진리를 바르게 사유하는 것. ⑥지혜(智慧):진여실상을 바로 보는 것.

56) 정승섭, 100문 100답 (서울: 대원정사, 1993), 166.

57) Hiro Sachiya, 소승불교와 대승불교 (大いなる教え興る : 大乘佛教), 강기희 역 (서울: 민족사, 1994), 259-260.

58) 서제생, 기독교와 불교의 비교론 (서울: 도서출판 신애, 1992), 54.

59) 변상섭, 禪 신비주의인가, 철학인가? (서울: 컬처라인, 2002), 32.

생전(生前)에 지은 선악의 행(行)에 따라 천계(극락)에도 태어나고, 또는 지옥에도 떨어지고, 인간으로 태어나기도 하고, 혹은 소나 말 같은 가축이 되어 태어나기도 한다고 믿었다.⁶⁰⁾ 사후에는 영원한 쉼이나 생명이 아닌 또 다른 생명으로의 태어나는 것 뿐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또 다른 생명 또한 언젠가는 죽음을 맞게 되는 것이다. 결국 영원한 생명은 없는 것이다. 불교는 이 같은 윤회 사상을 개혁하였다. 노력해서 천계에 태어난다 하더라도 그 쾌락이 영원히 계속될 수 없기 때문이다. 윤회의 세계는 곧 고뇌의 세계로 본다.⁶¹⁾

열반은 두 가지 형태로 구분해 볼 수 있다. 하나는 유여의(有餘依), 즉 오온(五蘊)⁶²⁾을 지닌 것으로 이 열반은 현재적인 사람에 속한다. 또 다른 하나는 무여의(無餘依), 즉 죽은 후에 등장한다. 이것은 계속되는 생성의 모든 가능성들이 완전히 지양되었을 때 등장한다. 여기에서 근본 바탕을 이루는 구원의 이념은 우리가 현세의 삶 속에서도 ‘차안적인 질서’의 열반이라고도 말하는 구원의 상태에 도달 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⁶³⁾

이상과 같이 살펴본 불교의 구원관을 정리하면 초기 소승(小乘)에서는 소극적으로 속박에서 벗어나는 과정에 만족해하는 반면, 대승(大乘)에서는 적극적으로 해탈의 결과인 자유를 얻는데 중점을 두었다.⁶⁴⁾

제 3 절 샤머니즘의 영향

한국 전통사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유교, 불교와 함께 반드시 살펴보아야 할 것이

60) 서재생, *기독교와 불교의 비교론*, 211.

61) Ibid., 211-212.

62) 어리석은 사람들이 명(名), 즉 의식에 미혹함이 치우치고 무거우므로, 성인의 가르침 가운데 ‘명’을 열어서 네 가지 마음을 삼고, 여기에 색을 마주하여 합하니 다섯이 되는데 이를 오온이라 한다. ①색(色)-모양이 있고 질감이 있고 결림이 있는 모든 것, ②수(受)-여섯 가지 감각기관을 인연하여 감각대상을 받아들임을 내는 것, ③상(想)-받아들인 바 대상의 모습을 인식내용으로 취하는 것, ④행(行)-감각기관을 통해서 받아들인 상을 가지고 갖가지 의식 활동을 일으키는 것, ⑤식(識)-의식활동을 통해서 만들어낸 의식세계를 일컫는다.

63) Gustav Mensching, *佛陀와 그리스도 (Buddha und Christus)*, 변선훈 역 (서울: 종로서적, 1987), 106.

64) 이훈구, *비교종교학* (서울: 은혜출판사, 2000), 110.

바로 샤머니즘 사상이다. 왜냐하면 샤머니즘 사상은 교회와 성도들의 삶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샤머니즘'은 원래 체계적인 교리나 조직을 갖추지 못한 'ANIMISM'에서 연유된 원시종교이다.⁶⁵⁾ 그러므로 샤머니즘은 그것을 수용할 지역이나 민족에 따라서 그 특성을 달리하고 있지만 대개 그 특성을 보면, 신의 개념을 인간의 현실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해 그 영역을 이용하기 위한 도구적 대상으로 본다. 또한 신들에게는 인간생활과 관련된 소정의 직능과 역할만 있지 성격적 개성이 없다는 것과, 신들 간에는 위계질서나 조직 같은 상호관계가 없는 것이 특징이다.⁶⁶⁾ 한국 샤머니즘의 특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⁶⁷⁾

첫째, 한국의 샤머니즘은 불교가 들어오기 전부터 수천 년 동안 민족과 함께 내려오면서 민족적 생활방식, 사고방식, 신앙관등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둘째, 샤머니즘의 끈질긴 생명력과 놀라운 수용력이다. 대륙에서 불교, 유교, 도교 등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크게 변성하기도 했으나 그 어느 종교도 샤머니즘을 완전히 제압해 본 일이 없었다. 오히려 이들 외래 종교가 수용과정에서 샤머니즘에 흡수되어 변형되었던 것이다. 기독교도 이에 예외가 아니다. 무수히 많은 이단이 성행하는 것 또한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셋째로, 한국의 샤머니즘은 현대 문명의 많은 혜택을 누리고 있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한국인의 의식구조와 신앙 태도를 지배하고 있다.

넷째로, 한국 샤머니즘의 종교적 구조는 부정 매개로 새로운 세계와 인생을 창조하는데 있다.

따라서 샤머니즘의 영향력은 지대하여 모든 전통 사상 안에, 그리고 동양 종교 안에, 기독교 안에 스며들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번 절에서는 기독교에 직접적인 영향을 준 샤머니즘의 사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65) '샤머니즘'이란 말 자체는 만주어에서 무(巫)를 일컫는 SAMAN에서 비롯된 말인데, 야구 드인, 브리어드인들도 巫를 SAMAN이라 일컫는다.

66) 김인희, *한국 무속사상 연구* (서울: 집문당, 1988), 174.

67) 한국 샤머니즘의 특징은 다음 책에서 참고하여 정리하였다. 최중현 편저, *개혁주의 입장에서 본 한국교회와 샤머니즘* (서울: 성광문화사, 1996), 24-25.

1. 샤머니즘의 신관

샤머니즘은 종교라고 하기에는 부족한 요소들이 많다. 체계적인 교리가 정립되어 있는 것도 아니지만 사상이나 특징이 기독교와 흡사한 부분이 많다. 바로 그 부분 때문에 혼란을 초래하게 된 것이다.

샤머니즘은 본래 범신론적인 다신신앙(多神信仰)이다. 샤머니즘을 신봉했던 이들에게는 영계(靈溪)를 지배하는 최고신이 있다는 관념을 가지고 있었다. 바로 그 대상을 ‘하느님’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이 하느님은 하늘의 뜻으로서 천주(天主)를 의미하기도 하고, 유일지대신(唯一至大神)을 뜻한다고 보기도 한다. 대개 하느님을 하늘님으로 보는 견해가 많다.⁶⁸⁾

하늘을 뜻하는 고어에 ‘한울’이라는 ‘한’은 제천과 관련된 범위에서는 ‘환’의 뜻을 지니고 한자로 ‘丸’, ‘桓’ 등으로 의미되기도 한다. 또한 ‘환’은 밝다를 의미하며 막막하게 넓다는 두 가지 뜻도 지니고 있으며 ‘울’이란 물론 울타리를 의미하는 말로 ‘한울’은 역시 한없이 넓고 큰 공간 속에 빛만이 가득 차 있음을 가리키는 말인 것이다. 이러한 최고신 밑에 산신(山神), 지신(地神), 수신(水神), 풍신(風神) 그리고 십왕신(十王神)을 비롯한 이루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신령들이 있어 다스린다고 한다. 그러기에 샤머니즘의 신관은 다신적 자연 신관이며 신의 실재를 믿어 신이 만물을 운행하는 전능자라 믿는 것이다.⁶⁹⁾

한국 샤머니즘은 최고신인 천신을 하느님으로 불러왔다. 이 하느님은 우주를 지배하는 최고신이며 천체를 주관하는 수호자를 의미하는 것인데 어찌 보면 기독교에서의 유일신 창조자로서의 삼위 일체 하나님의 명칭과 유사하나 엄밀히 말해 다른 의미이다. 그것은 신과 인간과의 개인적 구원관계에 있어서 샤머니즘은 생활상의 단면을 현실 문제의 구원으로 삼아 행복(幸福), 초복(招福), 재앙(災殃), 질병(疾病) 등의 극히 현실적인 문제들로 집약되는 것이다. 또한 기도 방법의 매개체로서 신에게 제물을 바침으로써 그 제물의 양과 질에 상응하여 신의 응답을 기대하는 공리적(公利的) 신앙에 의존한다.⁷⁰⁾

68) 최중현 편저, *개혁주의 입장에서 본 한국교회와 샤머니즘*, 30.

69) *기독교 대백과 사전*, 편찬위원회 편 (서울: 기독교문사, 1983), 966.

70) 최중현 편저, *개혁주의 입장에서 본 한국교회와 샤머니즘*, 32.

따라서 샤머니즘의 신관을 볼 때 종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조건이 충분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선과 악의 구분이 불분명하여 선신과 악신의 구분을 갖지 못하며 최고신 하느님의 개념 또한 극히 모호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 샤머니즘의 인간관

샤머니즘의 인간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먼저 샤머니즘의 고전적 지역인 시베리아의 뿌리아트지방에서의 관념을 살펴보고자 한다. 뿌리아트 지방에서는 인간의 구조를 육체(oyeye-material body), 혼(amain=하등영혼), 영혼(sunyesun=사람의 영혼)의 세부분으로 나눈다. 그리고 'admin'은 죽음과 관련되는 것이라 보고, 'sunyesun'은 수면과 관련되는 것이라 하여 사람이 자는 동안에는 그것이 육체로부터 나간다고 믿었다.⁷¹⁾

이것만 보면 기독교의 영, 혼, 육의 삼분설과 유사함을 느끼게 된다. 그러나 샤머니즘에서는 창조신이 인간을 독립적으로 창조했다는 창조형 모티브는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 다음은 샤머니즘에서 가장 자세하게 인간의 기원을 설명하고 있는 '창세가(創世歌)'의 일부분이다.

옛날 예시절에 미륵님이 활짝 손에 은쟁반 들고, 활짝 손에 금쟁반 들고 한 올에 축사하니, 한올에서 벌기 떨어져 금쟁반에도 다섯이요, 은쟁반에도 다섯이니 그 벌기 잘이와서 금벌기는 사나이 되고 은벌기는 계집으로 마련하고 은벌기 금벌기 자리와서 부부로 마련하야 세상사람 나옴이라⁷²⁾

이와 같이 인간의 탄생은 창조가 아닌 발생적 진화로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인간만사의 길흉화복이 모두 신령의 뜻에 달려 있다고 믿는 것이 바로 샤머니즘의 인간관이라 볼 수 있다. 또한 굿을 통하여 신과 교섭함으로써 인생의 만사를 알고 해석하여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것이다. 그래서 샤먼은 아기를 낳을 때 삼신매를 올려 주고, 병이 났을 때 푸닥거리를 함으로 병에서 풀어주고, 부락제(部落祭)와 같은 집단 행위가 있을 때에는 온 동리의 평안을 위해 서당 굿을 지내주는 등 샤먼이 인생의 전과

71) 최중현 편저, *개혁주의 입장에서 본 한국교회와 샤머니즘*, 33.

72) 손진태, *조선 민속설화의 연구* (서울: 을유문화사, 1947), 166-171.

정을 풀어 준다고 믿었다.⁷³⁾

3. 샤머니즘의 내세관

샤머니즘의 내세관은 기독교에서와 같이 영혼과 육체를 죽음선상에서 분리하고 있는데, 거기에는 영혼전생설(靈魂轉生說)이 있어 기독교의 부활과는 다른 신화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⁷⁴⁾ 샤머니즘에서 찾아 볼 수 있는 내세의 형태는 현세를 ‘이승’으로, 내세를 ‘저승’으로 간단히 표현한다. 여기에서 이승과 저승은 이원론적인 구조로 좀 더 자세하게는 상계(商界), 중계(中界), 하계(下界)의 삼층 구조로 나뉘어 구분된다. 이승은 현실의 세계이며 저승은 영혼의 세계인데, 저승은 또다시 천상계와 지하계로 나누어지진다. 천상계에는 천신과 일월성신(一月星辰)같은 선신(善神)들이 있고, 중간계에는 인간을 비롯한 금속, 초목 등 만물이 살고 있으며, 지하계는 악귀들과 악령들이 우글거리고 있다고 믿는다. 그러나 세 가지의 세계는 서로 분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속이 빈 기둥으로 연결되어 있는 하나의 거대한 삼층집과 같이 인식되어진다. 그래서 샤먼은 이 통로를 타고 한 우주적 영역에서 다른 우주적 영역으로 건너갈 수 있는 특기를 지니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⁷⁵⁾

그러나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이 있는데, 샤먼의 저승은 기독교의 천국과 같은 위치가 분명한 개념이 아니다. 심지어 낙원적(樂園的)인 성격이 강조되지도 않는다. 또한 ‘저승’에 대한 한계도 불분명하여 사람이 죽어서 가는 저승은 막연하게 지상에서 수평으로 넘어가는 먼 곳이면서 이승과 저승의 구분을 ‘모랭이’(모퉁이)를 돌아간다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⁷⁶⁾

샤머니즘 내세관의 또 다른 특징은 내세에 구원 관념이 없다는 것이다. 단지 자연 현상으로 사후에는 모두가 다 저승에 가게 된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샤머니즘은 죄의 개념이나 도덕 문제들에 대해서는 언급되지 않고 크게 발달되어 있지도 않다.⁷⁷⁾

73) 이광재, “한국교회에 끼친 샤머니즘의 영향에 관한 연구”(D.Min. diss., Fuller Theological Seminary, 2008), 53.

74) 최중현 편저, *개혁주의 입장에서 본 한국교회와 샤머니즘*, 33.

75) Ibid., 36.

76) 이광재, “한국교회에 끼친 샤머니즘의 영향에 관한 연구,” 55.

77) 김태곤, *황천 무가 연구* (서울: 창문사, 1966), 182-183.

샤머니즘은 한국교회 내에 깊이 스며있는 한국전통사상이다. 물론 샤머니즘을 순수 한국전통사상이라 보지 않는 학자들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오래전부터 여러 종교와 사상들에 융화되고 영향을 미쳐왔다는 것이다. 기독교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한국교회와 성도들의 신앙의 삶 가운데 혼재되어 있는 부분들을 정확한 분별력을 갖고 구분하여 목회 사역에 적용해야 할 것이다.

제 3 장

유교적 토양에서 뿌리내린 기독교

이번 장에서는 기독교가 한국에 유입될 당시의 상황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유교적 토양 가운데 기독교가 어떻게 뿌리 내릴 수 있었으며 당시의 상황들 가운데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들은 어떠한 것이 있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의 기독교 유입’에 관해서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설명되고 있는데,⁷⁸⁾ 본 논문에서는 천주교의 유입과 개신교의 유입에 관한 부분을 중심으로 살펴보면서 한국 전통 사상과 어떠한 관계를 이루며 조화되어 갔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제 1 절 기독교 유입당시 사상적 배경

1. 조선후기 시대적 배경

한국 역사에 있어서 가장 큰 혼란의 시기는 19세기 중엽 이후라 볼 수 있다. 정치적으로 오랜 기간의 당쟁과 매관매직과 같은 양반 정치계급의 부정부패 때문에 조선조는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다. 사회적으로는 17세기 이후의 농업 생산력 변화나 상업 발전으로 사회의 물질 토대가 급격히 변화하고 기초 신분 질서가 붕괴되었다. 그로 말미암아 봉건적 사회 체제가 해체되는 혼란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특히 관리들의 착취가 이어지고 고리대금이나 조선 말기의 세금 징수제도 등이 극도로 문란해지

78) 이만열은 그의 책, *한국 기독교 수용사 연구* (서울: 두레시대, 1998)에서 기독교의 수용과정을 크게 세 가지로 구분하는데 신라·고려 시대의 중국 경교의 영향, 천주교의 전래, 개신교의 전래 등으로 시기별로 구분하고 있다. 하지만 중국 경교와 기독교의 상관성 문제와 아직까지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근거가 부족하기에 천주교와 개신교가 한국에 들어올 당시의 상황들만으로 한정하고자 한다.

면서 조선조는 경제의 파탄과 함께 백성들은 극도의 궁핍 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1811년 ‘홍경래의 난’을 시작으로 19세기 중엽에 접어들면서 ‘진주 민란’이 결정적인 계기가 되어 조선은 수많은 민란에 휩싸이게 되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계속되는 홍수, 가뭄, 콜레라가 조선 말기에 해를 거듭하면서 일어나 백성들은 삶의 희망을 잃고 곤궁 속에 빠지게 되었다.⁷⁹⁾

대개 한 왕조가 몰락하고 새 왕조가 일어날 때는 많은 혼란에 휩싸이지만 19세기 말은 또 다른 큰 변수가 생겼다. 그것은 한민족의 전 역사를 통틀어 처음 나타난 서양 국가들의 위협이었다. 강화도에 출몰하는 서양의 상선과 함대는 줄곧 중국을 세계의 중심으로 생각하고 있던 조선인들에게는 큰 충격을 주었다. 특히 영국은 러시아의 남진을 막겠다는 미명아래 남해의 거문도를 임의로 점령하기까지 하였다. 게다가 1840년에 일어난 아편전쟁에서 중국이 영국군에게 패함으로써 처음으로 대국 중국의 실체가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었고 1860년에 일어났던 영불 연합군의 북경, 천진 함락 소식은 조선을 공포에 떨게 만들었다.⁸⁰⁾

이러한 국내외의 혼란한 상황 가운데 조선의 백성들은 완전히 방향 감각을 잃어버렸다. 조정에서는 왕부터 중신들에 이르기까지 혼란에 빠졌고 지식인들도 어떻게 손을 쓸 수도 없는 상태였다. 이런 가운데 백성들 또한 어찌할 바를 몰라 그저 막막하기만 했다. 일반적으로 새로운 종교를 수용하는 데는 대내외의 역사적 배경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 하지만 그 나라의 고유의 전통사상도 반드시 고려해야 할 중요한 요소이다.

사람들이 기성 종교를 배제하고 새로운 종교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기성 종교가 제대로 된 기능을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기성 종교에 대한 믿음과 소망이 사라져 새로운 뭔가를 찾아 방황한다. 종교의 발전사를 보면 일정한 과정을 반복해 가는 것을 알 수 있다. 시간의 흐름에 따라 형식화 되고 경직 되다가 이것을 타개하기 위해 새로운 개혁 운동이 일어나고 이 개혁 운동이 퇴조하면서 또 다른 개혁 작업이 일어나는 일련의 과정이 반복된다. 그러다 사회의 격변기를 맞아 변화에 실패하게 되면 사

79) 홍필선, “19세기중엽-20세기 전반기 한국, 중국 지식인들의 기독교 수용 비교연구” (석사 학위논문,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2012), 9-10.

80) Ibid., 11-12.

람들은 기성 종교를 외면하게 된다. 이때의 종교 상태를 ‘화석화’ 되었다고 하는데 이 상태에 처하게 되면 기성 종교는 스스로를 개혁할 수 있는 자정력을 잃어버리게 된다.⁸¹⁾

사회가 극심한 혼란에 빠지면 기성 종교가 제공해 주고 있던 모든 가치 체계가 붕괴되어 사람들은 더 이상 옛 종교에서 삶의 의미나 정체성을 찾지 못하게 된다. 조선조 500년을 받치고 있던 구심점은 유교였다. 앞에서 한국 전통 사상의 중심으로 자리매김한 유교에 관해서 살펴보았지만 유교는 오랜 역사 속에서 우리의 전통사상으로 형성되어 왔다. 특히 유교는 예(禮)를 중시하였는데, 문제는 예를 따르는 것이 그때그때 새롭게 변하는 상황에 적절하게 적응하지 못하면 무용지물이 된다는 것이다. 이미 만들어져 있는 법도나 규범에 강제적으로 스스로를 맞추는 것은 경직되기 쉽다. 유교는 조선 후기에 이르면서 온갖 형식적인 논쟁으로 종교적 생동감을 소진한 상태가 되었다. 게다가 서양 제국주의에 의한 중국의 몰락은 유교적 세계관의 한계를 명백히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다.⁸²⁾

또한 유교와 함께 조선조 역사에 영향을 준 종교는 불교였다. 서민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었던 불교는 서민들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그러나 조선조 전반에 걸쳐서 행해진 불교 탄압은 혼란에 빠진 백성들에게 아무런 방향도 제시하지 못하였다. 고려 시기만 해도 수도인 개성에 큰 절들이 많이 있어 백성들은 항상 불교와 가까이 하고 있었지만 조선시대의 절은 박해를 피해 산속으로 들어가야만 했다. 조선시대 때는 아예 승려들의 도성 출입을 금했으니 산으로 가지 않을 수도 없었다. 승려들에 대한 대우가 낮았기에 노비나 도망자들이 부역이나 군대를 피하여 절로 피신해 승려가 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런 까닭에 조선 시대에는 불교에서 위대한 승려가 거의 배출되지 않았고 교리의 발전도 없었다. ⁸³⁾

조선시대에는 불교 외에도 민간 신앙인 무속신앙이 있었지만 이 또한 개인적인 구복 차원에서 벗어나지 못했기에 조선 후기와 같은 혼란 상황에서 민중들에게 비전을 제시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처럼 사회적으로 종교적으로 혼란에 빠져있던 조선

81) 최준식, *한국의 종교 문화로 읽는다* (서울: 사계절 출판사, 1998), 98.

82) Ibid., 100.

83) Ibid., 105-108.

인들한테 기독교가 전래되었다. 어찌 보면 시기적으로 딱 맞아떨어지는 적절한 때에 복음이 전파된 것이다.

2. 기독교 수용 과정

가. 중국의 기독교 수용

한국에 기독교가 전파된 배경을 살피기에 앞서 중국의 기독교 수용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선교사들에 의해 한국보다 앞서 복음이 전파되었고 중국과의 상관성 또한 많기에 이해를 돕고자 한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교훈을 중심으로 하는 종교이고 한국에서는 일반적으로 개신교를 기독교라 한다.⁸⁴⁾ 기독교는 한국에 전래되기 전에 중국에 먼저 전래되었다. 중국역사에서 기독교에 대한 정의는 폭이 넓어 경교, 천주교, 기독교를 모두 포함한다. 이번 장에 들어서면서도 잠시 언급하였지만 기독교의 여러 교파 중에 가장 먼저 중국에 들어온 것은 경교라 불리는 네스토리우스파로서 당나라 때 페르시아에 의해 전래되었다.⁸⁵⁾ 당, 원, 명, 청조를 거치면서 중국에서 수용과 핍박이 반복되는 상황 속에서 뿌리 내려졌다.

한국의 기독교 역사의 시작은 중국을 통해 전해졌기 때문에 간략하게나마 중국의 상황을 이해하는 것은 한국의 기독교 수용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⁸⁶⁾ 19세기 초 서구는 경제력과 군사력이 급속히 성장하는 반면, 중국의 청 왕조는 폐관쇄국 정책 하에서 그 생명이 다해가고 있었다. 외국 상인에 대해서는 무역 입구인 광주까지만 들어올 수 있게 허용 하였으나 선교사는 허용이 되지 않았다. 때문에 중국 선교 초기 30년간의 개신교 선교기지는 싱가포르에 있었다. 당시 싱가포르에 거주하고 있던 중국인들은 중국의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면서 싱가포르에서 중국어 공부를 진행하

84) 엄밀히 말하면 기독교에는 천주교와 개신교를 합하여 부를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한국에서는 가톨릭교회를 따로 구분하여 천주교, 기독교로 지칭하고 있다. 홍필선, “19세기 중엽~20세기 전반기 한국, 중국 지식인들의 기독교 수용 비교연구” (석사학위논문,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2012), 13.

85) 이만열, *한국 기독교 수용사 연구* (서울: 두레시대, 1998), 23-24.

86) 김수진, *한국 기독교의 발자취*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5), 13.

던 영국과 미국 선교사들로부터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성경의 번역과 출판에 참여 하였으며 본국으로 돌아가서 선교에 기여를 하였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중국의 첫 개신교인 양발이라는 사람인데, 영국 선교사 모리슨(Robert Morrison)과 윌리엄 밀른(William Milne)의 영향 하에 성경번역본 인쇄를 담당하였다.⁸⁷⁾

아편 전쟁에서 중국은 참패를 당하고 굴욕적인 남경조약이 체결되면서 다섯 개의 큰 항구가 개방되고 선교사를 포함한 외국인들에 대한 규제가 풀리게 되었다. 그 덕분에 1860년까지 150명의 선교사들이 중국에 상주하게 되었으며 약 350명의 중국인 기독교인이 생겼다.⁸⁸⁾ 그중에는 일부 지식인 개종자들도 생겼지만 당시 중국의 대다수 지식인들은 기독교에 대하여 아주 비판적이었다.

1860년 북경조약이 체결되면서 선교사들에게도 땅을 소유하고 교회를 건축하며 중국본토에서 전도할 수 있도록 허락 되었다. 수많은 선교회들이 세워졌고 수백 명의 선교사들이 중국 본토에 깊이 들어가서 선교했다. 이 시기의 선교는 교육, 서양과학과 기술의 전파, 의료, 사회복지, 사회개혁, 아편금지, 도박금지, 여성인권 등 광범위하게 영향을 주었다. 이로 인해 1900년까지 중국인 기독교인의 수는 112,808명이고 외국 선교사들은 2,000명이었으며 중국인 교역자들만도 1600명이나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외적 성장의 모습이 숫자에 불과하다는 것을 표현하기로 한 듯 1900년에 서양인을 목표로 한 ‘의화단의 난’이 일어난다. 이는 서민들이 일으킨 대규모적인 반기독교운동이기도 한데 ‘의화단의 난’으로 인하여 개신교 선교사와 가족들 188명이 죽었고 중국인 기독교인들은 4000명이나 살해되었다.⁸⁹⁾

이후 중국은 연속되는 정치적, 문화적 격랑 가운데 내란을 겪게 되었다. 이 혼란의 시기에 중국을 구해내는 일이 가장 시급한 문제가 되었다. 그로인해 서양의 선교사들은 날로 심각해지는 반기독교운동으로 대부분 본국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이러한 격변기를 겪으면서 중국의 초기 기독교인들은 서서히 자리를 잡게 되었다. 또한 외세에 의존하지 않는 독립된 교회와 교인수가 늘어나면서 중국은 1920년대부터 본격적인

87) 양발(梁發, 1789-1855)은 중국의 첫 개신교 목사이고 중국근대 성경 출판과 편집사업에 참여한 제 1인이며 ‘勸世良言’의 저자이다.

88) 김수진, *중국개신교회사* (서울: 홍성사, 1997), 25.

89) Ibid., 32.

기독교의 토착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나. 한국의 기독교 수용

한국에 기독교가 전래된 시기는 일반적으로 17세기 초로 보고 있다.⁹⁰⁾ 그러나 이 시기에 한국에 수용된 것은 천주교로서 일부 양반과 중인계층의 지식인들이 중심이 되어 중국을 통하여 마테오 릿치(Matteo Ricci)의 본토화 선교전략을 계승한 예수회의 교리를 수용하게 되었다.

기독교의 선교사들이 19세기 중엽에 조선에 도착하기 이전에 이미 소규모의 기독교집단이 조선의 변경 지대에 존재하고 있었다. 1876년 의주의 청년 이용찬이 만주에서 선교사 로스(John Ross, 1843~1915)에게서 세례를 받은 다음 성경 번역을 시작했는데 이 번역본은 언더우드(H.G. Under)와 아펜젤러(H.G. Appenzeller)가 한국에 들어올 때 가지고 왔었다. 한국 역사를 살펴보면 외래 종교들은 보통 기존세력과 심각한 갈등을 겪었음을 알 수 있다. 신라는 불교의 수용과정에서 이차돈이라는 순교자를 만들었고, 천주교는 한국에 전래된 후 오랫동안 조선 정부와 갈등관계에 있으면서 역사에 유래를 찾아 볼 수 없을 만큼 많은 순교자를 배출하였다. 그러나 기독교는 수용 과정에서 이에 비해 큰 저항을 받지 않았고, 조선 정부의 개화와 문호개방이라는 흐름을 타고 들어왔기 때문에 비교적 안정적으로 한국 사회에 정착해 나갈 수 있었다.⁹¹⁾

한국 개신교의 수용은 1876년의 일본에 대한 문호 개방과 1882년의 미국과의 수호통상조약의 체결이 결정적 계기가 되었다. 1882년 한미조약 이후 미국의 여러 기독교 교파들이 정치, 문화적 투자와 함께 조선 반도에 그 세력을 구축했다. 한편 일부 개화파 지식인들이 적극적인 기독교 수용 의지를 나타냈다. 미국 남감리교의 초기 선교는 조선관리 윤치호의 공로가 컸는데 귀국하자마자 그는 조선에 미국의 선교사가 필요하며, 조선에 선교사를 파견한다면 그가 선교사를 도울 것이라는 편지를 미국 남감리교 선교회에 보냈다.⁹²⁾ 이는 중국과는 사뭇 다른 한국인 스스로의 복음 수용과

90) 이만열, *한국 기독교 수용사 연구*, 32.

91) 홍필선, “19세기 중엽~20세기 전반기 한국, 중국 지식인들의 기독교 수용 비교연구,” 16-17.

주체성을 잘 보여준다.

한미조약 체결이후 기독교인의 수는 꾸준히 증가되었고 기독교 문서가 대량으로 발행 되었으며 각종 성서 번역본이 점차 늘어났다. 1899년 교구장 미털(Mutel)과 조선 관리 정준시는 교민조약을 체결함으로써 신앙의 자유를 보장 받게 되었다. 기독교회도 이 기회를 잡고 1906년에 경향신문을 창간함으로써 기독교가 민족주의와 민족자강과 문화계몽의 역할을 하였고, 민중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갔으며 민중들의 지지를 받을 수 있었다. 1904~1907년의 대부흥운동을 통해 조선 전역에 선교지부가 생겼으며 교인수가 증가하였고 교회는 선교사의 도움과 재정적 지원을 떠나 자치의 길을 걷기 시작하였다. 비로소 한국식의 교회와 신학의 모습이 형성되기 시작한 것이다.⁹²⁾ 이는 한국 기독교가 유교적 토양에 뿌리 내리기 시작한 시점이라 볼 수 있다.

신앙의 자유가 어느 정도 보장되고 동양사상과의 갈등을 고조시킨 서양종교 천주교가 기독교 이전에 먼저 한국에 정착이 되었기 때문에 한국에서의 기독교 수용은 큰 갈등 없이 순탄해 보였다. 그러나 조선후기 기독교에 대한 편견과 배척은 보편적으로 형성 되어 있었다. 그렇기에 개신교가 자리를 잡을 수 있기까지는 보수 세력에 의한 거센 반발들을 거치고 난 뒤에야 어느 정도 가능하게 되었다.

한국의 기독교는 유교적 토양위에 씨앗이 뿌려져 혼란스럽고 복잡한 시대 상황 가운데 서서히 자라났다. 그러다 보니 기존의 동양사상과는 전혀 다른 서양의 기독교 사상이 한국에 수용되기까지 기존사상과의 조화와 갈등의 양면성은 끊임없이 발견된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어떻게 교회가 세워지고 전통 사상의 영향은 교회 안팎에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었는지 계속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제 2 절 한국 초기 교회의 형성 과정 및 특징

1. 초기 지식인 교인들의 특징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오면서 처음 신앙을 가지게 된 이들은 지식인들이었다. 당

92) James H. Grayson, *한국종교사 (Korea - A Religious History)*, 강돈구 역 (서울: 민족사, 1995), 199.

93) 홍필선, “19세기 중엽~20세기 전반기 한국, 중국 지식인들의 기독교 수용 비교연구,” 17.

시 신분은 사(士), 농(農), 공(工), 상(商)의 네 계층으로 구분되었는데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했던 부류는 사(士) 즉 지식인이었다. 이들은 유학(儒學)을 공부해서 통치 계급으로 들어가고, 실질적인 나라 운영에 관여하는 중책을 맡았다. 조선 후기 때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전파하는데 결정적인 기여를 한 이들 또한 이러한 지식인들이었다. 따라서 초기 지식인 교인들의 특징을 살펴봄으로 한국의 전통 사상과 기독교가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 자리매김하게 되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한국과 중국의 역사를 보면 유교의 종법(宗法) 사상이 관통되어 있고 사회 공동체 최고의 자리에는 왕이 있으며 신권 또한 왕권에 속해왔었다. 유교, 불교, 도교 등 동양의 전통 사상을 형성해온 종교들은 중앙집권체제의 강화를 위해 이용되었다. 그와는 반대로 서양의 경우에는 중세기 천년이 넘는 역사 속에서 신권이 왕권위에 서게 되면서 개인과 신 사이의 관계가 종법사상을 초월하게 되었다.⁹⁴⁾ 기독교의 윤리가치의 근본은 절대자인 신의 사랑인데, 한국이나 중국의 지식인들에게는 종법과 무신론적 관념이 보편화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기독교의 윤리가치를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다. 특히 제사는 유교의 기본 가치인 효와 관련되어 있으므로 제사를 폐하는 것은 효행을 거부하는 것으로 간주 했다. 때문에 기독교가 수용되기 전 천주교의 전래 때부터 수많은 문제를 일으킨 원인이 되었다. 기독교가 전래 되었을 때에도 지식인 계층을 상대로 전도하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었다.

그러나 조선 후기에 이르러 유교가 퇴색하여 가고 1860년대를 전후하여 세계의 중심이라고 여기던 중국 또한 너무 힘없이 열강에 의해 무너지면서 이로 인해 고양된 위기의식과 부패한 정부하의 유교의 한계가 기독교의 수용이 가능해지게 하는데 기여를 하였다. 그동안 사회를 지탱해왔던 봉건적 질서가 해체되고, 조선 후기에는 과거제도의 기능이 와해됨으로써 일원적인 관리의 충원으로 기울어지게 되었다.

이와 같이 국가권력의 상징으로서의 민족 종교였던 유교의 기능이 퇴색된 상황에서 한국과 중국의 지식인 계층에서는 전통적인 지배구조와 그 이데올로기에 회의를 느끼게 되었다. 이를 극복하고자 새로운 사상을 추구했던 이들이 바로 기독교 지식인들이었다.⁹⁵⁾

94) 배요한, *기독교의 눈으로 타종교 이해하기* (서울: 교육교회, 2009), 40.

95) 초기 기독교 지식인들로는 이수정을 비롯하여 이상재, 방기창, 김옥균, 최병헌, 유성준, 이

무너져 가는 조선후기 때 기독교 지식인들은 유교가 그 힘을 잃은 종교적 공백 상태에서 서양의 사상인 기독교를 통해 개화와 자강을 이루고자 노력하였다. 이들의 노력은 중국과 차별화 되어 성경읽기, 기도, 특별한 체험 등을 통해 입교하게 되고, 더욱 성숙되어 갔다. 여기에는 중국과는 다른 특별함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나라만이 가진 독창적이고 우수한 잠재 능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여기에 대해서는 뒤에 다시 설명하고자 한다.

2. 초기 한국 교회의 예전 형성 과정과 특징

북미 출신 선교사들은 대체적으로 비예전적인 경향을 갖고 있었다. 의식적인 것에 대한 거부감을 가지고 있었고, 대각성 운동의 직접적인 여파로 말씀 중심의 부흥회와 기도회 등으로 예전과는 거리를 두었다. 이러한 영향을 받은 한국의 장로교도 역시 예전보다는 설교중심, 교화 중심의 예배가 주류를 이루게 되었다. 또한 개신교 초기의 복음 선교는 직접적인 복음전도 보다는 학교나 병원 등을 통한 간접적인 선교 방식을 채택하였는데, 이는 당시의 시대적인 상황이 전반적으로 보수적인 분위기였으므로, 본격적으로 복음전도를 실시하기에도 큰 걸림돌이 되었다.⁹⁶⁾

아울러 선교사들의 눈에는 한국의 전통사상과 문화가 온갖 미신과 악습에 젖어 있는 것으로 보였기 때문에 선교 정책의 중심을 한국인의 생활 습관을 바로 잡는데 두었던 것이다.⁹⁷⁾ 비예전적인 예배 전통을 물려받았던 선교사들에게 이러한 선교 정책은 예전보다는 설교 중심적인 예배, 교화 중심적인 예배로 자리매김하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1907년 장대현 교회의 부흥사경회를 도화선으로 일어났던 대부흥운동은 한국 교회에 큰 획을 긋는 사건이었는데, 이로 인해 큰 외적인 부흥을 가져왔다. 그 해 9월 17일 장로회 독노회가 조직이 되어 장로회 신경을 채택하였는데 엄격한 칼빈주의에 입각하여 웨스트민스터 표준서를 통해 미국식 교회 정치 규범을 철저히 따를 것을 전

교영, 박영호, 김정식, 서재필, 윤치호, 구연영, 이필주, 김선주, 임익두, 신석구, 장석초, 양주삼, 황종률, 이명직, 김종우, 염학섭, 최태용등을 들 수 있다.

96) 한국기독교사연구회, *한국기독교의 역사 I* (서울: 기독교문사, 1989), 254.

97) 민경배, *한국교회사*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2), 134-163.

제하였다.⁹⁸⁾

대부흥운동이 이때 결성된 노회의 조직에 큰 기여했다는 점과 장로회 신경이 부흥운동의 성격을 규정하는데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로 인해 말씀과 함께 교회의 중추를 이루는 성례는 자연히 소극적이게 되었다. 즉 예배의 의식보다는 전도 중심적인 설교만 있는 예배 의식으로 발전되어 갔으며, 결국 예배의 중심은 설교이고 설교를 통해 모든 신앙을 이끌어 나가는 예배가 되어 버렸다.⁹⁹⁾

오늘의 한국 교회의 예배가 유럽의 개혁신교회의 예배 예전 전통이 아닌 미국의 청교도 곧 장로교회의 예배 예전 전통이었다는 점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것이다.

현재 한국 교회에서 드리고 있는 예배 형식은 시대적으로 볼 때 19세기 북미 지역을 강타한 소위 ‘개척자 예배(Frontier Worship)’ 라고 하는 것에서 유래하였다. 당시 유럽에서 북미 대륙으로 이주해온 사람들은 광활한 대지에 흩어져 살았는데, 워낙 넓은 땅에 흩어져 살다 보니 서로 사람 구경하기가 힘들었다. 그러다 보니 안수 받은 성직자를 만나기는 더더욱 어려운 일이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평신도 지도자에 의해 예배가 인도되는 경우가 흔했다. 그러나 설교는 평신도 지도자가 한다지만 성례전은 그럴 수 없었다. 그렇다 보니 성례전은 1년에 한두 차례 순회 목사가 방문할 때 세례 예식과 성만찬이 실시되었다. 한국 교회에 성례전 횟수가 적은 것도 이러한 전통의 영향으로 볼 수 있다.¹⁰⁰⁾

이때 드러진 예배 형식은 소위 “찬송 샌드위치”라는 말에 잘 나타나듯이 예배가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부분의 사이에는 찬송이 삽입되어 있었다. 첫 번째 부분은 ‘준비단계’로서 찬송 순서이며, 그 다음에는 예배의 중심부로서 회심을 촉구하는 설교가 나오고, 마지막으로 결신자를 앞으로 불러내는 초청의 순서이다.

물론 이러한 초기 예전의 형식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니다. 당시의 상황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고 한국 전통사상과의 조화된 가운데 예전이 형성됨을 우리는 이해해야 한다. 그리고 보다 성경적인 예전 회복을 시도해야 하는 것이다. 결과적으로 볼 때 하

98) 한국기독교사연구회, *한국기독교의 역사 I*, 284-285.

99) 박창환 외, *어떻게 예배를 드릴 것인가?* (서울: 기독교사상, 1979), 35.

100) 조기연, *예배 갱신의 신학과 실제*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9), 179.

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체험했기에 오히려 지금은 그때 가졌던 열정을 회복하고 또한 지금의 상황 가운데 가장 바람직한 예배를 회복해야 할 것이다.

3. 초기 한국 교회의 성장 원인

한국교회는 유교적인 색채가 강하고 단일 민족으로 국수적인 성향이 강함에도 불구하고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루어 왔다. 특히 초창기 불붙기 시작한 복음의 확산은 모두를 놀라게 했다. 물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은혜의 선물들이지만 현실가운데 우리는 그 원인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지금의 시점에서는 냉철한 점점이 필요한 시기이기 때문이다. 물론 다음 장에서 보다 자세하게 다루겠지만 한국 전통사상이 한국교회 성장에 기여한 부분, 그리고 교회 성장에 유리하게 작용한 환경적 요소들도 함께 살펴보고자 한다.

선교사가 들어갔던 아시아의 여러 나라 중 한국에서 가장 많은 열매를 맺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김인수는 10가지로 초기 한국 교회의 성장 원인을 분석하고 있다.¹⁰¹⁾

첫째, 한국에는 국교가 없었다는 점이다. 물론 불교, 유교, 도교 등의 종교가 있었지만 어느 것 하나 민족 종교로서의 구심점 역할을 하지 못했다. 반면 인도, 중국, 태국, 몽고 등 다른 아시아 나라들은 그곳에 수 천 년 내려오는 민족 종교가 굳게 자리 잡고 있었다.

둘째, 시대적으로 어려운 난국이었다. 한국에 기독교가 전파될 당시 시대 상황은 국내외적으로 매우 열악한 상황이었다. 따라서 한국은 어떤 새로운 힘을 갈망하는 상황이었다. 혼란 속에서 나라를 안정시키고 구심점을 잡을 수 있는 새로운 이념이 강력이 요청 되었던 것이다. 지식인들은 선진 서구 문명을 받아들이고자 하는 노력을 하였고 그러한 가운데 신앙도 쉽게 받아 들일 수 있었다.

셋째, 국왕의 후원이 있었다. 알렌이 1884년 9월에 입국하고 나서 그해 12월에 갑신정변이 일어나 민영익을 치료해 준 것이 계기가 되어, 알렌은 곧 고종황제의 어의로 임명이 되었고, 그 후 을미사변때 선교사들이 황제를 보호하기 위해 밤에 교대로 불침번을 서기도 하고 음식을 조달하고 하는 과정에서 국왕은 공개적으로 기독교

101) 김인수, 간추린 *한국교회의 역사*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2), 74-81.

에 호의를 보이게 되었다. 로마 천주교회가 한국에 처음 들어왔을 때 무군 무부의 종교라는 오인으로 조정과 왕실로부터 혹독한 박해를 받았던 것에 반해, 개신교는 이렇게 처음부터 왕실과 밀착되어 선교의 교두보가 확보됨으로 선교에 많은 덕을 보게 되었다.

넷째, 비서구 식민지 때문이다. 한국은 서구의 식민지 경험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일제의 식민통치 기간 동안 서양 선교사들로부터 직·간접적 도움을 많이 받게 되었고, 기독교가 항일 운동에 앞장서서 투쟁한 결과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귀의하고, 중국과 달리 기독교에 귀의하는 것이 애국자가 되는 것이라는 관념을 갖게 되었다.

다섯째, 한국인의 전도열이다. 한국인들은 열정이 넘치는 민족이다. 흥이 나면 신바람이 나서 어떤 일이든 열정적으로 한다. 한국인들은 신앙을 받아들인 후에 자기 혼자만 신앙을 갖는 것이 아니고 열심히 전도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된 신앙을 갖도록 권했다. 의주의 청년들이 만주에서 로스와 매킨타이어 선교사를 만나 세례를 받고 성경을 번역한 뒤 쪽복음서들을 가지고 고향에 돌아와 권서 혹은 매서로 여러 곳을 다니며 전도했다.

여섯째, 일찍이 자국어 성경을 확보했다. 한국 개신교회는 선교사들이 들어오기도 전에 만주에서, 일본에서 성경이 번역, 유입되어 반포 되었고, 일반인들이 성경을 읽고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였다. 이는 천주교회와는 상반되는 모습이다. 이렇게 자국어 성경이 번역되고 빨리 확산될 수 있는 이유 중 하나는 단일민족 단일 언어이다. 이것은 우리 민족의 우수성 중에 하나며 복음 확산에 큰 기여를 하였다.

일곱째, 신앙과 생활의 일치이다. 한국의 선교는 의료와 교육에서 출발하였다. 초기 선교사들은 여자학교와 맹인학교를 세우고, 언더우드선 등유와 농기구들을 수입했으며, 재봉틀을 수입하여 한국인들의 생활 개혁에 힘썼다. 현실주의에 기초한 복음주의는 복음주의와 현실주의가 양분되지 않고 병립됨으로 기독교 정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여덟째, 기도운동이다. 우리 민족은 원래 기도를 많이 하는 습관이 있었다. 무교에서 천지신명(天地神明)에게 기도하고, 새벽에 일어나 정화수 떠놓고 빌고, 성황당(城隍堂)에 빌고, 아들 낳기 위해 삼신(三神)에게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다. 이러한 습관은

기독교에 귀의한 후에도 그대로 이어졌다. 이전에 행했던 것처럼 피조물이나 쓸데없는 헛된 신에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살아 계시고 인격적인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러한 기도의 습관은 1907년 평양 대부흥 운동 기간에 더욱 체계화 되었는데 새벽기도회, 철야기도회, 통성기도회 등이 시행되기에 이르렀다.

아홉째, 사회개혁과 애국애족의 신앙이다. 한국 교회는 봉건적, 유교적 전통에 매여 있는 사회를 개혁하는 일에 앞장섰다. 그중 가장 빛을 발한 것이 여성인권신장이며 차별적 신분제도, 민권 존중, 노동가치 고양, 미신타파 등 사회개혁은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한 관심을 불러 일으켰다.

열번째, 엄격한 치리의 실시이다. 초기 선교사들은 한국 교인들에게 교회 생활에서 엄격한 청교도적 훈련을 시켰다. 한국에서 처음으로 조직교회로 출발한 새문안 교회의 당회록을 봐도 알 수 있다. 이러한 교인들의 엄격한 훈련이 교회의 질서를 바로 잡고 교회 성장에 기여했다는 것이다.

이와 같이 초기 한국 교회가 성장한 것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님을 알 수 있다. 당시의 열악한 시대 상황이 오히려 복음의 문을 여는 계기가 되었으며 미개한 것으로 간주된 우리의 전통 사상이 오히려 유익하게 작용하여 복음 확산에 기여하는 요소가 되었다. 또한 청렴한 우리 선조들은 자연스레 청교도 신앙을 선교사들을 통해 배웠고, 정직하고 성실한 민족성을 바탕으로 예배를 드리거나 기도하는 신앙의 습관을 갖게 되었다.

제 3 절 초기 교회의 형성 과정 중 제사문제

2절에서 조상숭배와 제사의 형성과정에 관해 간략히 정리해 보았다. 이번 절에서는 한국교회가 형성되고 예전이 형성될 당시 가장 큰 문제가 되었던 한국의 제사에 관해 살펴보고자 한다. 선교사들에 의해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면서 부딪혔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한국에서 전통적으로 행해오던 제사의 문제였다. 기록에 의하면 대부분의 선교사들은 제사에 있어서 부정적인 입장이었다. 이로 인해 많은 핍박과 순교자가 생겼으며 또한 복음전파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기도 했다. 따라서 한국 전통 사상의 가장 큰 걸림돌로 치부되었던 제사의 문제를 살펴봄으로 전통문화를 바

라보는 바른 시각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1. 선교사들의 제사에 대한 견해

초기 선교사들은 실로 많은 일을 했다. 복음을 전하고, 성경 번역과 보급에 힘쓰고, 교육을 위한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우고, 무지한 주민들을 계몽하기 위해서도 부단히 애썼다. 하지만 안타까운 부분도 있었다. 바로 한국의 전통 제사 문화를 반대한 부분이다. 그렇기에 긍정적인 많은 업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핍박을 받았고 심지어 순교를 당하기까지 했다. 이에 대해서는 오늘날에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과연 한국의 전통제사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할까? 가톨릭처럼 허용은 하되 기준을 제시해야 할까, 아니면 복음이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전면 부정을 해야 할까, 아니면 뭔가 유익하게 절충안을 마련해야 할까, 이런 문제는 오늘 우리 목회자들이 안고 가야 할 숙명적인 것이라 하겠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제는 다시 재고되고 그 합당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보다 폭넓은 시각으로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다.

초기 선교사들은 선교 신학적인 훈련이 부족했다. 그 결과 선교사들은 선교사 자신의 문화에 대한 우월 의식에서 해방되지 못했으며, 더욱이 선교 활동과 문화 활동을 동일시하는 인상을 주었다.¹⁰²⁾ 한국에서 활동했던 유명한 선교사인 언더우드(Horace G. Underwood)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조상 제사는 유교의 핵심 부분으로 기독교 선포에 커다란 장애 요소로서, 한국 사람들은 이 제사를 하나의 효도의 표현으로 볼 뿐 미신적인 어떤 이익을 바라지는 않는다고 말하고 있으나 제사에는 예배적인 요소가 있음으로 개종자들은 선교사들이 그에 대한 해석을 내리기 전에 먼저 유일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양립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였으므로, 지금까지도 기독교 신앙과 제사와는 분리되는 것으로 생각되게 되었다 했으며, 또한 그는 제사가 인간이 만든 신앙이며, 인간의 자연스런 종교 본능도 충족시켜 주지 못하는 형식적인 의식일 뿐이라 공박하였다.¹⁰³⁾

102) 류순하, *기독교 예배와 유교제사* (서울: 숭실대학교 출판부, 2000), 93-94.

103) Ibid., 100.

선교사들 중 긍정적인 차원에서 조상 제사를 보는 이들 중 Roy E. Shearer과 Radciff-Brown은 다음과 같이 말했다.

Roy E. Shearer는 제사를 영혼 숭배로 보는 것보다는 효도의 연장으로 보아야 한다고 하였으며, Radciff-Brown은 한국의 조상 제사는 미신이라고 일반적으로 부른 잘못된 신앙과는 전혀 다른, 그들이 태어난 조상에게 감사드리고, 앞으로 태어날 후손들에 대한 의무를 인식하며, 그들도 또한 언젠가는 조상들에게로 가리라 하는 공동체적 의식을 가능케 하는 사회적 기능이 있는 것으로 보고 이해 가능한 것이라 하였다.¹⁰⁴⁾

선교사들 중에도 분명히 한국의 전통 문화를 인정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들이 있었다. 하지만 그 영향력이 약했다. Shearer는 “기독교의 선교사들이 한국 문화를 존중하면서 한국 문화를 보존하도록 허용했더라면 조상을 공경하지 않았다는 것 때문에 지장을 받았던 더 많은 사람들을 기독교인으로 만들었을 것”이라 말했다.¹⁰⁵⁾

2. 예전의 형성 과정 중 제사의 영향

조상 제사를 금지시킨 것은 개신교 전래 이전 천주교 때부터 시작되었다. 천주교가 조상 제사를 금지하고 여러 번의 박해와 많은 순교자를 먼저 내었고 개신교의 선교사가 정식으로 복음을 들고 들어올 1884년 까지도 여전히 조상 제사는 금지된 상태에 있었다.

서구인들은 부모를 중심으로 한 동양의 가족주의 문화가 이해되었을 리가 없다. 그러나 그들이 선교함에 있어서는 마땅히 피선교지의 문화를 이해할 의무가 있었지만, 서구 식민주의의 전성기에 동양 선교에 오른 개신교 선교는 극단적으로 배타적인 선교 정책을 써왔다.¹⁰⁶⁾

복음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 위에 실현되는 데에 있다. 즉, 초월적인 하나님의 뜻이 이 지상에서 이루어지는 데에 있다.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된 것이다.¹⁰⁷⁾ 예수그리스도의 성육신 사건이 바로 그러하다. 즉, 하나님은 자기의

104) 류순하, *기독교 예배와 유교제사*, 107.

105) Ibid., 108.

106) 변선환, *전통 문화와 기독교* (서울: 서울내외종교연구소, 1984), 290.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 자기를 비워 없이 하시고 인간이 됨으로써 인간을 구원하는 뜻을 성취하셨다. 여기에 우리가 전통 제사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의 원리가 담겨 있다.

서양에서 전래된 서구의 신학 체계는 동양에 비해 효도를 그렇게 강조하고 있지 않다. 개인 윤리를 강조하는 서구 문화를 반영했기 때문이다. 반면 한국에서는 개인 보다는 가족 공동체적 윤리의 성격이 강하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에 대한 이해 없이 무조건 우상숭배라는 단순한 논리에 의하여 금지하고 있는 것은 ‘절하지 말라’는 구절을 문자적으로만 해석하여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절하는 행위나, 추도예배를 드릴 때 사진 앞에 절하는 일, 또는 성묘에 절하는 일을 우상 숭배라 하여 금지시킨 것이다.

제사의 근본정신으로 볼 때, 고대 중국에서는 천(天)에 대한 제사와 조상에 대한 제사를 구별하였던 것처럼 교회에서도 조상 제사에 대한 이해를 구분하여 할 수 있다. 그것이 예배와는 다른 차원으로 이해하게 될 때, 조상에 대한 사모지정(思慕之情)을 가지고 그 사체나 무덤 앞에서 절을 한다는 것은 그렇게 문제시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¹⁰⁸⁾

오늘날 개신교의 나라 미국에서 교회 안에 묘지를 두기도 한다. 이것은 죽은 자와 산 자가 한 교회 공동체의 지체인 것을 말해준다. 우리가 좀 더 넓은 시각으로 조상 제사를 바라보면, 조상 제사의 전통을 갖고 있는 한국 교회는 교회적인 차원에서 조상 제사에 대한 이해를 산 자와 죽은 자의 관계 이해를 통하여 재조명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¹⁰⁹⁾

복음의 궁극적 목적은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에 실현되는 데에 있다. 즉 초월적인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에 전파되고 이루어지는 데에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시작된 것이다.

토착화 신학의 선구자인 유동식은 “역사화란 곧 토착화를 뜻하며 초월적인 하나님의 뜻이 유태인의 고유한 민족 문화 속에 뿌리를 내리고 성장하게 된 사건이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의 생애였으며, 하나님의 뜻은 토착화를 통해서만 실현된다”¹¹⁰⁾ 고

107) 이성우, *한국교회의 조상제사문제연구* (서울: 연세대학교 출판부, 1981), 59.

108) 류순하, *기독교 예배와 유교제사*, 186-189.

109) Ibid., 191.

말하고 있다.¹¹¹⁾ 하나님은 자기의 뜻을 실현하기 위하여 자기를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비워 없애고 인간이 됨으로써 인간을 구원하는 뜻을 성취하시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¹¹²⁾ 그러나 이 부분에 있어서 한국교회는 고민하지 않고 외면하였다. 그 결과 오늘날 목회 사역가운데, 우리의 예전가운데 여러 갈등의 문제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조상 숭배가 우리 전통문화의 근간이라는 이유는 한국의 가족주의문화 전통에서 나타난다. 조상숭배가 초기 선교사들이 본 것처럼 우상숭배라 단정 지을 수는 없다. 인간 사회가 각종 의례적 상호작용을 하며 살고 있듯이 인간관계의 상호작용적 의례 관계는 사회생활의 필수조건이다. 지금까지 기독교가 이를 우상으로 본 것은 조상에 대한 한국 전통문화와 기독교 문화의 차이에서 비롯되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과 같이 한국에 복음이 전파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성장하면서 아직까지도 해결되지 않고 있는 것이 바로 조상숭배와 제사문제이다. 아직까지도 제사폐지론을 주장하는 목회자들이 많다. 또한 토착화의 관점에서 이를 허용하고 수용해야 한다는 목회자들도 많다. 분명한 것은 전통문화는 그 민족이 오랜 세월 형성해 놓은 삶의 발자취요 문화유산이다. 그렇기에 없앨 수도 변형시킬 수도 없는 것이다. 다만 복음에 합당한 유익한 가치들을 받아들이고 오히려 그것을 활용한다면 또 하나의 갈등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110) 유동식, *민속종교와 한국문화* (서울: 현대사상사, 1978), 121.

111) 한국의 전통 문화와 기독교의 상관관계를 말함에 있어 '토착화'란 단어는 몇 편의 인용 외엔 사용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토착화란 단어가 '복음에 합당하냐'의 기준으로 봤을 때 약간의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112) 빌립보서 2:6-12

제 4 장

한국 전통 사상과 교회의 상관성

이번 장에서는 한국 전통 사상이 한국 교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한국 전통사상의 어떠한 부분들이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생활 가운데 형성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상관성 가운데 어떠한 부분들이 긍정적이고 부정적인지를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이를 통해 한국 전통 사상의 핵심 가치를 목회사역과 예배에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를 모색해 보고자 한다.

제 1 절 한국 전통 사상이 교회에 미친 부정적 영향

이번 절에서는 한국 사상이 교회와 성도들의 삶에 미친 영향중에서 부정적인 부분들에 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여기에는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 있는데 크게 무속과 샤머니즘적 요소, 유교적 요소, 불교 및 그 밖의 요소들로 나누어 살펴보고 그 문제점을 알고자 한다.

1. 무속과 샤머니즘적 요소

가. 신비주의와 열광주의

2장에서 샤머니즘의 특징에 관해서 살펴보았다. 다시 간략히 정리하면 샤머니즘(shamanism)은 신비적 강신(降神)체험과 엑스타시(extacy)의 종교이다. 샤먼에게서 뿐만 아니라 무속에 참가한 사람들이 겪는 엑스타시의 체험이야말로 탁월한 종교적 체험이 된다. 샤먼은 엑스타시를 통해 신과 만나고 신과 교통한다. 엑스타시는 신을 체

힘하고 접촉 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이다. 이 엑스타시를 통해 병을 고치기도 하고 예언의 능력을 행사하기도 한다.¹¹³⁾ 결국 이러한 경향과 종교적 특징을 갖게 하는 샤머니즘이 한국인의 심성과 문화에 많은 영향을 미쳤을 뿐 아니라 교회와 성도들의 신앙 가운데 영향을 미쳤다.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은혜 및 성령의 감동적 체험에 대한 이해와 경험들을 무속적 차원에서 이해하고 경험하려는 경향이 강하다. 또한 뭔가 카타르시스를 느낄 수 있는 집회를 원한다. 예를 들어 찬양을 하더라도 박수를 치며, 춤을 추며 신이 나와 한다. 그것을 은혜의 감동으로 간주한다.

그래서 항상 ‘뜨겁게’를 즐겨 말한다. 미미한 예배에는 잘 감동을 받지 못한다. 기도를 하더라도 열정적으로 기도해야 그 기도가 제대로 된 기도인줄 안다. 기도 소리를 높이고 몸을 흔들며 마치 주술을 외우듯 기도를 하는 모습을 기도원 같은 곳에서 쉽게 볼 수 있다. 물론 이것들이 모두 다 잘못된 것은 아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감동 또한 이러한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 하지만 그러한 은혜의 감동을 받기 위한 노력의 모습이 잘못된 것이다. 아직까지도 무속적인 샤머니즘의 영향이 나타나고 있다. 그렇기에 한국에 너무나 많은 이단들이 속출하고 있는 것이다.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 많은 기도원에서 오히려 잘못된 신앙의 습관을 가지게 되는 폐단들이 생겨나고 있다.

오늘날 한국 기독교의 특징은 일부 특수층을 이루고 있는 종교지도자가 주체가 되어 움직여 나가고 있다는 것이다. 그들은 한결같이 성경의 은사를 주장하고 있다. 모든 인생의 문제를 그들만이 해결해 줄 수 있는 양 말씀을 교묘하게 해석하면서 현대인의 심성에 걸맞게 충동질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사이비 근성이 있는 목사들은 자신들이 병도 고치고 때로는 예언도 하는 등 금식과 같은 고행을 명령하기도 한다.¹¹⁴⁾

한국의 오랜 역사 속에서 샤머니즘의 신비주의는 정치에 이용되기도 했다. 우둔한 백성들을 선동하기 위해 신의 권위를 이용했다. 어떤 특별한 현상들을 동원해 보여주면 백성들은 두려움과 함께 절대 권위에 복종하게 된다. 일식을 이용하고, 특별한 징조 같은 것들을 만들어 그것을 신의 계시라 하였다. 이러한 일들이 오늘날 교회에

113) 허 건, “한국의 전통적 종교가 기독교에 미친 영향,” *침신논집* 1 (1978): 22.

114) 최중현, *개혁주의 입장에서 본 한국교회와 샤머니즘* (서울: 성광문화사, 1996), 63.

서도 나타나고 있다. 부끄러운 일이지만 음향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나님의 음성이라 하여 교인들을 속인 일도 있었다. 목회자의 영적 권위를 확보하기 위해 신비주의를 조장하는 일도 많이 있다. 한국인들에게는 정(情)적인 부분이 강하기 때문에 이런 신비주의에 쉽게 현혹된다. 또한 쉽게 헤어 나오지 못한다.

따라서 신비주의와 열광주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선 목회자의 바른 신학 정립이 중요하다. 또한 건강한 목회를 위해 부단히 애쓰지 않으면 이를 극복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우후죽순처럼 생겨난 무분별한 교회와 기도원들에 대한 제도적인 제제도 필요하다. 또한 교회 내에서 성도들이 건강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영적 공급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나. 신앙의 무속화

안수기도, 통성기도, 금식기도 등 기도의 행위가 하나님을 불러 내리고 하나님께 자신들의 간절한 소원을 더욱 강하고 인상 깊게 전달하려는 수단으로만 이용된다면 이는 극히 위험한 오류에 속한다. 예배에 있어서도 상당수의 성도들이 말씀과 복음 중심의 예배에는 만족을 느끼지 못하고 큰 소리로 울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열광적인 분위기를 유도하는 집회에서만 만족을 느끼고 은혜를 받았다고 생각한다. 말씀과 복음 중심의 예배는 어쩐지 답답하고 이해하기도 힘든데 반해 열광적인 집회에 참석하고 나면 비로소 가슴이 후련하고 새로운 힘이 나는 것 같다고 여긴다. 이것은 말씀을 통해 변화를 체험하고 만족과 희열을 느끼는 것이 아니고 광적인 분위기 속에 열광하고 엑스타시 및 소음과 격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일종의 샤머니즘적인 카타르시스를 기대하기 때문이다.

교회 내에서 이러한 샤머니즘의 무속화 현상은 너무나 많다. 일부 기도원에서는 차마 눈뜨고 보기 힘든 무속적인 광경들이 연출되기도 한다. 건강한 신학과 말씀에 기반 하지 못한 자들에 의해 교회가 무속화된 것이다. 샤머니즘에서는 조직적인 교리 체계를 갖추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고등종교에서 볼 수 있는 윤리적 관계를 찾아보기 힘들다. 신과 인간과의 개인적인 구원의 관계라든가 신을 향한 신앙적 결단보다도 생활상의 당면한 현실 문제를 초월적인 신의 능력에 의지하여 해결해 나가려는 것이 샤머니즘의 주축이 된다.¹¹⁵⁾

즉 소원 성취로서의 행운(幸運), 기복(祈福), 화멸(火滅) 등의 지극히 현실적인 문제들로 집약되는 것이다. 또한 기원 방법도 내적 믿음 또는 신실한 마음보다는 신에게 제물을 바침으로써 그 제물의 양과 질에 비례하는 신의 응답을 기대하는 공리적 신앙에 의존되어 있다. 따라서 샤머니즘은 극단적인 이기주의를 고착시키는 동시에 현실과 사회에 대한 배타성을 갖게 한다. 아울러 사회에 대한 책임과 존재적 기능도 고려의 대상이 아니다.¹¹⁶⁾

전 국민의 4분의 1이 기독교인이라는 통계에도 불구하고, 기독교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은 실로 미비하다. 오히려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국가의 현재와 미래에 중요하고도 희망적인 요인이나 대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에서이기도 하다. 안타깝게도 그런 불균형적인 부흥으로 인해 이제는 기독교와 교회에 대한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평가가 확대되고 있을 뿐이다. 이 부분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은 기독교가 복음과 성서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전통적 무속 내에 귀속 또는 무속화로 변질되었기 때문이라 진단할 수 있다.¹¹⁷⁾

다. 무속적 축복관

샤머니즘의 부정적 영향으로 예수의 복음과는 거리가 멀어지고 교회와 교인들의 참된 복음과 하나님 나라에 대한 믿음과 사명이 사라지고, 무속적 축복관으로 전리가 왜곡되고 편협한 성경 해석과 적용이 일반화되었다.¹¹⁸⁾ 많은 교회들이 물량주의와 기복신앙에 물든 채 본질적으로 많은 문제를 갖고 있으며, 세속적 기복 신앙과 강하게 결합한 왜곡된 제물과, 헌금의 교리화 및 무리한 강요가 그 중심에 놓여 있다.¹¹⁹⁾ 또한 그 헌금을 무속의 샤먼과 같은 목회자가 전적으로 독식하고 비성서적으로 사용하는 사태가 생겨났다.¹²⁰⁾

115) 최중현, *개혁주의 입장에서 본 한국교회와 샤머니즘*, 70.

116) 이세영, “전통 종교가 평신도 신앙과 목회 사역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D.Min. diss., Fuller Theological Seminary, 2004), 49-50.

117) 유동식, *한국 종교와 기독교*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80), 52.

118) 김의환, “한국교회의 성장 둔화와 변형신학,” *신학지남* 256 (1998 가을): 16.

119) 홍세화, “교회와 이성,” *한겨레* 21, 2003년, 128.

120) 이성희, *미래 사회와 미래 교회-21세기 한국교회 메가 트렌드*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6), 57-58.

현대인들의 욕구와 기대를 모두 충족할 수 있는 인프라를 갖춘 교회와 교인 수만 많으면 성공한 목회자로 평가하는 시각이 지배적인 현 시점에서 교회는 부정적 평가와 사회적 지탄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외형적 물량주의와 성장 지상주의는 교회가 현 사회로부터 고립되는 계도화를 가속 시킨 중대한 원인이다.¹²¹⁾

이와 같이 현 교회가 마치 굿과 장터로 변하고 있으며 교회의 상업화와 거대화 된 기업화 경향은 목회자들의 세속적 욕망을 위한 것이라는 평가로 나타나기에 이르게 되었다.¹²²⁾

라. 샤머니즘적 예배관

초기 한국 교회의 예배에 영향을 미친 두 가지 배경을 살펴보면, 첫째 기독교의 예배 의식과 만나기 이전에 형성되었던 한국인들의 종교적 토양이며, 다른 하나는 선교사들이 한국에 가지고 온 자신들의 종교적 경험과 관련이 있다.¹²³⁾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하나님의 거룩으로써 우리의 양심을 각성시키는 것이며, 하나님의 진리로써 지성을 기르는 것이며,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써 상상력을 맑게 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사랑에 마음을 여는 것이며, 하나님의 목적에 뜻을 바치는 것이다. 이처럼 우리는 예배를 통해 창조주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는 것이다.

그런데 샤머니즘의 예전인 굿 문화는 한국 교회의 예배를 변형시켰다. 굿의 구조를 보면 굿이 시작되면 제의 장소를 정화한 다음 자신들이 섬기는 신을 부르는 초혼 행위¹²⁴⁾를 하며, 그 신을 통해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¹²⁵⁾ 이런 굿의 의도와 목적은 기독교 예배와 상충된다. 기독교의 하나님은 인간이 부른다고 해서 오는 신이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모든 굿의 공통점은 살아있는 사람들의 안녕과 복락을 구하고 재난과 질병을 예방하거나 물리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굿은 사람들이 신을 움직여서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의도에 의해 작용

121) 김의환, “한국교회의 성장 둔화와 변형신학,” 12.

122) 이한수, “한국교회 성장 정체와 그 윤리적 대안,” *신학지남* 256 (1998 가을): 88-90.

123) 허도화, *한국교회 예배사* (서울: 한국강해설교학교 출판부, 2003), 77.

124) 신을 불러 오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다.

125) 장남혁, *교회 속의 샤머니즘* (서울: 집문당, 2007), 41-44.

한다. 복을 내려주고 자신들의 재난이나 질병에서 보호해 주도록 신을 조정하는 인간 중심의 예전이 곳이다.

그런데 초기 선교사들에 의해 기독교가 한국에 전파되고 정착하는 과정에서 샤머니즘이 교회의 예배와 예전에 자연스럽게 스며들게 되었다. 어쩌면 그것은 성서적 예배가 먼저 한국 교회에 확고하게 수립되고 뿌리 내리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현상일 수도 있다. 한국 교회의 예배는 처음부터 설교만 있는 설교 중심의 영성한 예배 형태가 주류를 형성했고, 그런 구도가 오늘날까지 계속해서 전통처럼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선교 초기부터 샤머니즘은 한국 기독교에 깊이 파고들었다. 샤머니즘의 중심에 있는 곳의 제의들과 그것들의 기저에 깔려 있는 의식들이 한국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적 세계관 형성 과정에 큰 영향을 미쳤다.¹²⁶⁾

이러한 곳의 영향으로 기독교 예배는 의무감으로 드러지는 예전처럼 취급되고 있다. 주일 예배를 참석하지 않으면 자신이나 가정에 하나님의 징계가 임하고 사업이 잘되지 않으며 자녀들이 해를 받는 것을 면하기 위해 단지 신자의 의무감에 의해 예배를 참여하는 기복 주의적 예배 형태가 만연하게 된 것이다.

샤머니즘적 예배는 인간들이 곳을 통해 자신이 섬기는 신을 기쁘게 하고 자신의 목적인 복을 구하고 화를 면하거나 재난이나 질병에서 보호 받거나 물리치기 위한 것인 반면, 기독교의 예배는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뜻대로 살기 위한 능력을 공급받는 것이다. 따라서 한국의 전통종교인 샤머니즘의 부정적 영향을 정확하게 분별하여 제거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예배를 회복해야겠다.

마. 샤머니즘적 기도

한국 교회의 예배에는 다른 나라에서 찾아보기 힘든 독특함이 있다. 그것은 바로 장로기도와 헌금기도이다. 신학적으로 기도에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필요하다. 그것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 창조주께 영광을 돌리는 것,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를 인정하는 것, 하나님의 백성의 필요를 구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드리는 것, 복종과 죄를 고백하는 것 등이다. 그러나 한국 교회의 예배에서 이루어지는 장로의 기도는 개인이나 교회 공동체가 화를 면하고 복을 구하는 지극히 기복적인 기도가

126) 이세영, “전통 종교가 평신도 신앙과 목회 사역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56-62.

주류를 이루고 있다.¹²⁷⁾

장로의 직분은 목사와 함께 당회를 구성하며, 교회의 지도자로 목사와 함께 교회와 교인들을 섬기고 목사를 보좌하여 교회를 치리하는 일을 기본적인 기능으로 삼고 있다. 예배에서 목회 기도를 하는 일은 교회의 치리자인 장로가 해야 할 본래 임무는 아니다.

또한 샤머니즘적 기도로 예배시간에 하는 헌금 기도를 들 수 있다. 헌금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를 감사하여 마음과 몸을 바치는 뜻에서 드리는 예물이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한국교회의 헌금은 그렇게 드러지고 있지 않다. 오히려 헌금이 축복을 받았으므로 감사한 마음에서 드리는 것보다는 축복을 전제로 한 투자심리가 더 강하다. 그것은 복을 전제로 한 보상에서 교회에 바치는 헌금이 샤머니즘의 복채와 같은 행위로 간주할 때 한국교회 내에서 이러한 축복을 전제로 한 헌금 설교나 집회의 작정헌금이 어찌 보면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기복의 개념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¹²⁸⁾

기독교의 헌금관은 일상생활에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쁘게 물질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다. 이것은 어떤 조건도 없이 하나님의 은혜에 응답하는 행위이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행위이다. 헌금은 물질뿐 아니라 우리의 시간을 드리고, 재능을 드리고, 정성을 드려 우리의 온전한 삶 전체를 드리는 헌신이다. 그러므로 예배 가운데 드리는 헌금 행위는 인간에게 보이거나 과시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순종의 표현이다.

그런데 샤머니즘의 예식인 굿에서 헌금을 하는 행위가 있는데 이를 ‘인정(人情)’이라고 한다.¹²⁹⁾ 굿을 진행하면서 무당은 신의 축복을 돈으로 사는 인정을 강요하고 이런 헌금이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무당은 신적인 능력이 많다고 인정되었다. 이런 샤머니즘의 굿에서는 조건부 헌금을 한다. 즉 샤머니즘의 신봉자들은 신에게 헌금을 바침으로써 개인과 가정과 공동체에 번영과 물질적인 축복이 온다고 믿는 헌금관을 가지고 있다. 굿에 참여하는 사람들도 어느 정도 헌금을 할 것을 미리 정하고 굿에

127) 이세영, “전통 종교가 평신도 신앙과 목회 사역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62-65.

128) 최중현, *개혁주의 입장에서 본 한국교회와 샤머니즘*, 78.

129) 김인희, *한국 무속사상연구* (서울: 집문당, 1993), 219.

참여하며 무당은 굿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헌금을 더 많이 얻어 내기 위하여 신의 이름으로 위협하거나 강요하며, 심지어 간청하기도 한다. 어떤 경우에는 무당이 굿에서 나오는 헌금 액수를 미리 정해 놓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여 그 액수를 채우려고 한다. 그리고 헌금을 하는 행위가 끝나면 무당은 헌금과 사람들의 헌금 행위의 궁극적인 목적인 화를 면하고 복을 받도록 신에게 비는 기도를 간절히 하게 된다.¹³⁰⁾

이 같은 샤머니즘의 헌금 행위는 종교 현상적인 측면에서 볼 때 기독교의 헌금 행위와 비슷하게 여겨진다. 그러나 여기에서 샤머니즘의 굿 가운데 행해지는 헌금과 기독교 예배의 헌금은 그 목적과 의도가 분명히 다를 것을 알아야 한다. 굿의 헌금 행위는 인간적인 의도와 동기에 의해 결정되지만 기독교의 헌금 행위는 철저하게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뜻으로 이루어진다.

교회 안에서 헌금 액수를 정해 놓고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그 액수를 내놓도록 강요하는 것은 무당의 굿과 다를 바가 없다. 절기예배, 각종 전도 집회, 기도원 집회, 부흥집회에서 헌금 액수를 정해 놓고 그 목표가 달성되도록 목사들이 의도적으로 강요하는 행위가 아직까지도 빈번하다.

예배를 드리는 교인들도 그 동기가 비슷한 때가 많다. 그들의 헌금을 하는 마음 자세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사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헌금과 헌금 행위를 통하여 자신들의 목적인 화를 면하고 복을 기대하는 의도에 기초해 있다.¹³¹⁾

하나님께서서는 분명 그분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영적인 축복, 물질적인 축복이 있지만 이웃을 위한 사랑과 자기희생이 없이 오직 현세적인 축복만을 바라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다.

2. 유교적 요소

가. 조상숭배와 제사의 영향

앞에서도 살펴보았지만 유교의 조상 숭배와 조상제사는 한국교회 초기 예전의 형성 과정에서도 상당한 영향을 미쳤다.

130) 김인희, 한국 무속사상연구, 220.

131) 정용섭, 교회 갱신의 신학 (서울: 대한기독교 출판사, 1980), 223.

유교의 제사는 천지에 대한 제사, 조상에 대한 제사, 성현에 대한 제사로 나눌 수 있다. 이 제사는 사회적 신분 계급에 따라서 구분되어, 천제는 천자만이 지내고, 사직과 종묘는 제후 이상이 지내고, 사대부 이하는 조상을 종묘에서 제사 지낼 수 있었다. 이 같은 유교의 경천신앙(敬天信仰)과 조상숭배 제사는 상고로부터 전하여 온 조상제사와 쉽게 결합하여 무속신앙을 통하여 일반 대중에게 널리 수용되었다.¹³²⁾ 유교의 조상 제사는 원래 효도의 표현이었지만 대체적으로 조령(祖靈)의 가호와 축복으로 기울어지게 되었다. 유교의 조상제사는 대중 속에 뿌리를 깊게 내리게 되었다.

유교의 범신론적 사상체계 속에서 조상신은 천신(天神)과 본질적으로 동일시되고 조상숭배가 바로 천 숭배와 마찬가지로 간주되어 조상은 유교에서 유일한 숭배대상이 되었다.¹³³⁾ 그렇기에 살아 있는 후손들은 죽은 조상들의 혼백을 위한 최대한의 경의와 공경을 표현해야만 했다. 후손들의 조상에 대한 경의와 순종적 자세가 제사를 통해 표현되었다. 그러므로 조상 제사는 그들의 삶과 미래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조상에 대한 지극한 효심의 연장으로 이해되고 엄격히 시행되었던 것이다.

즉 대가족적 국가제도를 실현하기 위하여 효를 강조하였고 그 효의 실천 방도로써 조상제사를 강조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상황들은 선교 초기 장례와 조상 제사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많은 문제와 갈등을 겪게 했다. 유교의 윤리적 합리주의는 무속의 주술적 비합리주의를 배척 하였으나 유교의 조상 제사적 의례주의는 무속의 가신신앙과 함께 기복신앙으로 뿌리를 내리게 되었다.¹³⁴⁾ 이러한 복합성과 다양성이 얽혀져 있음을 고려할 때, 교회 내에서 조상제사를 무조건 안 된다는 강경한 배타주의와 극단적 입장보다는 목회신학뿐 아니라 성서학적으로 이 부분을 합리적으로 정의하고 기독교 내에 바람직하게 수용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나. 가부장적 권위주의

유교의 부정적인 영향 중 교회 내에서도 쉽게 찾아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가부장적 권위주의이다. 교회의 구성원들 중 절대 다수가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교회 내에

132) 최중현, *개혁주의 입장에서 본 한국교회와 샤머니즘*, 47.

133) 금장태, “선진유교의 제례,” *기독교와 관혼상제*, 박근원 편 (서울: 전광사, 1984), 260-266.

134) 최중현, *개혁주의 입장에서 본 한국교회와 샤머니즘*, 48.

서의 중직은 남성들 중심이다. 당회 구성원인 장로들 또한 남성들이다. 또한 교회 안에서의 직분 개념은 서열의 관점에서 파악되는 경향이 강하다. 성경에서 말하는 직분의 개념은 하나님을 섬기고 성도들을 섬기고 사회적 약자들을 섬기는 것인데 계급의 관점에서 이해되어 지는 것은 바로 유교문화의 부정적인 영향을 받은 것이다.¹³⁵⁾

이와 관련하여 또 한 가지의 교회 안에서의 문제점은 바로 가족주의적 집단주의 모습이다. 기독교의 복음은 한사람을 중요시할 뿐 아니라 가족공동체, 민족 공동체, 인류 공동체를 중시한다. 또한 기독교의 구원 역시 개인적인 구원일 뿐 아니라 동시에 공동체적인 구원이다. 그런데 한국교회를 보면, 우리 집안, 우리 교회, 우리 교파라고 하는 귀속적 집단의 편협한 이익만을 요구하는 가족주의적 우리주의 의식에 편향되어 있다.¹³⁶⁾

물론 이러한 전통은 앞서서도 설명했지만 초기 교회 형성 당시부터 유교적인 전통의 영향으로 자연스레 이러한 분위기가 형성되었다. 거기다가 샤머니즘의 영향까지 더하면서 목회자의 권위는 더욱 높아져갔다. 성도들은 하나님과 교통하려면 반드시 목회자를 거쳐야 된다고 생각하고 목회자만 전적으로 의존한다. 그들은 목회자가 갖고 있는 은사 내지는 특별한 관심과 보호를 받고 싶어 한다.

지금 한국 교회에 나타나는 성직자 중심의 예배에 가장 큰 문제는 예배 공동성의 상실이다.¹³⁷⁾ 현재 한국 교회의 예배가 공동성을 상실했다는 것은 예배가 예배 인도자의 일방적인 주도 하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인 것으로 여겨질 수 있다. 그 영향으로 평신도들의 역할이 상대적으로 축소되고 수동화 될 수 밖에 없는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또한 예배 인도자가 회중을 바라보도록 위치하기 때문에 인도자는 하나님 앞에서 회중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 자라는 사실이 거의 인식되지 않는다.¹³⁸⁾ 대체로 한국 교회에서는 예배의 인도자가 예배 진행의 과정 내내 사회단 앞에 서서 예배를 진행한다. 심지어 성가대가 찬양하는 시간에 사회자는 사회대에 서서 성가대의 찬양하

135) 임성빈 엮음, *기독교 문화와 한국문화* (서울: 예영 커뮤니케이션, 2008), 94.

136) Ibid., 94-95.

137) Peter Cheal S. Yun, "한국 교회 예배에 끼친 샤머니즘 영향에 관한 연구," (Th.M. thesis, Fuller Theological Seminary, 2006), 37.

138) 황성철, *예배학*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1998), 144.

는 모습을 내려다보거나 쳐다보기도 하는데 이런 모습은 회중들로 하여금 예배의 인도자가 성가대의 찬양을 받아 하나님께 올려 드리는 사람으로 착각하는 문제가 나타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황성철은 “예배는 인도자와 순서를 담당할 역할자와 예배 참여자인 회중이 일체감을 느낄 수 있는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실제로 예배의 공동성을 살리기 위해서 예배 공간의 구조에 변화를 꾀해야 한다”고 주장한다.¹³⁹⁾

이 같은 교회 내의 가부장적 권위주의는 성직자가 예배의 모든 것을 담당함으로써 성도들의 예배 참여를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런 한국 교회의 예배 형태는 전통적으로 인도자의 강한 종교적 카리스마에 쉽게 이끌리는 한국인들의 종교 성향이라 볼 수 있다.

3. 그 밖의 부정적 영향들

가. 불교의 영향

불교는 유교와 함께 한국전통사상을 형성해 온 주류라 할 수 있다. 불교의 성격상 다른 사상에 비해 겉으로 드러나는 특이점들이 다소 적어 보인다. 그러나 불교는 지금까지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렇기에 성도들의 삶 가운데 깊이 들어가 있는 불교의 부정적 요소들을 찾을 수 있다. 성도들에게 쉽게 찾아 볼 수 있는 불교의 영향은 먼저 100일 작정기도를 들 수 있다. 여기서 100의 의미를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지에 대한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분명한 것은 100은 성경적인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다. 꼭 100일을 채워야지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소원하는 일을 이루어 주실 것이라는 불교의 요소가 들어가 있다.

또한 업보(業報)에 대한 의식,¹⁴⁰⁾ 죽은 사람의 장례를 치른 후 지내는 삼우제나 49제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것들은 불교에서 온 풍습으로 기독교인들도 그대로 따를 정도로 토착화되어 있다. 또한 불교는 기독교와는 달리 만물에 불성(佛性)이 있음

139) 황성철, *예배학*, 147-148.

140) 한국인들은 “아이고 내 팔자야 전생(轉生)에 무슨 죄(업보)가 이리도 많아서”라는 말을 종종 하는데 이러한 것은 바로 불교의 영향이라 볼 수 있다.

을 인정하고 살생을 금하며 자연과의 합일을 주장한다. 즉 자기부정을 통해 수용과 적응으로 합일을 달성한다. 여기에 동정과 포용과 관용은 있으나 상대방을 변혁시키는 창조적 작용이 없다. 오늘날 성도들이 현실도피를¹⁴¹⁾ 일삼고 사회적 책임을 등한시하며 현실주의 개인 신앙에 빠지는 것은 오랜 기간 형성된 불교의 내세관 때문이라 할 수 있다.¹⁴²⁾

나. 공로 및 보상주의

한국의 무속신앙에서 엿볼 수 있는 가장 큰 특징은 기복신앙이다. 우리의 선조들은 하늘에 복을 빌고, 조상에 빌고, 또한 자연물과 터부시한 사물에 빌기도 했다. 이는 지금도 행해지고 있다. 이렇듯 우리 민족은 복을 비는 정성을 통해 그에 따른 보상을 받으려는 기복적인 성향이 무척이나 강하다. 이는 무속 뿐 아니라 유교, 불교에 이르기까지 보편적으로 형성되어 있는 것을 앞서 살펴보았다.

전통 종교 중 무속에서 강조하는 헌금 또는 제물의 봉납은 그 샤먼을 숭배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그것은 자신들을 고난과 질병과 같은 어려움으로부터 지켜주고 부와 권력을 얻으려는 세속적 의도가 전제된 것이었다. 봉납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통해 자신들의 안위는 물론이고 현재와 미래의 삶을 보장받으려는 의도가 깊이 내재해 있었던 것이다.¹⁴³⁾ 전통적으로 헌금 및 제물을 반드시 봉납해야만 하는 의식과 행위는 그러한 헌물을 통해 자신들이 숭배하는 신들을 감동시킴으로 그것을 통해 자신들의 이익을 획득하려는 세속적 차원의 의도가 다분했다.

오늘날 교회에서 특정한 일에 대한 섬김의 강요나 헌금 강요 같은 것은 성서적 또는 복음적 기초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공로와 보상주의’를 따라 행해지고 있다

141) 불교의 현실 세계를 부정하는 태도는 도피적인 인생관을 갖게 하였는데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상당수가 이 사상의 영향을 받고 있다. 현실에 도전하여 선한 싸움을 싸우고 변혁을 일으키고자 노력하고 애쓰는 대신 오히려 현실을 도피하는 생활을 시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어떤 조그만 문제가 있어도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기보다는 현실을 외면, 가족과 일터를 팽개치고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기도원으로 도피하는 사례들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이런 사례들은 기독교가 불교의 현실 도피주의를 수용한 결과라 볼 수 있다.

142) 어춘수, “한국 기독교의 신비주의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2008), 90.

143) 장남혁, *교회속의 샤머니즘* (서울: 집문당, 2007), 45-47.

는 것을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 과거 역사 속에 행해진 헌금 및 제물의 봉납에 감추어진 ‘보상과 현재 및 미래에 대한 확실한 삶의 보장,’ ‘땅과 기업의 번영,’ ‘재화의 확대와 축적’에 대한 의도성이 기독교와 교회 내의 성도들에게도 내재되어 있다는 점 또한 알아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전통 종교와 무속적 영향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여 자신들의 교회 부흥과 거대화를 이루려고 했던 목회자들의 왜곡된 자기 이해와 비기독교 정체성이 현 교회의 심각한 무속화와 이질적 기독교화를 초래했음을 깊이 인식하고 회개해야 한다.¹⁴⁴⁾

공로 및 보상주의는 먼저는 목회자들에게 있어서 제거되어야 할 것이며, 점차적으로 교회 안에서도 바른 신학, 바른 예배, 바른 신앙을 형성하기 위해 제거해야 할 부정적 요소이다.

다. 초월주의

초월주의 또한 한국 전통사상과 종교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전통적으로 우리 민족의 특성중 하나는 종교성이 강하고 매우 수용적 이라는 것이다. 그것은 한국의 본질적 심성에 무속적 성향 때문이라 볼 수 있다.¹⁴⁵⁾ 이러한 바탕위에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고 복을 받을 수 있다는 이신칭의 교리는 한국인의 마음에 맞고 매력을 끌기에 충분했다. 예배나 특히 부흥회에서 열띤 음성으로 “믿습시다”와 “아멘”을 크게 외치는 것을 우리는 지금도 쉽게 볼 수 있다. 그러나 믿는다는 것 즉 믿음의 개념이 어느 정도가 신앙의 자기 결단과 관련되어 있는지가 문제이다. 도대체 무엇을 믿는가?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가? 믿음 후에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에 대한 주관이 없어 무조건적 충성과 공로와 헌신, 목회자를 마치 샤먼이나 군주와 동일시하여 그를 기쁘게 하거나 잘 섬기면 반드시 지상의 복락을 얻을 수 있다는 의존적 태도, 심지어 자기 인격까지 버리고 그것이 가장 잘 믿는 것으로 여기는 샤머니즘적인 믿음을 교인들은 가지고 있다. 한편으로는 이러한 무속적 토양과 믿음의 견고성을 자신의 세속적 욕망과 교회 부흥 지상주의를 지향하는 일부 그릇된 목회자로 말미암아 더욱 확대 또는 강화되는 방향으로 존속되어 왔다.

144) 박아론, “한국교회의 급성장,” 신학지남 256 (1998 가을): 177.

145) 안병기, “조선시대 유교와 무속신앙”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2005), 9-13.

현 기독교와 교회가 반 지성으로, 신비주의적 맹신집단으로 평가되는 주요한 요인은 무속의 강신 체험과 엑스타시가 교회와 기독교에 유입되었기 때문이다. 체험과 엑스타시가 필수적으로 요청되는 샤머니즘적 사고방식은 기독교 안에서도 신비체험과 엑스타시를 지나치게 강조하게 만들었다.¹⁴⁶⁾ 그리고 마치 그것이 있어야만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요 성령 받은 신자가 된 것처럼 생각하게 만들었다. 또한 성령의 사역과 은사로 오해되었고 무당의 강신 체험이나 엑스타시와 비슷한 경험의 간증이 교회에서 환영 받고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이상한 현상으로 까지 나타나기에 이르렀다. 기독교의 성령 체험을 샤머니즘의 점신 또는 입신현상과 비교해 보면 성령 체험자가 거의 모두가 성령 체험의 증거로 손끝이 떨리고, 진동이 오고, 몸에 뜨거운 불이 임했다는 것을 느끼고, 방언을 말하며, 환상과 환청을 체험하는 등 모두가 외형적 또는 표면적인 것들만 제시하고 있음을 알아야 한다.¹⁴⁷⁾

건강하고 바른 목회 사역, 바른 신앙은 결코 현실과 동떨어지지 않는다. 잘못된 초월주의에 물들어 성경을 왜곡하고, 교회를 오염시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앞으로는 없어져야 할 것이다.

제 2 절 한국 전통 사상의 긍정적 영향

대부분의 신학자들과 목회자들은 한국 전통 사상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취해왔다. 그것은 한국 전통사상에 관해 저술된 단행본이나 학술 연구 자료에서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물론 일부 신학자들은 한국적인 신학을 정립하기 위해 ‘토착화’라는 시도를 하기도 했다. 하지만 토착화라는 표현 또한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 왜냐하면 복음의 본질을 훼손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복음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한국 전통 사상의 장점을 취할 수는 없을까? 라는 고민으로 본 논문을 쓰기에 이르렀다. 또한 한국교회와 예배의 갱신을 위해 ‘변혁적 수용’의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다. 한국이 다른 나라들 보다 복음 수용이 빨랐던 이유는 우리 민족만의 장점이 있기 때문이며, 우리 민족의 우수성을 잘 살리고 목회 사역에 활용한다면 한국교회가 나아갈

146) 장남혁, *교회속의 샤머니즘*, 50.

147) 김태곤, *한국무속연구* (서울: 집문당, 1995), 12-22.

새로운 돌파구가 되리라 기대한다.

우리의 정신문화에 오랜 세월동안 기층을 이룬 불교의 윤회사상이나 도교의 상선별악관과 유교의 인과응보적인 도덕관은 기독교의 내세관 사상을 수용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특히 유교의 도덕은 인간의 현세의 삶을 내세와 관련시켜 보다 철저한 윤리적 종교가 되게 하려는 기독교에 도움을 주었다.¹⁴⁸⁾ 아울러 우리 전통 사상 중 교회에 미친 긍정적인 영향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1. 천(天)사상과 복음

예로부터 우리 민족은 하늘을 숭배해 왔다. 무속의 ‘하느님’ 또는 ‘천재(天宰)’사상, 유교의 ‘천명(天命)’사상은 이를 말해준다. 무속의 천지신명(天地神明)은 길흉화복의 근원이다. 그런데 바로 이러한 천(天)사상이 기독교가 수용될 때 긍정적 작용을 하였다는 것이다.¹⁴⁹⁾ 한국의 무속신앙이 유일신관이라 볼 수는 없지만 기독교의 유일신관을 받아들이는데 오히려 유리하게 작용한 것이다.

단군신화에서도 보면 우리의 최초 조상은 천상에 있는 하느님이었다. 그 하느님의 아들이 지상에 내려와서 단군을 낳았다고 한다. 이러한 사상이 근간이 되어 한국인들에게는 하늘을 중심으로 기복신앙을 갖게 되었다. 천인일체(天人一體)주의가 한국인들의 정서 속에 자리 잡아 지금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다.¹⁵⁰⁾

이러한 신인융합(神人融合)으로 인하여 단군신화가 만들어 졌고 그로 말미암아 천손사상(天孫思想)을 가지게 되었다. 이 천손사상은 곧 선민의식이며 이러한 선민의식은 그 민족국가의 저력인 동시에 최대의 정신적 기반이 되어왔다. 심지어 우리의 시조 설화가 기독교의 구조론적 예수설화와 같다고 주장하는 학자도 있다.¹⁵¹⁾ 우리 민족이 해 돋는 동방을 우러러 보는 것이나 백의를 좋아함은 청정과 밝음을 원하는 데서 비롯되고 또 고유한 우리의 사상에 우주와 인간이 동일하다는 원리가 있어서 하늘이 높으므로 인간도 높고 하늘이 밝음으로 사람의 생각도 밝다는 것이다.¹⁵²⁾

148) 김해연, *한국문화와 기독교* (서울: 성지출판사, 1999), 126.

149) Ibid., 67.

150) 이기동, *한마음의 나라 한국* (서울: 동인서원, 2010), 162.

151) 정진홍, *신화의 구조적 분석-단군신화의 종교적 함의를 해석하기 위한 시론* (서울: 온누리, 2000), 131-139.

한국인의 이상은 하늘인데 이것은 단순한 숭상의 대상이 아니라 하늘을 근원으로 하는 민족적 사유의 특색이며 그 하늘이 인격적 신으로 발전하게 됨에 따라 한국인에게 하늘은 초인적 힘의 상징이다. 그렇기에 한국인에게 있어서 큰일의 성취는 인간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결국 하늘의 도움이며 임금까지도 천지신명(天地神明)에게 '천제(天祭)'를 드린 것이다. 이 때문에 한국인은 타민족에 비해 종교성이 강하다고 보는 것이다. 이러한 바탕이 있었기에 선교사들에 의해 전파된 복음이 쉽게 받아들여질 수 있었고 빠르게 뿌리 내릴 수 있었던 것이다.

우리의 전통 사상 중 핵심이 되는 천(天)사상이 복음사역에 이로운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에 대해 간략히 정리해 보았다. 앞 절에서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았지만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긍정적인 요소들도 상당히 많다는 것이다. 계속해서 긍정의 요소들을 찾아보고자 한다.

2. 충효(忠孝)사상과 섬김

우리의 전통사상에서 불교나 유교 모두 효에 뿌리를 두고 있다. 유교의 핵심은 바로 인(仁)인데 하늘의 뜻을 따르는 것은 인(仁)을 실천하는 것이고, 욕심을 억제하는 것은 예(禮)를 실천하는 것이다.¹⁵³⁾ 예를 실천함에 있어서는 경서(經書)중에 하나인 효경(孝經)¹⁵⁴⁾을 통해서 학문적으로도 발전이 되어 모든 사상의 근간을 이루어 왔다. 우리나라에서 과거 시험 과목에도 들어갈 정도로 중요시한 덕목이 바로 효(孝)이다. 일각에서는 나라를 다스리는데 효(孝)를 강조하여 이용하였다는 주장도 있으나 원래 우리민족은 가족중심이며 부모에 극진히 효도하는 민족이다. 이러한 배경에는 인(仁)사상이 있다.

인(仁)은 남과 내가 하나가 되는 것이므로, 남과 서로 경쟁하는 현실사회에서는 실현되기 어렵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현실 사회 속에서도 남과 내가 하나가 되는 관계가 현실적으로 존재한다. 그것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이다. 우리의 전통 사상 속에서

152) 김해연, *한국문화와 기독교*, 37.

153) 이기동, *기독교와 동양사상* (서울: 동인서원, 1999), 127.

154) 유교 경전의 하나로 공자(孔子)가 제자인 증자(曾子)에게 전한 효도에 관한 논설 내용을 훗날 제자들이 편저(編著)한 것으로, 연대는 미상이다. 천자(天子) · 제후(諸侯) · 대부(大夫) · 사(士) · 서인(庶人)의 효를 나누어 논술하고 효가 덕(德)의 근본임을 밝혔다.

는 바로 이러한 부모와 자녀의 관계를 잘 유지하여 인(仁)을 이루기 위한 노력들이 돋보인다.

한국을 동방예의지국, 효의 나라라고 칭송해 온 배경에는 바로 이러한 사상이 중심이 된 것이다. 효도를 하여 부모와 하나가 되는 사람은 형제와도 하나가 된다. 부모와 하나가 되는 사람은 부모와 형도 하나임을 알기 때문에, 부모를 매개로 해서 형과 동생이 하나가 된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형제가 하나가 되면 삼촌과 하나가 되고 사촌과 하나가 되며, 오촌, 육촌이 하나가 되어, 하나가 되는 관계가 확산된다. 그리하여 모든 사람이 하나가 되면 인(仁)이 실현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전통사상에서 효도는 결과적으로 인(仁)을 실현하는 수단이 되고, 진리를 얻는 수단이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서당 교육을 통해 명심보감(明心寶鑑)¹⁵⁵⁾ 등 효행에 관련된 내용들을 아이들에게 교육했다. 가정에서도 철저히 부모에게 순종하며 효도하는 것을 몸소 가르쳤다. 그렇기에 다른 어느 나라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효의 나라가 된 것이다. 우리의 이러한 전통 사상적 배경과 효의 실천위에 하나님의 말씀이 덧입혀 졌다. 성경 또한 부모에게 효도할 것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¹⁵⁶⁾ 물론 효의 범주에 제사도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많은 부분에서 성숙되어져 가고 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전파되고 확장되어 갈 때 분명 이러한 요소는 크게 이점으로 작용했다. 선교사들이 남긴 자료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우리 민족은 어른에게 예의를 다하고 순종적이기에 자기의 이익을 주장을 하지 않았다. 초대 교회가 물건을 통용했던 것처럼 우리의 선조들도 한마음으로 나누고 섬겼다. 이러한 것들은 누가 가르쳐서가 아니라 이미 우리민족에게 흘러져 내려오는 전통사상이요 문화였다.

동양 사상에서 효(孝)의 실천으로 제시되는 것이 '서(恕)'이다. 서(恕)는 어떤 행동을 할 때 의도적으로 남의 마음을 헤아려 남의 마음이 내 마음과 같기 때문에, 내가 하기 싫은 일은 남도 하기 싫을 것이라는 사실을 감안하여, 남에게 시키지 않는

155) 고려 충렬왕 때의 문신 추적(秋適)이 금언(金言), 명구(名句)를 모아 놓은 책인데 후에 어떤 학자가 증보(增補), 팔반가(八反歌), 효행(孝行), 염의(廉義), 권학(勸學) 등 5편을 더하였다.

156)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리라” (출 20:12),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마 15:4)

것이다.¹⁵⁷⁾

이런 사상에 비추어 보면 한국인들은 상당히 매너가 있고 배려심이 있어야 하는데 실제 비춰지는 모습에서는 이런 부분이 오히려 아쉽다고 느낀다. 그 이유는 이 부분에 대한 노력들을 하지 않아서이다. 분명히 우리 민족에게는 깊은 배려심이 있다. 이러한 배려심의 부작용으로 지나친 간섭이 생겨난 것이다. 그렇기에 말씀을 통해 서(恕)의 마음을 회복한다면 가장 성경적인 섬김의 실천을 하기에 유리한 민족이 될 것이다.

아직까지도 우리 한국인들에게는 순수하게 남을 돕고자 하는 모습들이 더 많이 보인다. 이는 분명히 이러한 전통 사상의 긍정적인 영향인 것이다. 우리 민족이 복음을 쉽게 받아들일 수 있었고 부흥할 수 있었고 발전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우리 민족의 우수성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 우수한 전통사상을 새롭게 인식하고 변혁적 수용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정체성을 잃게 되고 서구와 같은 기독교 몰락의 사태가 빚어지게 될 것이다. 노인들을 공경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며, 나보다 연장자들에 대한 예의를 갖추고, 남의 어려움을 방관하지 않고, 내가 나누어 줄 수 있는 것들을 필요로 하는 이들에게 줄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 민족의 모습이고 우리 교회의 모습인 것이다.

3. 인의(仁義)와 선(善)

성경에도 선을 행할 것을 강조 하고 있는데 마태복음 5장 16절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나님께서 주신 큰 계명에도 ‘이웃사랑’이 들어간다. 즉 우리의 이웃들에게 착한 행실을 보이고 몸소 선을 실천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것이다. 그럴 때에 그들이 그리스도의 빛으로 인도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그

157) 이 부분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2장을 참고하기 바란다. 아울러 이를 대화에서는 ‘혈구지도(絜矩之道),’ 논어에서는 ‘서(恕),’ 중용에서는 ‘군자의 도’라 한다.

렇지 못할 때가 더 많다. 분명히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은 성경이 말해 주고 있는데 합리화의 늪에 빠져가고 있다. 분명 우리가 회복해야 할 문제요 과제이다.

앞에서도 여러 번 강조했지만 동양사상의 핵심은 바로 인(仁)이다. 이것이 기독교의 '사랑'과 '상통'한다고 단정하기는 무리가 있지만 분명 상통하는 부분도 있다. 그렇기에 복음을 받아들기에 유리했던 것이며 또한 한국적인 교회의 모습을 갖게 된 것이다. 또한 인(仁)과 함께 강조되는 것이 의(義)이다. 우리가 흔히 '의리(義理)'라는 말을 쓸 때의 근원이 되는 것도 바로 의(義)사상이다. 즉 우리 민족은 의리가 있는 민족이다. 남을 속이는 말을 잘하지 못하고 내가 한 말, 해야 할 일에 책임을 지는 모습이 전형적인 우리의 모습이다. 물론 이 부분도 오늘날에는 무색하기 짝이 없다. 오히려 전혀 그렇지 않아 보이기도 한다. 그렇기에 이 부분의 회복을 위해 교회가 앞장서야 한다.

맹자는 인의(仁義)를 실천함에 있어서 다섯 가지 덕목을 제시했는데 바로 '오륜(五倫)'이다. 오륜은 '부자(父子), 군신(君臣), 부부(夫婦), 장유(長幼), 붕우(朋友)' 간 관계를 위해 지켜야 할 윤리규정으로 동양윤리의 근간을 이룬다.¹⁵⁸⁾ 동양전통 사상에서는 군신(君臣)의 관계보다 부자(父子)의 관계가 가장 앞선다. 그것은 효도를 다하는 것을 개인도덕의 최고 목표로 하고 있고, 효제(孝悌)는 인간사회의 질서 확립을 위한 윤리규범의 기초이다.

이상과 같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공동체의 시작은 가정이며 관계의 시작은 바로 부모와 자식의 관계이다. 이미 이러한 사상이 지금까지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왔지만 앞으로의 사역 방향은 가정이 중심 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한(韓)철학과 한마음 공동체

우리 민족은 역사적으로 많은 외세의 침략, 일제식민지, 6.25 전쟁 등을 겪어왔기 때문에 한(恨) 많은 민족이라 흔히들 말해왔다. 하지만 우리 민족은 한(恨)이 아닌 한(韓)철학으로 이어져온 한민족이다.¹⁵⁹⁾ 우리의 근원적 사상인 한(韓)은 우리 민족 고

158) 오륜에 관해서는 5장에서 좀 더 자세히 설명하였다.

159) 한(韓)철학은 인(仁)문화권 안에 형성되어 있는 공동체성이다. 즉 너와 내가 둘이 아닌 하나이며 한마음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의식이 지배적인 것이 특징이다. 이기동, *한마음의*

유의 주체적 사상인데 한(韓)의 정신은 외래의 사상이 들어오기 전에 우리 민족 본래의 정신적 뿌리로서 민주사회의 한 사상형태로 발달되었고 유교의 전통에 의해 영향을 받았다.

한(韓)이라는 사상은 역사적으로 고찰하면 먼저 우리의 국명과 지명에 주로 나타난다. 멀리 삼한(三韓)과 근세에는 대한민국(大韓民國), 한민족, 한겨레, 한일, 한밤산(백두산) 같은 경우이며 산천이나 지명에 한강이나, 한글, 한밭과 같은 것이다. 이러한 한(韓)철학이 있는 우리의 선조는 참으로 훌륭한 정신적 유산을 남긴 것이다. 이것은 세계사에 빛나는 자랑이요 긍지인 것이다. 무예에 능하고 승마와 학술, 특히 천문학에 뛰어났으며 아주 훌륭한 문자를 사용하였다.¹⁶⁰⁾

이광규는 그의 '한국문화의 구조인류학'에서 한국의 전통 문화를 이해함에 있어서 두 가지 지주가 있으니, 그 하나는 혈연 공동체와 지연 공동체를 축으로 하는 마을 공동체가 있다고 한다. 그리고 종족 공동체는 유교와 상관이 있고 마을 공동체는 농경문화와 관련이 있다고 한다.¹⁶¹⁾ 특히 종족 문화체계에는 장자와 장손에 대한 우대가 뿌리 깊게 자리한다. 이것은 조상 숭배와 관계되는 일이지는 하나 기독교 이전 유대교에서 장자의 특권을 인정함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한민족의 공동체 문화는 유교의 대동주의(大同主義)와 민본주의(民本主義)가 어우러져 계(契)나 향약(鄉約)과 같은 미풍양속을 낳았다. 그래서 우리 민족은 공동체 안에서 서로 다투지 않고 상부상조 하는 공동체를 유지해 올수 있었던 것이다.

이러한 모습은 고스란히 기독교가 전해지고 한국 초대교회 안으로 들어왔다. 교회공동체 안에서 서로 돕는 섬김이 행해졌고, 혼(婚,) 상(喪,) 화재(火災), 천재(天災) 같은 대사가 있는 때에는 물자의 부조와 노역의 부조를 하였다. '서로 도와서'라는 말은 옛 조선인의 가장 사랑하는 말이었다. 그런데 이러한 공동체 삶은 우리나라의 한(韓)철학이 낳은 일환으로 볼 수 있다. 나 개인 위주가 아니라 '우리' 또는 전체에 대한 강한 사상이 이렇게 민족적 단결로 나타난 것이다.¹⁶²⁾

나라 한국, 65.

160) 김해연, 한국문화와 기독교, 48.

161) 이광규, 한국문화의 구조인류학 (서울: 집문당, 1997), 125-146.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것은 바로 이러한 우수한 한(韓)철학을 회복하고 잘 수 용한다면 교회 공동체는 이전에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한마음 공동체가 될 수 있다. 교회 안에서도 교인들이 한마음으로 예배드리고, 한마음으로 봉사의 일을 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또한 격려해 주어야 한다. 그런데 이를 무시하고 권위로 누 르려고 하거나, 성장위주의 프로그램 위주가 된다면 한마음 공동체는 이를 수 없으며 개인주의가 만연하는 공동체가 될 것이다.

5. 서당교육과 제자훈련

우리나라의 서당은 글방, 서재, 책방이라고 불리었던 민간의 교육기관으로 볼 수 있다. 서당의 역사적 기원에 대해서는 뚜렷한 정설은 없으나 보통 고구려 때의 정당(扃堂)이라는 학교제도를 서당의 시작으로 이해한다.¹⁶³⁾

서당교육은 오늘날의 초등교육 기관으로 향촌에 존재하여 마을 자녀들의 교육을 담당했다. 서당 교육은 서민층을 위한 아동교육 기관으로 중추적 역할을 하였는데, 실제 서당에서 양반의 자제들과 평민이나 천민의 자녀가 함께 공부하기는 어려웠지만 서당의 입학에는 원칙적으로 신분 제한이 없어 사농공상(士農工商)은 물론이고 천민의 자식들도 입학할 수 있었다. 또한 훈장의 보조자로서 접장을 활용하였는데, 접장제도는 비교적 규모가 큰 서당에서 훈장 한 사람으로는 많은 학도를 일일이 가르칠 수 없을 경우 학도 가운데 나이와 지식이 많은 자를 뽑아 접장으로 세웠다. 서당은 접장이라는 인적 구성을 통해 학생들을 효율적으로 지도할 수 있었다.¹⁶⁴⁾

서당교육은 교육을 중시하는 우리나라 고유의 풍토를 충분히 엿볼 수 있게 한다. 또한 서당을 통해 강조된 것은 지식함양 보다는 인격함양에 초점을 두었다. 가령 글을 잘 외우고, 잘 쓰는 학문적으로 매우 뛰어난 학생이 있었는데 그 학생이 품행과 기본적인 예절이 결여되어 있다면 훈장으로부터 엄정한 평가와 벌을 받아야만 했다.

서당 교육이 우리의 전통 사상에 미친 영향은 실로 지대한다. 서당 교육이 늦어

162) 김해연, *한국문화와 기독교*, 49-50.

163) 원준수, “서당 교육의 특징과 현대적 의의” (석사학위논문, 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 2012), 4.

164) Ibid., 45.

도 15, 16세까지에 한하기는 했지만 실제로 연령의 제한을 두지 않았고, 모두에게 열려있었다. 이런 소규모 교육시스템을 통해 철저한 제자훈련의 모티브를 이미 구축한 것이다. 그렇기에 한국 교회의 '제자훈련'이 가능했으며 많은 열매를 맺게 된 것이다. 물론 서당교육과 제자훈련의 상관성을 논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다. 하지만 서당교육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교육의 초점이 소그룹에 맞춰져 있었으며, 실천을 바탕으로 한 철저한 인성교육과, 가정중심의 교육이었다는 것은 너무나 훌륭한 토양을 이미 조성한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렇기에 오늘날 교회 안에서의 교육의 방향 또한 이러한 부분을 감안하여 장점을 살린다면 큰 성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이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설명은 5장에서 하고자 한다.

6. 제의(祭儀)와 기도

지금까지의 요소들만 본다면 한국인들에게는 이미 기독교 신앙을 형성할 수 있는 좋은 습관들을 갖추고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 수 있다. 거기에다가 또 하나의 좋은 습관을 소개하면 기도의 습관을 들 수 있다. 제사문화를 통해 예전을 형성할 수 있는 뼈대를 갖추었고 하늘에 비는 무속적인 신앙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 안에서 바른 대상과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1907년 대부흥에 있어서와 같이 한국 교회가 경이적인 성장을 경험할 때마다 한국인들은 자신들의 깊은 헌신을 적절하게 상황화된 양식들을 통해서 표현해왔다. 예를 들면 전통적으로 한국 사람들은 축복을 기원하며 정확하지 않은 천상의 존재들에게 기도했다. 지극한 정성을 다해서 기원하면 그러한 존재들도 감복하여서 소원을 들어줄 것으로 믿었다. 그러한 전통적 양식을 긍정적으로 활용한 것이 새벽 기도회이다.¹⁶⁵⁾

처음 기독교가 한국에 들어올 때 선교사들은 한국의 제사 의식이 기독교와 상반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부정적인 생각들이 대부분이었다. 하지만 Shearer는 기독교의 선교사들이 한국 문화를 존중하면서 한국 문화를 보존하도록 허용했다라면 조상을 공경하지 않는다는 것 때문에 지장을 받았던 더 많은 사람들을 기독교인으로 만들었을 것이라고 말한다.¹⁶⁶⁾

165) 장남혁, *교회속의 샤머니즘*, 108.

제사의 문제는 지금도 그 의견이 분분하다. 가톨릭은 수용의 입장이며 개신교는 아직까지도 반대의 입장이다. 하지만 전면적으로 반대하기 보다는 우리의 전통 문화적 차원에서 유익한 것들을 변혁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렇게 할 때 아직까지도 거부반응을 보이고 있는 많은 이들을 보다 많이 수용할 수 있을 것이다. 제사에 혼용되어 있는 조상숭배와 죽음의 추도를 다르게 바라볼 필요가 있다. 오늘날 제사에 있어 우상의 요소가 되는 조상숭배의 부분을 제거하고 죽음을 추도하는 관점에서 충분히 제사를 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사실은 제사의식을 통해 한국인들은 가족중심이 되었고, 효를 실천 하게 되었고, 기도의 습관을 들였다는 것이다. 제사의식은 예전을 형성하는데 있어서도 가장 한국적인 스타일을 만들게 하였다.

제 3 절 한국 전통 사상의 핵심 가치의 적용 모색

지금까지 한국 전통 사상의 부정적인 영향, 그리고 긍정적인 영향에 대해 나누어 살펴보았다. 대부분의 목회자들은 한국 전통 사상이라 할 때 긍정적인 인식 보다는 부정적인 인식을 가질 것이다. 신학을 공부할 때 신학을 가르치는 교수들로부터 부정적인 영향을 받았기 때문이다.¹⁶⁷⁾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제사의 문제를 긍정적으로 수용하지 않고 반대하기 때문이다. 물론 여기에는 분명 신학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근간을 흔들 수 있는 심각한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기에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

오늘날 우리의 한국 교회를 진단할 때 상당수가 교회의 정체됨을 문제시 하고 드러나고 있는 많은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있다. 하지만 모두가 문제를 의식하고 있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고, 자성의 실천을 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상황 가운데 그 대안 중 하나로 한국 전통 사상의 이해, 그리고 전통 사상의 차단이 아닌 변혁적 수용을 제안 하고자 한다.

우리 민족은 단일 민족으로 오랜 역사를 지속해 왔다. 이는 지금도 마찬가지다. 글로벌 시대의 경쟁력은 바로 우리의 것을 얼마나 가치 있게 살리냐는 것이다. 교회

166) 류순하, *기독교 예배와 유교제사* (서울: 숭실대학교 출판부, 2000), 108.

167) Ibid., 115-120.

도 마찬가지로 생각한다. 그동안은 너무나 서구의 교회를 모방하기에 급급했다. 교회 프로그램, 전도시스템, 심지어 양육에 이르기까지 한국적인 것들은 그다지 많지 않았다. 도입 초기에는 많은 효과를 거두었지만 그 생명이 길지 않은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다.¹⁶⁸⁾

한국적인 사역의 스타일을 고집하기 위해 성찬식에 막걸리와 떡을 사용해야 한다는 말은 아니다. 목회자들이 한국 전통 사상을 이해하고 전통 사상의 핵심 가치를 인정하고 가장 성경적인 토대위에 변혁적 수용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이 가장 한국적인 목회요 교회가 되리라 생각한다.

이를 위해 목회 사역에 적용할 수 있는 몇 가지의 유익한 가치를 정리해 보고 5장에서는 이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목회사역 적용 방안들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1. 인(仁) 문화의 따뜻한 정서

한국인들에게는 오랜 전통문화의 형성과정에서 인(仁)이라는 요소가 자리 잡았다. 인(仁)사상은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우리의 전통사상 문화의 핵심 요소라 할 수 있다. 유교의 창시자 공자(孔子)는 두 가지의 인간 형태를 구분했다. 바로 지자(知者)와 인자(仁者)인데 지자(知者)는 서로를 남남으로 여기는 향외형(向外形)의 사람들이고 인자(仁者)는 서로가 하나라는 한 뿌리 의식을 가진 향내형(向內形)의 사람들이다.¹⁶⁹⁾ 향외형의 부류로는 가까이는 일본을 비롯하여 서구의 나라를 들 수 있고 향내형은 우리나라가 대표적이다.¹⁷⁰⁾

인(仁)은 남과 내가 하나인 본래적인 마음을 현실적으로 실천하는 원리인데, 공자에 의하면, 이는 남을 나처럼 사랑하고, 자기가 서고 싶으면 세우고 자기가 출세하고 싶으면 남도 출세시키며, 자기가 하기 싫은 일은 남에게 시키지 아니하는 행위로

168) 백진식, “선교적 관점에서 본 알파코스에 관한 비평적 연구”(석사학위논문, 장로회신학대학교 세계선교대학원, 2006), 13.

169) 지(知)문화의 영향을 받은 향외형과 인(仁)문화의 영향을 받은 향내형으로 크게 분류하지만 절대적인 것은 아님을 밝혀둔다. 실제로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도 향외형의 스타일이 있으며 어떤 이들은 두 가지 요소를 모두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다. 이것은 전통과 문화의 특징으로 분류해 본 것이다.

170) 향내형의 특징에 관해서는 5장에서 자세히 설명하고자 한다. 이에 관해서는 이기동 교수의 책을 참조하였다. 이기동, *한마음의 나라 한국*, 31.

나타난다. 남의 아픈 몸을 보고 내 몸이 아픈 것과 똑 같이 내 마음이 움직이는 것이 바로 인(仁)인 것이다.¹⁷¹⁾

원래 인(仁)은 인(人)과 이(二)의 합체어이다. 인(人)이란 사람이 둘이서 붙어 다닌다는 뜻의 별명이다.¹⁷²⁾ 한국인들은 혼자 다닌 것을 싫어한다. 밥을 먹을 때도 같이 먹고, 어디를 갈 때도 함께 가는 것을 좋아한다. 심지어 화장실도 같이 가고 싶어 한다. TV를 봐도 함께 보는 것을 좋아한다. 좋은 것이 있으면 나누어 먹고 싶고, 좋은 볼거리가 있으면 함께 보려고 한다. 하나 되기를 좋아하는 한국의 정서는 이름에서도 많이 나타난다. ‘한국’이라는 나라 이름에서 비롯하여 ‘한나라당,’ ‘하나은행,’ ‘한겨레신문’등도 이를 증명해 준다.

한국인들은 하나 되기를 좋아하는 정서 때문에 남과 분리하는 것에 서툴러 잘 나누지 못한다. 함께 밥을 먹어도 각자 내는 것 보다는 누군가가 내는 것을 좋아한다. 한마음의 정서를 가지고 있기에 우리 민족은 이별을 잘하지 못한다. 하지만 최근 이혼율이 급증하고 있는 것은 정말 심각한 일이다. 그 후유증은 한국인들에게 치명적이다. 실제로 교회 안에서도 이혼의 문제는 정말 심각하다. 원래 잘 나뉘지 못하는 습성이 있는 우리 민족이 나뉘게 된다면 상처가 더 크고 그로 비롯되는 문제도 훨씬 크기 때문이다.¹⁷³⁾ 월드컵 경기 때 하나 된 모습을 통해 세계를 놀라게 한 것처럼 이제는 교회를 중심으로 하나로 뭉치는 사역에 초점을 뒤탈다. 교회가 구심점을 잡지 못하면 나뉘게 된다. 소외되면 다른 민족보다도 훨씬 더 심각한 증상에 빠진다.

한마음 정서의 또 다른 장점은 가족의식이다. 한국인들에게 가족은 아주 각별하다. 서구와 달리 독립으로 말미암아 완전히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분가를 해서도 가족들끼리 모이기를 좋아하고 부모에 대해 효도하려 한다. 이러한 가족의식은 교회에서도 나타나는데 ‘교회식구’라는 표현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모두가 한 가족이라 여긴다. 따라서 교회 공동체의 기초를 ‘가정단위’로 두고 이를 중심으로 활용해 간다면 보다 효율적인 사역이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따뜻한 마음을 특징으로 들 수 있다. 나와 남을 구분하지 않기에 남

171) 이기동, “공자사상의 근본구조,” *대동문화연구* 22 (1988): 15.

172) 이기동, *한마음의 나라 한국*, 89.

173) 이기동, “행복에 관하여,” *유교문화연구* (2009): 156-157.

의 슬픔이 나의 슬픔이 되고 남의 기쁨을 나의 기쁨으로 여기는 성향이 있다. 초상집에 달려가 함께 슬피하며 밤을 새우기도 하고, 친구가 어려운 지경에 빠지면 자기일 제쳐 두고 나선다. 보증을 쉽게 서줘 나중에 어려움을 겪기도 한다.

한국교회 성도들이 이러한 따뜻한 마음을 바탕으로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가정의 일을 감당한다면 정체는 사라지고 초대교회와 같은 아름다운 미덕과 부흥의 열정이 자연스레 일어나게 될 것이다.

2. 천인일체(天人一體)의 종교성

오랜 전통 문화의 형성 과정에서 한국인들에게 나타나는 또 다른 특징은 천인일체(天人一體) 사상이다. 이러한 영향으로 한국인들은 주인의식이 남달리 강하다. 앞서서도 설명했지만 어느 곳을 가더라도 중심의 위치에 서고자 한다. 그리고 인정받기를 원한다. 이는 앞에서 '하늘중심주의'라 설명하였다. 오랜 기간 형성된 전통사상 문화 속에서 한국인들은 하늘과 내가 하나라는 의식 때문에 하늘처럼 고상하게 살지 못할 때 한(恨)으로 나타난다.¹⁷⁴⁾

대부분 사람들은 우리나라가 수많은 외침을 받으며 그 가운데 생겨난 것이 한으로 규정짓지만 이는 한(韓)의 정서를 왜곡한 것이다.¹⁷⁵⁾ 그렇기에 교단이 분열하고 교회가 분열한다면 결국 교인들도 분열하게 된다. 이렇듯 한국인들의 한은 하늘처럼 고상하게 살지 못할 때 나타나는 한임을 알 수 있다. 하늘을 찾는 수단으로서 가장 일반적인 것이 종교이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종교가 발달했다.¹⁷⁶⁾

천(天)사상은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이어져 오는 우리 민족의 동질성과 우리 민

174) 한(恨)에 대해 조금 더 부연 설명을 곁들이면, 한국인의 정서에서 나타나는 감정 중에서 가장 특이한 감정은 '안타까움'이다. 자신이 원래 하늘이라 여기기에 자기 모습을 현실에 비추어 봤을 때 초라하다고 느끼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게 된다. 이 안타까움에서 나타나는 것이 한국인의 한(恨)이다.

175) 수많은 외적의 침범과, 일제식민지, 6.25 전쟁 등을 겪어 왔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민족을 한(恨)의 민족이라 치부 할 수는 없다. 한(韓)의 왜곡은 '하늘중심주의' 사상이 지배적인 한국인들이 인정받지 못하고 뜻대로 살지 못할 때 나타난 부작용이다. 이러한 부작용으로 인해 하나 되지 못하고 마음이 나뉘지게 되고 분열하게 되는 것이다. 이기동, *한마음의 나라 한국*, 163.

176) Ibid., 164.

족의 삶과 역사의 터전을 보유할 수 있는 것이면 어느 것이든 수용하여 조화를 이루었다. 이러한 복합적인 천(天)사상에 근거하여 하늘에 제사를 지낸 것은 특정한 사상 체계나 정치적 이념을 넘어서 민족의 동질성에 대한 염원을 표현하는 것이었다.¹⁷⁷⁾

이렇게 볼 때 성도들의 신앙적 갈망을 풀어줄 수 있는 목회적 리더십을 갖추어야 한다. 한국인들이 원래 땅에 대한 애착을 갖지 않고 하늘을 숭상하는 종교적 습관을 가졌던 것이 기독교에서는 이롭게 작용된 요소 중 하나다. 하지만 보다 건강한 교회를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한국인들의 특성을 잘 파악하고 이해는 하되 반드시 성경적 토대위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3. 수양철학(修養哲學)의 도덕성

예로부터 우리 민족은 남달리 도덕성이 강했다. 그러한 이유는 바로 수양철학을 중시해 왔기 때문이다. 동양철학에서 ‘수양(修養)’이란 ‘도를 닦는 것’이다.¹⁷⁸⁾ 말하자면 응녀가 마늘과 쑥을 먹고 인내 하는 것, 불교의 선승들이 장기간 참선하는 것, 도가적 수양방법에 따라 기공 훈련을 계속 하는 것, 성리학적 수양법에 따라 경공부를 하는 것 등이다. 어찌 보면 기도원에 들어가서 작정기도를 하는 것도 수양의 한 형태라 볼 수 있다. 이미 오래전부터 우리 민족은 다양한 수양을 통해 심신을 단련해 왔다. 여기에 종교적 의미를 부여해 수양을 통해 경지에 오르면 하늘과 하나인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게 된다고 믿었다. 교회에서 사용하는 수양회(修養會)의 명칭도 이러한 의미가 담겨있다. 물론 목적과 방법이 다르지만 우리의 인식 속에는 아직도 전통사상의 영향이 지대한 것이다. 본 논문을 통해 필자가 하고자 하는 것도 전통사상과 문화를 복음에 합당하게 목회사역에 활용해 보고자 하는 것이다.

한국의 수양철학의 대표자로는 퇴계 이황을 들 수 있다. 그는 하늘과 사람은 사이가 없이 하나라는 한국 유학의 ‘천인무간(天人無間)’사상을 계승하여 ‘천아무간(天鰲無間)’으로 강화시켰다. ‘천아무간’은 하늘과 내가 사이가 없이 하나라는 것이다. 내가 하늘과 하나라는 것을 전제한다면 현재 하늘과 하나가 되지 못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이 너무 안타까울 것이다. 그렇게 되면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지 않고는 전될 수 없

177) 윤이흠, “한국 고대종교 연구의 방법론적 문제,” *종교와 문화* 7 (2001): 44.

178) 신봉주, “맹자의 수양론 연구”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2011), 7.

기 때문에 수양을 통해 이를 회복하려고 했다.¹⁷⁹⁾

따라서 한국의 철학적 성격은 실천적이라는 것이다. 조선시대의 '실학'의 형성과도 상통하는 부분이 있지만 율곡 이이(李珥)에 의해 지치주의(至治主義)운동 이론이 완성되었다.¹⁸⁰⁾ 이러한 실질적인 노력을 통해 교육이 강조되었고, 향약(鄉約)같은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방법들이 모색되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이러한 수양의 정신이 계승될 필요가 있다. 무분별한 프로그램 도입하여 재정과 시간을 낭비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된다. 심지어 이로 인해 교회가 분열되기도 한다. 그것은 보다 실질적인 것들을 만들어 내지 않고 만들어진 것을 의존했기 때문이다. 수양철학을 통해 목회자들의 자세를 점검할 필요가 있다. 다른 어느 때보다 목회자의 윤리가 강조되고 있는 시점에서 목회자들은 수양을 통해 도덕성을 회복해야 한다. 정직함은 기록의 가장 강력한 요소가 되며 정직은 성도들의 신뢰를 얻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복음을 받아들이기에 유리한 좋은 요소들을 많이 갖추고 있었다. 근면 성실했기에 한국의 기독교는 세계에서 찾아볼 수 없는 부지런함이 돋보였다. 한국적인 교회의 모습에서 한국인들의 장점들을 발견할 수 있지만 또한 왜곡되고 변질된 부분들도 많이 있다. 오히려 긍정적인 요소들을 수용하지 못하고 부정적인 요소들이 혼합되어 나타나는 예전, 그리고 신앙생활의 모습이 교회 안에서 보이고 있다. 지금의 시점에서 크게는 예배갱신이라는 목표아래 이러한 부분들을 점검하고 새로운 가치를 찾아내고 적용해서 정체의 늪에서 벗어나 다시 새롭게 도약하는 한국교회를 기대해 본다. 이에 5장에서는 한국 전통 사상의 핵심가치들을 목회 사역에 잘 적용하여 가장 한국적이면서도 복음적인 목회사역을 위한 여러 방안들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179) 이기동, *한마음의 나라 한국*, 191.

180) 至治主義는 율곡에 앞서 중종때 정암 조광조(趙光祖) 선생에 의해 시작되었다. 至治는 '지극히 잘 다스려진 세상'이란 말이다.

제 5 장

한국 전통사상의 목회적 적용

이번 장에서는 지금까지 분석한 한국 전통 사상의 특징들을 중심으로 목회 사역과 예배 갱신을 위해 어떻게 적용해 볼 것인지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특히 한국의 전통 사상 중 복음에 합당한 유익한 것들을 중심으로 그것들이 실제 목회사역 현장 가운데, 교회 내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으며 프로그램화 될 수 있는지의 토대를 마련해 보고자 한다.

제 1 절 한국적 정서를 고려한 목회

1. 인(仁)문화권의 특성을 살린 한마음 공동체

가. 향내형(向內形) 교인들의 특징

교회 안에서 교인들의 성향을 분석한다면 지역에 따라서, 연령에 따라서, 성별에 따라서, 학력에 따라서, 생업에 종사하는 업종에 따라서도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하지만 목회 현장 가운데 모든 종류의 사람들을 일일이 분석할 수도 없고 그들의 요구를 다 들어 줄 수도 없다. 따라서 공통된 특성을 파악하고 이를 고려하여 목회사역을 진행해야 가장 효율적일 것이다. 그러고 나서 특수한 상황들에 대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오랜 역사가운데 흘러온,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쉽게 발견할 수 있는 교인들의 공통분모를 분석하고 나름의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인(仁)문화는 향내형(向內形)의 사람들이 만들어낸 문화를 일컫는다.¹⁸¹⁾ 향외형의

181) 앞장에서 인(仁)문화의 특징에 대해 서술 했는데 지(知)문화는 향외형(向外形)으로, 인

사람들과 향내형의 사람들은 사상과 철학에서부터 삶의 방식에 이르기까지 많은 부분에서 매우 다른 모습이다. 향외형의 대표적인 사람들은 일본인들이고 향내형의 대표적인 사람들은 한국인들이다. 향내형에게 나타나는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¹⁸²⁾

첫째, 이중구조이다. 내가 하나가 아니라 둘이라는 것이다. 전통적으로는 한국인들에게 나타나는 내세관적인 특징이라고도 할 수 있다. 즉 현세의 나와 내세의 나를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이다. 심지어 신앙을 가진 성도들에게도 이와 같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한국인들이 즐겨 부르는 호칭 가운데 ‘사장님’, ‘선생님’ 같이 높여 부르는 경우가 많다. 그렇게 불러주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이다. 교회 안에서 전교인의 직분자화 되어가는 것도 이러한 영향이라 볼 수 있다. 자신의 현 처지에 비해 더 높임을 받고자 하는 것은 인내천 사상이 깃들여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자신은 하늘같은 존귀한 존재라는 인식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존대해 주면 그만큼 관계가 쉬워지고 마음 문을 쉽게 열기도 한다.¹⁸³⁾

둘째, 중심이 되고 싶어 한다. 향외형의 사람들은 현재의 자신을 곧 자기 자신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현재의 상태에 불만을 가지지 않는다. 하지만 향내형의 사람들은 어디를 가더라도 중심이 되고자 한다. 교회 내에서도 리더가 되기 위해 경쟁을 하고 심지어 싸우기도 한다. 한국에 유난히 신학생들이 많은 이유의 부정적인 면의 이유가 되기도 한다. 남의 밑에서 일하기보다는 작은 회사를 차려서라도 사장이 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유난히 개척교회가 많은 이유 중 하나를 이런 관점으로 볼 수도 있다. 그렇기에 교회 안에서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내게 주어진 직분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격려해야 한다. 그럴 때 성도들은 보람을 느끼고 보다 더 다양한 일에 헌신될 수 있을 것이다.¹⁸⁴⁾

셋째, 현실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불만이 많다. 유난히 한국인들에게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병이 있는데 바로 공주병과 왕자병이다. 어릴 때는 부모에게서 왕자대

(仁)문화는 향내형(向內形)으로 분류를 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다음 책을 참고하면 된다. 이기동, *한마음의 나라 한국*, 16-30.

182) 향내형의 특징에 관한 분류는 이기동 교수의 서적을 참고하였다. 여기에 한국교회 성도들의 특성을 찾아 적용하여 보았다.

183) 이기동, *꿈이 성공하는 나라* (서울: 동인서원, 2005), 18-27.

184) Ibid., 27-28.

접과 공주 대접을 받고 자라지만 사회에 나와서는 그런 대접을 받기 어렵다. 그럴 때 큰 충격을 받게 되고 현실에 적응하지 못하고 방황하게 된다. 이는 특히 청년들에게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현상이다. 이를 다른 말도 화병(火病)이라 할 수 있는데 이는 자신이 기대하는 대우를 받지 못해 생기는 병이다. 그렇기에 불만이 많다. 남자들은 이를 술로 해결하려고 하고, 여자들 또한 신세 한탄을 하게 된다.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는 또 하나의 현상은 자기 우월감을 갖기 쉽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현실 가운데 교통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있지만 자기에게만은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 이라는 안이한 생각을 쉽게 한다. 한국인들이 쉽게 도박에 빠지는 것도 남은 잃어도 자기는 딸 것 이라는 착각을 하기 때문이다. 우리의 교인들에게도 바로 이러한 정서가 바탕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¹⁸⁵⁾

넷째, 의리(義理)를 중시한다. 향내형 사람들은 남과 내가 다르지 않고 하나라는 의식을 갖고 있다. 그것이 바로 의리로 나타난다. 죽어도 같이 죽고 살아도 같이 살라는 것이 의리의 기본정신이다. 그렇다 보니 경쟁구조에서는 살기 힘들어 하고 삶의 의욕을 상실하게 된다. 교회 내에서도 행사를 진행할 때 경쟁이 붙게 되면 분위기가 가라앉는 것을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의리 정신이 잘 발휘될 수 있도록 경쟁 구도가 아니라 화합할 수 있는 장을 항상 만들어야 한다.¹⁸⁶⁾

다섯째, ‘함께 살기’를 좋아한다. 우리의 전통 가옥 구조를 살펴봐도 대가족 중심으로 지어졌다. 또한 한 고을에 같은 성씨를 가진 친척들이 함께 모여 살았다. 한국인들은 전통적으로 남과 나를 다른 사람이라고 여기지 않았다. 타인에 대한 불안한 마음을 가지지 않았다. 그렇기에 용서를 잘한다. 미워하기 보다는 용서하는 것이 참 미덕이라 여긴다. 이 또한 ‘함께 살기’에서 비롯된 것이다.

여섯째, 창의력이 넘친다. 한국인들은 이성보다는 감성이 발달했다. 지금까지는 감성보다는 이성이 지배하는 사회였다. 그렇기에 국제사회에서도 주목받지 못했다. 하지만 21세기는 서서히 이성보다는 감성이 중요시되는 시대가 되었다.¹⁸⁷⁾ 우수한 디자인이나 창의력은 이성으로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감성을 통해서 느낌으로 떠오르는

185) 이기동, *꿈이 성공하는 나라*, 30.

186) Ibid., 19.

187) Ibid., 53.

것이기 때문이다. 그동안 한국적인 색깔을 찾지 못했는데 이제는 서서히 주목받고 있다. 정작 한국인들이 자신들의 장점을 잘 살리지 못하는 안타까운 실정이다. 목회 사역도 마찬가지라 생각한다. 성도들의 창의력을 살릴 수 있는 소그룹사역을 활성화해야 한다. 단지 사역으로 묶을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특기를 잘 살릴 수 있는 다양한 장르의 소그룹 모임이 활성화 되어야 한다. 그렇게 되면 그들 스스로가 교회에 유익한 일들을 창의적으로 만들어 낼 것이다.

이러한 특징들을 종합해보면 향내형 성향을 가진 교인들에게 나타나는 가장 큰 특징은 바로 ‘함께 살기’이다. 그렇기에 용서의 마음을 지니고 있다. 미워하기 보다는 용서하는 것이 미덕이라고 생각한다. 이는 성경에서 용서하라고 하신 말씀과도 상통하는 부분이다.¹⁸⁸⁾ 분명 한국인들에게는 복음에 합당한 유익한 심성을 지니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약자를 동정하는 마음을 지니고 있다. 남과 내가 하나라고 여기는 한국인들에게는 약한 사람을 보면 돕고 싶어 한다. 또한 창의력이 넘치는 것도 특징으로 들 수 있다. 이성보다 감성이 발달한 한국인들에게는 음악, 디자인 등 창의력이 요구되는 여러 분야에서 인정을 받고 있다. 이제는 교회 안에서도 바로 이러한 교인들의 창의력이 발휘되는 사역들을 만들어 가야 한다. 이는 뒤에서 다시 설명하고자 한다.

나. 한마음 목회 한마음 공동체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한국교회 교인들에게는 보편적인 정서가 형성되어 있다.¹⁸⁹⁾ 이러한 정서를 간과하고 좋아 보이는 시스템을 무분별하게 도입함으로 말미암아 혼란을 초래하게 된다. 즉 우리 교인들을 하나로 묶고 모두가 주체적으로 교회사역에 동참하는 수준에 까지 이르러야 한다. 이것이 또한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모습이라 생각한다.

그렇기에 오늘날 한국교회 목회사역의 방향은 ‘한마음 목회 한마음 공동체’¹⁹⁰⁾가

188)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일곱 번뿐 아니라 일곱 번을 일흔 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마 18:22)

189) 인(仁)문화권에 속한 한국교회 교인들에게는 앞서 살펴본 향내형의 특징들을 공통적으로 발견할 수 있다. 이를 보편적인 정서라 표현하였다.

190) 한국 전통사상 중 복음에 합당한 가치를 살린 목회사역이라는 관점에서 ‘한마음 목회,

되어야 한다. 이는 우리 전통의 가치를 살리면서도 가장 성경적인 교회의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다.¹⁹¹⁾ 원래 나와 남을 다르다 여기지 않고 하나로 여기는 전통적인 사상이 있기에 한마음으로 묶을 수 있는 요소들을 목회사역에 접목시켜야 한다.

따라서 교회 행사에도 전체가 함께 모이고 각각의 역할을 나누어 봉사하게 하는 것이 한국 정서에 맞다. 만약 교회 규모가 너무 커서 그렇게 하기가 힘들어진다면 분립을 심각하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 가장 한국적인 교회는 바로 '모두가 한마음으로 모여서 예배드리고 유익한 일에 한마음으로 섬길 수 있는 교회'라 정의 할 수 있다.

다. 흥(興)을 돋워 신바람을 일으키는 목회

교회 안에서 여전도회 바자회 같은 행사를 할 때 모두가 각자의 역할에 충실하며 즐겁게 섬기는 모습을 보게 된다. 하지만 직분을 맡고 섬김의 일을 맡았지만 마지못해 억지로 하는 모습도 종종 보게 된다. 너무나 당연한 것이지만 즐겁게 일하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은 결과에 있어서 너무나 큰 차이가 나게 된다. 특히 한국적인 정서를 지닌 교인들은 흥이 나지 않으면 현저히 능률이 떨어지는 경향이 있다.¹⁹²⁾ 그렇기에 교인들이 주축이 되는 건강한 교회로 전환하기 위해 가장 전제되는 조건은 교인들이 따뜻한 마음을 갖는 것이다. 이는 사랑의 마음이라 할 수 있다. 그러면 교인들은 나의 주장 보다 다른 이들의 말을 듣고 수용하려는 자세가 된다. 그럴 때 성도들은 자연스레 신바람이 나게 된다. 하지만 이 또한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지속적인 목회적 교육이 이루어 져야 한다. 이를 위해 몇 가지를 제안해 보고자 한다.

첫째, '섬김이의 날'을 정해 격려하는 행사를 갖는다.¹⁹³⁾ 이 날은 누구보다도 교회를 위해 섬기는 이들을 격려하고 장려하는 날이다. 하루 또는 1박 2일의 일정을 잡아서 즐거운 레크리에이션, 푸짐한 먹을거리, 특별집회 및 기도회, 교제와 나눔의 시간을 통해 이들의 고충을 들어주고 또한 건의를 받아 소통하며 하나 되는 의미 있는 행

한마음 공동체, 한마음 예배'를 표방하고 이를 사용하고자 한다.

191) '성경적인 교회의 모습'이라고 한 것은 사도행전에 나타난 초대교회의 공동체성을 근거로 들 수 있다. 성경적 근거에 관해서는 계속해서 설명할 것이다.

192) 이기동, *한마음의 나라* 한국, 108-113.

193) 섬김이의 대상은 교사, 봉사자, 각부서의 직분자등이다. 하지만 행사의 대상에 있어서는 특별히 구분하지 않는 것이 좋다.

사이다. 대상은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교사, 각 부서의 헌신자들, 봉사자들 전부가 해당된다. 이날은 또한 ‘기부 행사’를 갖는다.¹⁹⁴⁾ 여전도회가 주최가 되어 미리 광고하여 기증 물품을 받고 유익한 목적을 가지고 바자회를 개최한다. 한국교회에서 바자회는 활성화 되었지만 기부에 대한 인식은 아직까지 그리 크지 않다. 따라서 기부의 날을 정해 온 교인, 그리고 지역 주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장을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해 먹거리도 준비하고 작은 공연도 준비한다면 더욱 풍요로운 행사가 될 것이다. 지역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분명한 명분을 갖고 실시하는 것이 좋다. 구체적으로 어떤 불우 이웃을 도울 것인지, 어떤 단체에 기부를 할 것인지, 어떤 나라 어떤 지역의 빈민들을 도울 것인지 등 분명하게 알려주고 신뢰를 얻어야 한다. 또한 어떻게 전달이 되었는지도 분명히 확인 시켜야 할 것이다.

둘째, ‘한마음 홈 커밍데이’를 갖는다. 그동안 교회에서 전교인 수련회, 전교인 체육대회, 전교인 단합대회 등 많은 행사를 가져왔다. 물론 이런 행사들은 유익한 것들이다. 여기에 조금 더 의미를 부여하여 준비하는 것이 바로 한마음 홈 커밍데이다. 온 교인들 뿐 아니라 교회를 다녀간 분들에게도 연락하여 모두가 한자리에 모일 수 있는 시간을 갖는다. 이를 위해 충분한 시간을 갖고 명단 및 주소를 파악하여 홍보해야 한다. 이 행사가 갖는 의미는 우리 교인이라는 좁은 시각에서 주님 안에 모두가 하나라는 넓은 시각을 갖게 하며 교인들이 따뜻한 마음을 가지게 된다. 그러면 자연스레 교회는 활기를 띠게 된다.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여 모일 수도 있지만 일 년에 한번정도 창립기념주일 같은 때에 교회를 거쳐 간 교역자들, 교인들, 지인들을 초청하여 행사를 가지면 그 의미가 더욱 살아날 것이다.

이밖에도 교인들의 흥을 돋워 신바람을 일으킬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얼마든지 교회 실정에 맞추어 단계적으로 시행해 나갈 수 있다. 이에 대한 인식을 갖고

194) 기부와 구제에 있어서 좋은 본을 보이고 있는 교회로 서울 광열교회(조현삼 목사 시무)를 들 수 있다. 이 교회의 10대 비전을 소개하면, ①세계에서 전도비를 가장 많이 지출하는 교회, ②국내외에 100개 이상의 교회를 설립하는 교회, ③100명 이상의 선교사를 지원하는 교회, ④1천만장 이상의 전도지를 전하는 교회, ⑤우리나라에서 구제비를 가장 많이 지출하는 교회, ⑥100명 이상의 고아와 과부의 생활비를 지원하는 교회, ⑦1만 가정을 천국의 모형으로 만드는 교회, ⑧우리나라에서 예수님 닮은 인재를 가장 많이 양육하는 교회, ⑨100명 이상의 목회자를 양성하는 교회, ⑩100명 이상의 사회 각 분야 최고지도자를 양성하는 교회이다.

늘 교육하며 고민해 나간다면 교회는 활기차고 늘 즐거운 일들로 분주한 교회가 될 것이다.

2. 공통분모로 묶은 소그룹 활성화

가. 개성이 뚜렷한 교인들을 하나로 묶기

앞서 한국교회 성도들은 자기가 속한 그룹 내에서 중심이 되고자 하는 성향이 있다고 했다. 그것은 자신의 존재가치를 인정받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이다. 이미 전통적으로 한국에서는 가정을 중심으로 서당교육과 향교 등에서 이루어진 소그룹 형태의 교육이 활성화 되어 있었다. 물론 교육기관으로서의 소그룹이었다. 또한 한국교회 교인들은 개성이 넘친다는 것도 이미 앞서 말한바 있다. 이를 목회 사역에 적용할 때 먼저 고려되어야 할 것은 공통분모로 묶는 것이다. 일부 교회와 기독교 단체에서 은사세미나를 통해 자신의 은사를 발견하고 그에 맞는 적절한 곳에 들어가 섬김의 일을 감당하는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하지만 여기에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자발적이지 못하다는 것이다. 한국인들의 특징 중 하나는 자발적으로 선택한 일에 흥이 나고 신바람이 난다는 것이다.¹⁹⁵⁾ 따라서 교회 내에서 사역 박람회 같은 행사를 통해 스스로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라 본다. 그리고 자신의 개성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줘야 한다. 처음부터 무조건 교회사역과 관련지어 강요되기 보다는 교회 안에서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이들이 모이고 그 안에서 신앙의 교제가 이뤄지고 창의력을 발휘하여 섬김의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끄는 것이다. 예를 들어 그룹에 관심이 있는 이들은 그러한 공통분모를 중심으로 모여 하나의 소그룹을 형성하고 그 안에서 교제하고 구성원들이 개성을 살릴 수 있도록 장을 열어주는 것이다. 어차피 교회라는 큰 울타리 안에서 공통 분모로 묶어 주는 것이기에 염려 보다는 마음껏 장려해 주고 스스로 하여금 섬김의 일을 찾아 나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는 것이다. 교회 안에서 성도를 섬기는 일에, 지역사회를 위해 봉사하는 일에, 선교의 일에 헌신될 수 있도록 격려하고 이끌어 주는 것이다. 이런 공통분모로 묶을 수 있는 장르로는 예술, 스포츠, 문학, 요리, 미용, 건강, 교육, 의료등을 들 수 있으

195) 이기동, *한마음의 나라 한국*, 112-113.

며 점차 교회 사정에 맞춰 확대해 나갈 수 있다.

이러한 한국적인 정서위에 소그룹 사역을 진행해 나간다면 교회는 지속적으로 성장하게 될 것이라 확신한다. 미국에서 소그룹 사역으로 유명한 윌로우 크릭교회는 소그룹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¹⁹⁶⁾ 첫째는 사랑이다. 사랑은 소그룹 생활에서 여러 가지 형태로 표현된다. 하나님께 대한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 기도와 예배와 찬양을 드린다. 둘째는 그리스도에 대해,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삶을 향해 가지고 계시는 뜻에 대해 배우는 것은 소그룹의 생활에서 중요한 요소이다. 셋째는 섬김이다. 섬기며 선한 일을 하는 것은 건전하고 역동적인 소그룹 생활의 한 부분이다. 넷째, 전도이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을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것을 말한다.

무엇보다 소그룹 사역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헌신되어진 사역자들을 더욱 잘 훈련하고 그 사역자들을 통하여 새로운 헌신자들이 배출되도록 하는 재생산의 원리를 이루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¹⁹⁷⁾

나. 선비정신과 소그룹을 통한 양육

현재 한국 교회에서는 다양한 양육 시스템이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다. 대표적인 것으로는 셀교회 시스템인 G12,¹⁹⁸⁾ D12,¹⁹⁹⁾ C12,²⁰⁰⁾ DNA,²⁰¹⁾ 알파코스²⁰²⁾ 제자훈

196) Bill Donahue, 윌로우크릭 교회 소그룹 이야기 (*Leading Life-Changing Small Groups*), 송영선 역 (서울: 도서출판다모데, 2002), 100-101.

197) “또 내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하라 저희가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딤후 2:2)

198) G12(The Government of 12)는 콜롬비아 보고타에 있는 ICM(International Charismatic Mission)의 담임목사인 세자르 카스텔라노스(Cesar Castellanos) 목사에 의해서 시작된 셀교회 모델이다. 예수님과 같이 12명을 제자삼고 그 제자들이 또 다른 12명을 제자 삼는 일을 반복하는 것을 모델로 삼고 있다.

199) 부산 풍성한 교회(김성곤 목사)에서 시작되었으며 한국형 셀교회의 대표적 모델이라 할 수 있다. 만인 제사장인 평신도들이 자신의 은사를 적극적으로 개발해 주도적으로 사역하는 교회를 지향하고,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셀’ 교회를 표방하고 있다.

200) 세계로 교회(정병관 목사)에서 기존의 셀 모델의 결점을 보완한 셀교회를 만들고자 시작되었다. C12 교회는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초청하고 구원하며 삶을 말씀으로 성화시키기 위해 존재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201) DNA정착양육시스템(Discipline for Nurture and Assurance system)은 목동제자교회(정삼지 목사)에서 시작되었으며 “사람을 세우고, 그 사람으로 교회를 세우게 하며, 그렇게 세

련²⁰³⁾ 등을 들 수 있다. 이 밖에도 많은 양육 시스템을 교회들이 도입하여 적용하고 있다. 하지만 성공하는 교회보다 실패하는 교회들이 훨씬 많은 것을 보게 된다.²⁰⁴⁾ 그것은 바로 개교회의 실정에 맞게 적용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한 우리의 정서에 맞는 양육시스템으로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나마 제자훈련을 하는 교회는 조금 더 정착률이 높은 것을 보게 된다.²⁰⁵⁾ 그 이유는 제자훈련은 우리의 전통 방식과 흡사한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 제자훈련의 모티브는 우리나라의 서당교육이라 볼 수 있다. 서당에서는 이미 훈장과 훈장을 보조하는 리더가 세워졌고 소규모 그룹으로 교육이 진행되었다. 경전을 암송하고 그것을 점집하고 삶의 나눔이 이루어진 곳이 바로 서당이다.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오늘날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양육 시스템이 우리의 정서를 고려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알파코스이다. 알파코스가 가장 비난 받는 이유는 전도대상자를 초청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예산을 들인다는 것인데 그러한 만찬 형태는 사실 우리의 전통적인 방식과는 조금 거리가 있다.²⁰⁶⁾ 따라서 한국적인 정서가 반영된 소그룹 양육 시스템에 반드시 들어가야 할 요소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랑으로 양육해야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전통적으로는 효와 우애를 바탕으로 한 교육이 진행되었다. 따라서 교회 내 양육 과정 속에서도 이러한 요소들이 전제되어야 한다. 주일학교 교육은 당연하거니와 장년교육에 있어서도 사랑이 바탕이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짜야한다. 그렇게 될 때 마음을 열게 되고 무엇보다 정성을 쏟게 된다. 형식적이고 수동적인 모습에서 적극적인 모습으로 참여하게 될 것이다.

워진 교회로 세상을 변화시키게 한다”는 목회철학을 실현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202) 알파코스는 준비된 기존 신자들이 전도대상자들을 위한 11주간의 특별모임에 초대하여 식사와 교제 나눔의 시간을 가짐으로써 교회 공동체의 일원이 되게 하는 과정이다.

203) 제자훈련은 사랑의 교회(고 옥한흠 목사)에서 시작되었는데 한 사람의 평신도를 주님의 제자로 만드는데 그 목적이 있다. 총 32주의 과정으로 단계별로 진행이 된다.

204) 전정숙, “셀 운동에 대한 교회론적 고찰” (석사학위논문, 장로회신학대학교 목회전문대학원, 2012), 75-76.

205) 김대성, “제자훈련을 통한 교회 갱신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장로회신학대학교 목회전문대학원, 2010), 14.

206) Ibid., 24.

둘째, 입지(立志)를 세우도록 해야 한다. 이는 교회 양육에서 너무나 중요한 요소이다. 양육을 함에 있어서 단순한 성경적 지식을 주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신앙인격 함양을 그 바탕에 뒀야 한다. 신앙의 성숙을 통해 어떠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인내하며 견딜 수 있는 제자로 양육되어야 한다. 예수님의 제자로 양육하기 위한 출발점은 분명한 신앙의 입지를 세우는 것임을 잊어서는 안 된다.²⁰⁷⁾

셋째, 끝까지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실제 교회에서 제자훈련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것은 인내하는 것이다. 하나의 전통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해서는 제자훈련 사역이 자리를 잡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했던 것처럼 성실한 자세로 인내하는 것이 필요하다.

넷째, 선비정신이다. 선비정신의 핵심은 의리사상(義理思想)이다.²⁰⁸⁾ 이를 적용하면 흔들림 없는 신앙의 지조를 가지게 된다. 세상에서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말씀에 기준하여 살아가기 위해 부단히 애쓰는 자로 가르쳐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리더의 덕스러운 모본과 구성원들 간의 신의(信義) 또한 중요한 요소가 된다.

또 한 가지 교회 안에서 소그룹 양육이 잘 정착되고 열매를 맺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안방의 환경이 갖추어져야 한다. 우리의 전통 가옥 구조에서 안방이 제일 크다. 그 이유는 온 가족 친지들이 모두 한꺼번에 모일 수 있는 크기가 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안방의 환경이 갖추어지면 정적인 한국교회 교인들은 마음이 편안해 지게 된다.²⁰⁹⁾ 그리고 나서 앞에서 소개한 몇 가지 요소들을 구체적으로 고려해서 적용해 본다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 것이다.

3. 수양(修養)을 위한 수양회(修養會)

한국에 있는 대부분의 교회들은 일 년에 한번 이상 수련회를 갖는다. 주일학교에서는 여름 성경학교, 청소년 수련회, 청·장년 수련회를 갖는다. 얼마 전까지는 수양회라는 말을 혼용해서 쓰다가 요즘은 거의 수련회로 통일이 되었다. 물론 두 단어의 의

207) 이러한 요소가 잘 활용된 예가 새들백 교회의 ‘목적이 이끄는 삶’ 양육이다. 양육을 통해서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208) 유학주임교수실, *유학사상*, 67.

209) 여기서 ‘안방 환경’은 양육보다는 교제를 위한 제안임을 밝혀둔다. 소그룹 모임의 형식에 있어서 교육은 기존의 방식인 테이블, 교제는 바닥이 효율적이라 본다.

미 차는 있지만 거의 같은 뜻으로 쓰이고 있다. 처음 수양회라 이름 하였을 때는 그 의미 안에 전통적인 요소를 포함시켰다. 바로 수양(修養)을 위한 수양회를 갖기 위함이었다. 물론 전통적인 수양의 방법 보다는 그 정신만 계승하고 교회 안에서는 영적 충전, 교육, 단합과 교제 등을 중심으로 진행되어 왔다.²¹⁰⁾ 그런데 최근에 들어서는 교제중심으로 치우치는 경향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직장 생활을 하는 대부분의 교인들은 교회에서 갖는 수련회만큼은 예배중심이나 신앙적인 성격 보다는 그냥 편안하게 놀다가 갈 수 있기를 바란다. 왜냐하면 바쁜 일상가운데 육신의 피로를 풀 수 있는 쉼을 원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것은 심각한 일이다. 원래 교회가 가지고자 했던 수양의 의미를 다시 살려야 한다.

원래 수양이란 '도를 닦는 것'을 말한다. 불교의 선승(禪僧)들이 장기간 참선하는 것, 도가적 수양법에 따라 기공 훈련을 하는 것, 성리학적 수양법에 따라 경공부(敬工夫)를 하는 것 등이 대표적인 우리나라 전통의 수양법이다.²¹¹⁾ 우리 기독교에서는 기도원에 들어가 작정 기도를 하는 것도 수양의 한 형태라 볼 수 있다. 전통적인 맥락으로 보면, 한국인들은 본질적으로 도를 닦고 싶어 하는 기질이 있다. 그렇기에 이렇게 다양한 수양법이 발달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특성을 이해할 때 교회에서도 이를 살려 적용하면 교인들을 양육함에 있어 큰 유익이 있다. 이에 교회에서 적용해 볼 수 있는 전통적인 수양의 몇 가지 방법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첫째, 천아무간(天我無間) 정신의 강화를 통한 정체성의 확립이다. 이는 퇴계 이황 선생이 천인무간(天人無間) 사상을 계승하여 발전시킨 것으로 하늘과 사람은 사이가 없이 하나라는 것이다.²¹²⁾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결국 돌아갈 곳은 하늘나라이다.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두가 한 형제요 자매인 것이다. 모두가 그러한 의식을 갖게 되면 서로 미워할 일도 상처 주는 일도 없을 것이다. 서로 사랑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몸소 실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다.²¹³⁾ 그렇기에 이 퇴계의 수양철학 사상은 목양사역에 있어서도 유익하게 적용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창조

210) 정태일, "수양회의 교육적인 의의," *교육교회* 83 (1982): 2.

211) 유성태, "맹자·장자의 수양론 비교연구" (박사학위논문, 원광대학교 일반대학원, 1990), 18.

212) 이기동, *한마음의 나라 한국*, 24-25.

213)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 13:34)

하신 선한 본래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기독교의 수양론이 될 것이다. 동양사상의 용어를 빌자면 이러한 수준이 되는 것이 바로 인(仁)을 얻는 경지에 이르는 것이고 인(仁)을 얻게 되면 남의 아픔이 자신의 아픔처럼 느껴지게 되는 것이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것들은 변하지 않는 마음 즉 진리를 깨닫는 것이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듣고 묵상해야 한다. 천아무간의 수양을 위해 가장 기본이 되어야 할 요소는 바로 말씀묵상이다. 가능하다면 우리의 전통의 학습방법인 암송을 곁들이는 것이 좋다. 또한 교회에서는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 끊임없이 이를 각성시키고 교육해야 한다.

둘째, 내성외왕(內聖外王)²¹⁴⁾을 통한 믿음의 본이 되는 것이다. 원래의 의미는 ‘성인이 왕이 되어야 한다’라는 뜻인데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성숙한 신앙인이 본을 보여서 그렇지 못한 사람을 교육하고 끌어주는 것이 성도들을 위한 수양의 기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모본이 되는 성숙한 자가 리더가 되고 목회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이는 성경에도 근거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다.²¹⁵⁾ 전통적으로 율곡 이이는 왕의 수양을 돕기 위해 ‘성학집요(聖學輯要)’를 저술하기 까지 했다. 오늘날 목회자들을 위한 지침을 담은 모본이 만들어 질 필요가 있음을 느낀다. 특히나 목회 윤리가 강력하게 요구되고 있는 이 시점에 먼저 목회자들을 위한 수양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렇듯 내성외왕의 수양을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는 믿음의 본이 되는 자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리더로 잘 세우는 것이다. 또한 그들을 잘 교육해서 교만하지 않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잘 섬길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는 것이다. 교회는 또한 신앙생활의 지침을 만들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럴 때 교회는 정체되지 않고 계속해서 성장해 나갈 수 있다.

이러한 수양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으로는 앞서 언급했지만 먼저 말씀묵

214) 내성외왕(內聖外王) 사상은 율곡 이이의 지치주의(至治主義)에서 비롯되었다. 지치(至治)란 ‘지극히 잘 다스려진 세상’을 의미한다. 지치의 이상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그 사회의 구성원들이 모두 하늘같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그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먼저 성인이 된 사람이 본을 보이는 것이다. 그래서 그 수준에 미치지 못한 사람들을 가르치는 것이다. 내성외왕은 바로 이러한 성인이 왕이 되어야 한다는 뜻이다.

215)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딤후 4:12-13)

상을 들 수 있다. 사람은 변하지 않는 마음을 가지게 되면 마음의 평안과 행복을 느끼며 살 수 있는데 그 변하지 않는 것은 바로 진리이다.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되면 행복해 질 수 있는 것이다.²¹⁶⁾ 교회에서 주입식의 성경 공부가 아니라 말씀을 스스로 묵상할 수 있는 교육을 지속적으로 해야 한다.²¹⁷⁾ 수련회를 가셔도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내려놓음의 훈련과 영적 각성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또한 전통적인 방식인 말씀 암송도 강조되어야 한다. 우리나라 초대 교인들의 열정도 바로 말씀암송에서 비롯되었다. 이와 함께 효를 실천하고, 예를 따르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신앙의 양심을 따르고, 경건한 마음을 가지기 위해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

4. 주인의식 강화를 통한 사역 분배

한국인들에게서 나타나는 공통된 특징 중 하나는 목소리가 크다는 것이다.²¹⁸⁾ 이는 교회 안에서도 쉽게 찾아 볼 수 있다. 회의를 하면 조용히 넘어가는 경우가 드물다. 심지어 싸움이 일어나기도 한다. 저마다의 목소리가 크기 때문이다. 이렇게 자기 주장이 강한 이유는 자신이 하늘과 같다는 천인일체(天人一體)사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양보하지 않고 끝까지 고집한다. 그러다가 자기 뜻대로 되지 않으면 몹시 분노한다. 그렇기에 이러한 특성을 이해하고 교회 안에서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한국교회 교인들은 유난히 주인의식이 강하다. 이는 분명히 긍정적인 요소이지만 왜곡되면 교회 안에서 많은 문제를 야기하기도 한다. 이로 인해 교회가 분열되고 심지어 목회자가 목회를 그만두기까지 한다. 교회의 주인은 예수그리스도시다. 하지만 모두가 터줏대감이 되어 교회의 주인노릇을 하고 있다. 이는 분명히 왜곡된 부분이다.

216)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요 8:32)

217) QT를 잘 실천하는 교회로 미국 한인교회인 ‘남가주 코너스톤 교회’(이종용 목사 시무)를 들 수 있다. 이 교회는 어린이에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말씀묵상을 몸소 실천하고 있다. 자세한 소개는 다음 인터넷 기사를 참고하면 된다. 토마스맹, “QT하지 않으면 못 버티는’ 남가주 코너스톤교회,” *크리스천투데이*, 2012년 9월 22일자, 선교면. 2012년 10월 인용. Online: <http://www.christiantoday.co.kr/view.htm?id=258312>

218) 이기동, *한마음의 나라 한국*, 172-173.

이렇게 된 원인에는 먼저 목회자가 교인들의 성향을 잘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권위로 누르려고만 하다 보니 이러한 부작용이 생겨난 것이다. 또 다른 이유는 목회자가 교인들의 주인의식을 잘 살려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러다 보니 충돌하기도 하고 공동체를 쉽게 떠나기도 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목회 사역에서 중요한 요소 중 하나는 바로 건강한 주인의식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는 이미 셀교회등에서 ‘만인제사장’ 사상으로 설명되어 지고 있는 것과도 상통하는 부분이다.²¹⁹⁾ 다만 주인의식을 강화함에 있어서 철저히 성경적인 근거를 통해야 한다. 그래야 정확한 위치를 잡아 줄 수 있고 서로간의 분쟁이 생기지 않는다. 이를 위해 제시하는 세 가지의 요소는 다음과 같다.

첫째, 칭찬과 격려를 통한 사역의 장려이다. 한국교회 교인들이 신바람 사역을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칭찬과 격려이다. 칭찬해주면 더 신바람이 나서 열심히 섬김의 일을 감당한다. 반대로 알아주지 않으면 토라지고 심한 경우 공동체를 떠나게 된다. 목회자는 자신의 양떼인 성도들을 항상 잘 살펴야 한다. 늘 성도들의 섬김을 칭찬해 주고 격려해 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실제로 크게 성장한 교회의 공통된 요소 중 하나가 격려라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²²⁰⁾

둘째, 자신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이를 위해 목회자는 메시지를 통해서 또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성도들이 자신의 가치를 발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하나님의 창조, 섭리, 그 가운데 삶을 살아가는 이유를 분명히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그럴 때 주인의식이 생겨난다.

셋째, 섬김을 통한 행복을 체험하게 해야 한다. 오늘날 대부분의 진보적인 교회들은 선교지향으로 그 방향을 설정하고 있다.²²¹⁾ 이는 성경적인 근거를 통한 것이기도 하지만 교인들이 분명한 목표의식을 갖게 하고 실제로 체험하게 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단기선교는 이제 흔한 연례행사가 되어 버렸다. 하지만 이것이 결코 부정적이진 않다. 어쩌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하나의 특징이라 볼 수 있다. 교인들이 교회

219) 전정숙, “셀 운동에 대한 교회론적 고찰” (석사학위논문, 장로회신학대학교 목회전문대학원, 2012), 44.

220) 전요섭, “기독교 상담에서 격려의 이해와 활용 방안,” *복음과 실천신학* 20 (2009): 94.

221) 사호행, “선교지향적 목회를 통한 교회성장 연구” (석사학위논문, 총신대학교 선교대학원, 2012), 5.

안에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행복감을 가지는 것은 바로 섬김의 보람을 느낄 때이다. 물론 성령체험도 중요한 요소이지만 실제 삶속에서 적용되어지고 건강한 신앙인으로 성장해 가기 위해서 장려되어야 할 것은 바로 섬김이다.

넷째, 성도들의 예전 참여를 확대시키는 것이다. 이미 많은 교회들이 그동안의 전통적인 격식을 파기하고 성도들을 예전에 참여시키고 있다.²²²⁾ 한국적인 정서를 감안할 때도 이는 바람직한 모습이라 할 수 있다. 특정 위치에 있는 직분자 계층만 예전에 참여할 수 있다는 의식을 가지거나, 수동적으로 참여하는 교인들 보다는 능동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성도들이 보다 큰 은혜의 감동을 받게 된다.²²³⁾ 설교만 있는 설교중심의 예배가 아니라 설교를 중심한 보다 다양한 방법으로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풍성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자신의 은사를 살리고 즐겁게 참여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 교회 안에서의 봉사, 예배 섬김, 지역봉사, 전문기관과의 연결을 통한 지속적인 지원 등 다양한 섬김의 일들에 참여하고 그로 인해 보람을 느끼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그럴 때 우리의 성도들은 행복하다고 말하게 될 것이다.

5. 한(恨)이 아닌 애(愛)로 맺힌 성도로 양육

흔히들 한국의 문화는 한(恨)의 문화라는 말을 한다. 앞에서도 밝혔지만 이는 틀린 말이다. 일제식민지, 6.25 전쟁 등을 겪었지만 결코 한(恨)이 많은 민족은 아니다. 오히려 풍류를 즐길 줄 아는 여유를 가진 민족이다.²²⁴⁾ 그렇기에 정(情)으로 얹혀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 왔고, 서로를 섬기는 것을 미덕으로 여기는 것이다. 이는 지금도 동일하다. 유독 한국교회의 여전도회가 활성화 되고 다양한 섬김의 일에 앞장서는 것도 이러한 연유이다. 그런데 이를 무시하고 한(恨)을 이야기하고 한 많은 민족이라 말한다면 결코 원활한 목회사역을 감당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한(恨)이 아닌 애(愛)로 맺힌 성도로 양육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 몇 가지 요소를 제안한다.

222) 전통적으로 대예배 기도를 장로가 하던 한국 장로교회가 이제는 일반 평신도까지 그 범위를 확대하여 참여시키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서울 온누리교회를 들 수 있다.

223) 박성덕, “전통교회 정체 극복과 활성화 방안” (D.Min. diss., Fuller Theological Seminary, 2010), 59-61.

224) 이기동, *한마음의 나라 한국*, 55.

첫째, 따뜻한 마음을 갖도록 한다.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나타나는 장점 중 제일 큰 장점은 따뜻한 마음이다. 흔히들 정이 많다고도 하고 정이 깊다고도 하는데 ‘끈끈한 정 때문에’ 또는 ‘못 말리는 정 때문에’ 라는 말로 한국인의 심정을 표현하기도 한다. 이러한 한국인의 정(情)문화는 한국인의 따뜻한 마음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²²⁵⁾ 이러한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너와 내가 하나라는 의식을 가져야 한다. 그러면 ‘나’보다 ‘너’에 무게가 실리게 된다. 교회 안에서 서로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너의 슬픔을 나의 슬픔으로 여기게 된다. 아픈 성도가 있으면 너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정서는 이미 한국 사람들에게는 형성되어 있다. 다만 의식을 하지 못해서 다르게 흘러가는 것이다. 한국인들의 마음 깊은 곳에 따뜻한 피가 흐르고 있다는 것은 한국인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장점이다. 이 따뜻한 마음을 인(仁)이라 말할 수 있다.

둘째, 귀가 큰 성도가 되게 한다. 목회자들이 겪는 어려움중 하나는 바로 성도들간의 의견차가 생기고 분쟁이 생기는 것이다. 마음이 따뜻한 성도들만 있다면 이런 일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마음이 따뜻한 성도들은 남의 의견을 자기의 의견처럼 존중하고 귀담아 듣기 때문이다. 남의 의견을 진지하게 듣고 인정하게 되면 말하기 보다는 늘 듣기에 치중하게 된다. 그렇게 되면 귀가 커진다. 귀가 큰 성도들이 있는 교회는 많은 아이디어가 쏟아져 나와도 그것들이 다양하게 잘 반영된다. 모든 지혜들이 결집되어 큰 능력을 발휘하게 된다. 이런 귀가 큰 성도들은 다른 사람의 입장으로 생각하고 배려하게 되어 늘 좋은 분위기가 형성된다. 이러한 귀가 큰 성도가 적분 자가 되고 중직을 맡게 된다면 그 교회는 점점 부흥하게 될 것이다. 또한 그들로부터 양육 받은 그룹 원들은 더 많은 성도를 품을 수 있는 그릇이 될 것이다.

셋째, 정죄가 아닌 보듬기가 필요하다. 대부분의 전통교회에서는 설교의 상당부분은 정죄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물론 정죄가 필요할 때가 있지만 정죄가 습관이 되어 버리면 안 된다.²²⁶⁾ 오히려 한국적인 정서에서는 역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인정받지 못하게 되면 스스로를 자책하고 공동체에서 쫓겨져 나가게 된다. 그렇게 받은

225) 이기동, “행복에 관하여,” 160.

226) 조남준, “교회성장을 위한 효과적인 설교” (석사학위논문, 충신대학교 선교대학원, 2004), 48.

내면의 상처는 쉽게 치료되지 않는다. 그렇기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개성이 강한 한국교회 성도들에게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은 정죄가 아닌 보듬기다. 교회 안에서 섬기고 있는 모든 일들에 대해 격려해 주어야 한다. 그리고 성도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어야 한다. 다른 무엇보다 여기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한다. 또한 그런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건물이 아닌 사람을 중시하는 교회사역이 필요한 것도 이러한 이유다. 성도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면 그들의 상처가 치유되고, 기도해 주면 힘을 얻고, 격려해 주면 섬김의 일에 더 열심을 내게 된다. 그럴 때 교회는 활기가 넘쳐나게 된다.

6. 삼강오륜(三綱五倫)을 접목한 인격·윤리교육

오늘날 목회자들과 성도들에게 강력하게 요구되는 것 중에 중요한 덕목은 바로 윤리관이다. 목회자들의 윤리문제가 사회문제로 까지 확대되자 목회 윤리가 더욱 중요시되고 있다. 사실 기독교 윤리가 가지고 있는 한계점은 이론이 현실에 구체적으로 적용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또 한 가지는 한국적인 정서의 시각이 아니라 서양 윤리와 접목된 기독교 윤리의 시각에서는 한계점이 있는 것이다.²²⁷⁾ 사실 이러한 사실은 인지하고 있었지만 한국의 전통 사상에 대한 중요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반영하려는 노력은 미비했다. 따라서 여기서 제시하고자 하는 것은 목회자를 비롯한 성도들의 윤리교육에 대한 부분이다. 사실 이 부분도 범위가 넓지만 삼강오륜이라는 동양사상의 핵심만을 소개함으로 중요성을 인지시키고 동기부여를 하고자 한다.

동양윤리의 가장 큰 특징이자 강점은 관계에 대한 부분을 중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삼강오륜 또한 남과의 관계에 있어서 지켜야 하는 다섯 가지의 예(禮)를 소개하고 있다. 그것은 부모와 자녀의 관계, 윗사람과 아랫사람의 관계, 남편과 아내의 관계, 나이 든 사람과 젊은이의 관계, 친구 사이의 관계이다. 사실 모든 사람과의 관계는 이 다섯 가지의 관계로 압축이 된다. 그 다섯 가지 행동 원리가 바로 유학에서 말하는 오륜(五倫)이다. 이 원리를 잘 적용하면 목회자와 성도들의 인격함양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첫째, 부자유친(父子有親)과 효(孝)이다. 부모에게 효도하는 것은 우리의 전통사

227) 김명환, “목회자 윤리 문제에 대한 기독교 윤리적 고찰” (석사학위논문, 한남대학교 대학원, 2006), 3-4.

상은 물론이거니와 성경에서도 강조되고 있는 중심사상이다.²²⁸⁾ 여기서도 중요한 요소는 바로 부모와 자녀가 하나라는 것이다. 친(親)은 하나가 됨을 말한다. 현대를 살아가는 많은 성도들이 고독감을 느끼고 외로움을 느낀다. 하지만 하나의 관계가 유지되면 절대로 고독하지 않다. 인간이 겪게 되는 근본적인 고통은 고독에서 비롯된다. 늙음의 고통은 젊음으로부터 소외되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고통이다. 죽음의 고통은 삶으로부터 소외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고통이다. 그러나 부모와 자녀가 하나가 되면 문제는 달라진다. 자기의 늙음은 자녀의 성장이기 때문에 늙음이 성장으로 바뀌게 된다. 이러한 의식을 우리가 가지고 명확한 구원관을 가르치고 천국을 소망한다면 훨씬 더 폭넓고 수준 있는 신앙관을 가지게 될 것이며 무엇보다 화목한 가정들이 될 것이다.²²⁹⁾

둘째, 군신유의(君臣有義)와 의(義)이다. 이는 윗사람과 아랫사람의 관계를 말하는 것이다. 그런데 윗사람과 아랫사람이 원래부터 윗사람과 아랫사람의 관계였던 것은 아니다. 원래는 모두가 다 한 뿌리를 가진 동등한 존재이므로 평등하다. 그러나 현상적으로 서로 다른 모습을 하고 남남으로 존재하면서 경쟁하기 때문에 사회는 늘 혼란스럽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모두 한 형제요 자매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인식해야 한다. 윗사람과 아랫사람의 관계는 본질적인 관계가 아니라 필요에 따라 만들어진 임시적인 관계이다. 이 임시적인 관계라는 의미에서 나온 개념이 의(義)이다.²³⁰⁾ 있어야 될 것이 없어 불편할 때 그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만든 것에 의라는 말을 쓰는 것이다. 윗사람과 아랫사람의 관계는 필요에 의해 맺어진 임시적인 관계임을 확실히 자각해야 한다. 만약 이러한 이치를 모르면 아랫사람은 자기가 아랫사람이라는 사실에 만족할 수 없기 때문에 윗사람에 대해 반감을 가질 수 있다. 그리고 윗사람은 아랫사람을 원래부터 아랫사람인 것으로 착각하고 함부로 부릴 수 있다. 그

228)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마 15:4)

229) 삼강오륜은 동양윤리 사상의 핵심이라고 말할 수 있다. 따라서 목회사역 가운데 관계훈련을 위한 좋은 요소가 될 것이다. 동양윤리로서의 삼강오륜에 대한 이해는 본인의 석사논문을 참고하면 된다. 이대우, “맹자의 윤리사상 연구”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2003).

230) 이기동, *한마음의 나라 한국*, 220.

렇게 되면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 일선 교회에서 담임목사와 부역자와의 관계도 이 원리가 적용된다. 서로 존중하며 원만하게 잘 협력하는 교회도 있지만 소통이 되지 않고 서로 불신하는 가운데 어려움을 겪는 목회자들도 많음을 본다. 군신유의를 잘 실천하게 되면 담임목사와 부교역자 혹은 당회, 교회의 직분 자들과의 관계가 원만해 질 수 있다.

셋째, 부부유별(夫婦有別)와 애(愛)이다. 이 덕목은 많은 논란이 되기도 했다. 왜냐하면 ‘별(別)’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그 뜻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별(別)은 차별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차이를 말하는 것이다.²³¹⁾ 그 차이를 알고 그 역할에 충실하고 또한 서로 존중해야 하는 것이다.²³²⁾ 오늘날 가정 문제가 되는 것이 바로 이혼율의 급증이다. 잘 나뉘지 못하는 특성을 가진 한국인들에게 이혼율이 높아진다는 것은 실로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²³³⁾ 그만큼 남편과 아내의 관계는 가장 쉽고도 가장 어려운 관계이다. 가정의 출발은 부부이다. 부부가 있는 뒤에 자녀의 관계가 성립된다. 부부가 행복하면 가정이 행복하고 교회가 행복하고 사회가 행복하게 되는 것이다. 이 부부의 행복을 지키는 덕목이 바로 부부유별(夫婦有別)이다. 동양 사상에서는 부부를 음양의 관계로 설명하고 있는데 음과 양은 서로 좋아하지만 그 성격은 정반대이다. 이러한 차이 때문에 음양이 조화를 이루는 것이다. 남편이 일을 벌이면 아내는 반대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목회자 가정에서 이런 광경을 자주 보게 된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다. 이때 남편이 섭섭한 마음을 가진다면 그 가정은 원만하게 유지되기 어렵다. 만약 아내가 반대하지 않는다면 그 가정은 자꾸 일만 별이다가 파멸하고 말 것이다. 이를 안다면 오히려 아내의 반대가 가정을 조화롭게 꾸려갈 수 있는 최선의 요인임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남편과 아내는 성격적으로 서로 다른 점이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고 그 다른 점이 가정을 조화롭게 유지하는 비결이라는 것을 이해하는 것이 부부유별의 가르침이다. 현재 온누리 교회를 중심으로

231) 이대우, “맹자의 윤리사상 연구,” 37-38.

232) 남성에 비해 여성의 수가 훨씬 많은 한국 교회에서도 이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남녀 성(性)의 차이를 인정하고 거기에 맞는 직분의 역할이 주어져야 한다. 남자 성도들은 교회의 시설, 운전등과 관련한 일들, 여자 성도들은 환경미화, 요리, 안내 등 잘 할 수 있는 역할이 주어진다면 모두가 만족하는 교회가 될 것이다.

233) 이기동, “행복에 관하여,” 156-157.

아버지 학교와 어머니 학교가 열리고 있다.²³⁴⁾ 많은 부부들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관계를 회복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 또한 부부유별의 내용을 담고 있다. 여기에 성경의 토대위에 은혜의 감동을 더하는 유익한 프로그램이다. 교회는 앞으로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부부의 관계 회복 자녀들과의 관계 회복을 해나가야 한다. 가정이 살아야 교회가 살 수 있다.

넷째, 장유유서(長幼有序)와 예(禮)이다. 이는 나이든 사람과 젊은 사람 사이에는 차례가 있어야 한다는 윤리이다. 이 또한 우리가 하나라는 사실을 인식한다면 자연스러운 것이다. 교회 안에서 노약자들을 존중해주고 힘센 사람보다 힘이 약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 또한 이러한 정신이 들어가 있는 것이다. 여기에 조금 더 설명을 보탠다면 서양의 윤리는 노약자를 보호하는 것이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교양적 차원이라는 것이고, 우리의 전통윤리는 노약자를 보호하는 것이 결코 남이 아니기 때문이다.²³⁵⁾ 장유유서의 윤리를 지키기 위해 행해지는 행동 양식이 모두 예(禮)가 된다. 우리의 교회가 이러한 예를 갖추게 된다면 보다 강력한 은혜 공동체가 될 수 있다. 교회가 질서 있게 되면 하나님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좋은 토양이 가꾸어 지게 될 것이다.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유익한 프로그램을 주일학교에서 장년에 이르기까지 확대하고 강조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붕우유신(朋友有信)과 진심(眞心)이다. 이는 벗들 사이에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벗 또한 남남이 서로 한마음이 되는 관계이다. 하지만 오늘날 현대 사회는 경쟁 사회이기 때문에 믿고 도와주는 벗들이 있어야 살 수 있다. 특별히 교회에서 청년들에게 이 덕목을 가르쳐야 한다. 관계를 중요시 하지 않고 개인주의로 흘러가면서 친구 관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친구 관계를 원만하게 유지하는 최선의 방법은 믿음이다. 서로간의 믿음이 없으면 그 관계는 유지되지 못한다. 이 믿음을 유지하는 최선의 방법은 욕심으로 친구를 사귀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사귀는 것이다. 욕심으로 한 약속은 이익이 되기 때문에 한 약속이다. 그러한 약속은 그 약속을 지키는 것이 손해가 될 경우에는 지키지 않게 된다. 그러므로 욕심으로 사귀는 친구는

234) 1995년 두란노서원에서 처음 개설되어 지금까지 아버지의 정체성을 확립하여 가정을 바로 세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자세한 소개는 <http://www.father.or.kr> 를 참고하면 된다.

235) 이대우, “맹자의 윤리사상 연구,” 38.

손해가 될 때 헤어지게 된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마음으로 사귄 친구는 언제나 변함이 없을 것이다. 교회 내에서 목회자와 성도들 간에 가장 중요한 요소는 바로 신뢰인데 이 신뢰를 갖기 위해서는 진심이 통해야 한다. 그래야 성도들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영향을 주게 되고 그로인해 성도들은 변화될 수 있다.

7. 서당교육의 전통을 살린 303 비전암송학교

우리나라의 전통 교육방법과 이스라엘의 교육방법에는 유사한 면이 많이 있다. 이미 이스라엘의 교육의 탁월함은 검증이 되어 많은 이들이 이를 적용하려고 노력 중이다. 이스라엘에서는 가족이 사회의 단위이며, 혈연에 의한 거주지 중심으로 여러 세대가 함께 살았으며, 아버지에게 권위가 부여되어 가정을 이끌어 나가게 하였다. 특히, 이스라엘은 장자에게 큰 권한을 주었다.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하도록 되어 있고, 섬기도록 되어 있었다. 교육기관은 일차적으로 가정에서 부모가 가르쳤고, 회당에서 가르쳤다. 이는 우리의 서당과 비슷한 개념이라 할 수 있다.²³⁶⁾ 이스라엘의 가정교육은 토라, 탈무드, 쉘마, 지혜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과의 계약자로서의 생활 의무를 실천케 하는 교육이었다. 이를 학습함에 있어서 주된 방법은 구전이었고, 쉘마의 말씀을 시작으로 암송을 했다.²³⁷⁾

전통적으로 서당에서 글공부의 1단계는 암송이었다. 뜻풀이는 문리(文理)가 깨친 후라야 할 수 있는 것이고 그전까지는 그냥 줄줄 외우는 것이 전부였다. 초기 사경회에서 성경공부도 성경 외우기로 시작되었다. 성경암송은 한국 교인들이 받은 특별한 은사 가운데 하나였다. 성경을 외우는 한국 기독교인들의 신앙은 서양 선교사에게 경이와 존경의 대상이 되었다. 이처럼 한국 초기 교인들은 서당교육 방식인 독송, 암송 문화를 성경 읽기에 적용하여 한국 특유의 토착 신앙으로 성경 암송 신앙을 창출해 냈던 것이다.²³⁸⁾

이렇듯 서당교육의 단순하면서도 강력한 교육방법은 바로 암송이었다. 암송을 통

236) 최형묵, “이스라엘의 신앙교육을 통한 기독교 교육의 대안제시” (석사학위논문, 안양대학교 신학대학원, 2004), 25-26.

237) 방현덕, *기독교 가정 교육론* (서울: 서신사, 1985), 64.

238) 이덕주, “초기 한국 토착교회 형성과 종교문화,” 한국문화신학회 편, *한국에 기독교 문화가 있는가?* (서울: 한들출판사, 2005), 49.

해 말씀을 마음 돌비에 새기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말씀을 떠나지 않게 된다.²³⁹⁾ 이를 입증한 것이 ‘이슬비 암송학교’²⁴⁰⁾이다. 말씀 암송이 아이들의 성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는 많은 사례들을 통해 입증되고 있다. 하지만 메빅²⁴¹⁾이나 웅왕 같은 한국에 들어와 있는 주일학교 시스템을 여과 없이 들여오게 되면 많은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 신나게 게임하고, 신나게 춤을 추며 찬양을 한다. 아이들은 즐거워 하지만 자칫 즐거움만 쫓는 아이들, 잘못된 예배습관을 들일 수 있다.

주일학교 교육의 모티브를 전통적인 서당교육에 두고 아이들을 훈육해야 한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동일하게 가르쳐야 한다. 함께 말씀을 암송하고, 효를 가르치고, 예를 알게 하며, 의를 몸소 실천하게 해야 한다. 그럴 때 우리의 아이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당부하신 것들을 잘 소화하며 앞으로 한국교회를 이끌어갈 꿈나무들로 성장하게 될 것이다. 이를 위해 303 비전암송학교를 소개하고자 한다. 303 비전암송학교는 교육 100년지 대계를 꿈꾸며 30*3세대를 대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함을 목표로 하고 있다.²⁴²⁾

(1) 유니게 과정

유니게 과정에서는 각 단계별로 100절씩 총 3단계에 걸쳐 300구절을 암송한다.

239)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신 6:6-7)

240) 여운학(전 규장출판사 대표) 장로는 이슬비전도학교, 이슬비성경암송학교, 303비전장학회 등 선교와 교육 분야에 큰 기여를 하였는데 특히 성경암송학교를 통하여 목회자, 평신도, 청소년, 영유아에 이르기까지 전 세대에 걸친 교육을 실시해 오고 있다.

241) 메빅은 1986년 일본의 최북단 홋카이도의 대표도시인 삿포로에서 오치코시 곤베 목사에게 의해 시작되었다. 메빅이 처음 한국에 소개된 것은 1997년 서울 노원구 중계동의 삼일교회(정화영 목사)에 의해서이다. 그러나 2002년에 삼일교회가 자체적으로 웅왕이라는 주일학교 예배, 교육 프로그램을 시작하게 되었다. 또한 메빅은 부산의 진목교회와 서울 명성교회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이동식, “메빅을 통한 침체된 주일학교 활성화 방안” (석사학위논문, 충신대학교 선교대학원, 2009), 39-40.

242) 303 비전암송학교에 대한 자료는 현재 실무와 강사를 맡고 있는 임취선 실장에게 제공 받았음을 밝혀둔다. 더 자세한 자료는 갓피플 성경쓰기&암송사이트 <http://theme.godpeople.com/?go=bible> 을 참고하기 바란다.

유니게 3단계 일정표			
No	일자	첫째 시간(이웃학 장로 강론) 10:30-11:10	둘째 시간(비전비전) 11:10-12:00
1*	10/11	세계평화 / O&A 1) 요 13:34, 35 / 요 15:12, 17 2) 마 7:7-14	말 4:1-23* (20절/23절)
2*	10/18	산상수훈 / O&A 1) 마 5:1-13 2) 마 28:18-20* (자살행위)	시 19:1-14*, 마 28:18-20* (19절/42절)
3*	10/25	기도영양 / O&A 1) 마 6:8-13(마태복음) 2) 마 22:22 / 요 14:13, 14	막 16:14-20*, 시 42:1-5, 말 4:1-6*, 마 10:16 (19절/81절)
4*	11/01	성경의 열매 / O&A 1) 갈 5:22, 23 2) 요 14:20 / 살전 2:13	막 10:17-24, 시 128:1-6*, 시 103:1-5 (19절/80절)
5*	11/08	기독교인으로서의 삶 / O&A 1) 살전 5:16-18 2) 수 1:2 / 시 103:1-2 / 롬 8:28	롬 5:1-11, 시 121:1-8*, 시 119:97 (20절/100절)
6*	11/15	민중의 삶 / O&A 1) 마 23:1-12 2) 마 23:13	수요식 및 암송감사제

303비전성경침례교회 : <http://cafe.Godpeople.com/HoneyBee/>

<참고 1> 유니게 과정 중 3단계 일정표

(2) 초등부

초등부 또한 각 학년에 해당하는 구절을 암송해야 해야 303 비전꿈나무 모범생이 될 수 있다. 303 비전꿈나무 으뜸 모범생이 되려면 연령대별 모범생이 암송하는 총구절의 2배 이상을 암송해야 한다. 303 비전꿈나무 장학생이 되려면 303 비전 꿈나무 으뜸 모범생으로 성경 암송을 1년간 지속해야 한다.

연령	선발기준(암송구절)	총구절
유치부로부터 초1(만7세)까지	고전13:1-13, 신6:4-9, 롬3:23,24, 갈2:20, 마7:7-14 시23:1-6, 시1:1-6, 시100:1-5 총 47절을 암송한 어린이	47절
초2(만 8세)	마5:1-16, 살전2:13 총 64절을 암송한 어린이	64절
초3(만 9세)	요1:1-18, 고후5:17 총 83절을 암송한 어린이	83절

초4(만10세)	요 15:1-17 총 100절을 암송한 어린이	100절
초5(만11세)	창1:1, 출20:1-10 총 111절을 암송한 어린이	111절
초6(만12세)	출 20:11-21 총 122절을 암송한 어린이	122절

<참고 3> 303 비전암송학교 초등과정 암송표

(3) 중등부

중등부 303 비전꿈나무 모범생이 되려면 각 학년에 해당하는 암송구절을 암송해야 한다.

연령	선발기준(암송구절)	총구절
중1(만13세)	신28:1-6, 수1:8,9, 수6:1-3, 시8:1-9 창12:1-4, 시150:1-6 총 152절을 암송한 학생	152절
중2(만14세)	사1:18-20, 사14:24-27 잠16:1-9, 시107:9, 잠8:17, 합3:17-19 총 173절을 암송한 학생	173절
중3(만15세)	마7:1-6, 사40:27-31, 렘33:1-3, 마11:28-30 사41:10, 행1:1-8, 마6:33 총 200절을 암송한 어린이	200절

<참고 2> 303 비전암송학교 중등과정 암송표

매일	매월
1. 말씀암송, 가정에배의 생활화 2. 성경 1장 이상 읽기 3. 30분 이상 말씀 암송 4. 아침에 일어나면 기도로 하루를 시작	5. 신앙양서 1권 이상 읽고 독후감 쓰기
	부모님들께
6.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한다. 7. 주 안에서 즐거워 바보 되고, 기뻐 손해 본다.	8. 즉각 순종하고 잘못했을 때는 즉각 용서를 빈다. 9. 주 안에서 기쁘시게 하도록 힘쓴다. 10.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섬기는 사람이 된다.

<참고 4> 303 비전꿈나무 모범생 서약서

8. 효(孝)의 실천을 통한 교회의 덕 세우기

한국 전통사상의 중심에는 인(仁)이 있고, 윤리적 근본 사상은 효(孝)에 두고 있다.²⁴³⁾ 유교의 효(孝)는 성경에서 말하는 효(孝)와도 조화가 잘된다.²⁴⁴⁾ 성경 안에서도 충분히 그 근거들을 찾아 볼 수 있다. 실제로 효(孝)를 교회의 근간으로 삼아 구체적인 덕목을 정하고 실천하여 성장한 사례도 있다.²⁴⁵⁾

성경에는 효행에 관련된 교훈과 예들이 58개, 불효에 관한 교훈과 예들이 52개,

243) 이종래, “효 사상의 현대적 의의에 관한연구” (석사학위논문, 경인교육대학교 대학원, 2003), 8.

244) 유교에서의 효(孝)는 로마서 1:19-20 절에 비취볼 때 “하나님의 알만한 것”을 보여주신 일반계시로 간주하여 성경에서의 효(孝)와 조화를 이루기에는 무리가 있어 보일 수 있으나 보다 넓은 의미에서 살펴볼 때 전통적인 효(孝)사상의 기반위에 성경의 효(孝)사상이 잘 실천되어 질 수 있다고 본다.

245) 순복음 인천교회는 성경적 효의 7대 사명이라는 덕목을 세우고 실천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계명을 근본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김, 부모·어른·스승 공경, 어린이·자녀·제자 사랑, 가족사랑, 나라사랑, 자연보호, 이웃사랑·인류봉사등이다. 최용석, “성경적 효 훈련을 통한 전인적 신앙성장에 관한연구” (D.Min. diss., Fuller Theological Seminary, 2008), 88.

영적 아버지 되신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내용이 20개, 부모의 사랑과 자녀교육에 관하여 부모에게 가르치는 교훈이 17개, 효와 불효가 비교된 성구와 그 예들이 10개 가량 있다.²⁴⁶⁾

따라서 효(孝)의 실천은 가장 한국적이면서도 가장 성경적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목회사역에 접목 할 수 있는 효의 실천 방안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가. 노인들을 위한 섬김 사역

자료에 의하면 2050년경에는 우리나라에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전체 인구의 37.5%를 차지하게 되어 전 세계에서 인구의 고령화가 가장 앞선 나라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²⁴⁷⁾ 따라서 노인사역을 교회가 감당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것이 될 것이다. 또한 효(孝)를 실천해야 할 당위성도 가지고 있기에 이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다.

한마음으로 연결되는 교회 구성의 핵심은 가정이 중심된 한마음 공동체이다. 가정에서 철저히 효(孝)를 배우고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실천되고 지역사회로 나가야 하는 것이다. 앞서 은퇴 목회자들을 위한 섬김 사역과 함께 노인들을 위한 섬김 사역 또한 이를 위해 강조되고 실천되어야 할 부분이다. 이에 몇 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1) 노인 공동체 만들기

노인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준비해야 할 두 가지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동체 섬김을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 노인들을 위한 섬김 사역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노인 공동체를 만드는 것이다. 어느 정도 규모가 있는 교회에서는 노인대학, 노인커뮤니티 등을 만들어 운영을 하고 있지만 그 외 교회에서는 사실 조직적인 운영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교회에서는 노인 공동체를 만들고 이를 위한 준비를 해야 한다. 노인 공동체를 섬길 교역자와 스텝들이 필요하다.

둘째, 노인 공동체를 위한 공간을 마련한다. 가톨릭교회에서는 대개 성당 안에 경로당을 마련해 놓는다. 이는 우리가 본받아야 할 모습이다. 우리 교회들이 그렇지

246) 최성규, *효가 살아야* (서울: 성산서원, 1998), 189-261.

247) 이희성, “지역교회의 효과적인 노인사역 방안” (D.Min. diss., Fuller Theological Seminary, 2010), 39-40.

못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앞으로는 이를 의식하고 준비해야 한다. 노인들이 교회 안에서 설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 드리는 것만으로도 훌륭한 노인 섬김 사역이 될 것이다.

(2) 예배 및 양육

노인들도 전체 회중 예배에 참석 하지만 연륜이 있고 경험이 풍부한 이들을 위한 예배를 준비하고 이들을 위한 양육프로그램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 그럴 때 이들의 삶이 외롭지 않고 하늘나라 가는 그 날까지 신앙생활의 보람과 행복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예배 및 양육 프로그램을 소개할 수 있다.

첫째, 어르신 예배이다. 어르신 예배는 한 달에 한번 정도 특별한 행사와 함께 병행하는 것이 좋다. 가능하면 예배 인도는 교회의 원로 목사님이나 은퇴 목사님께 이를 맡기고 진행하면 좋을 것이다. 예배 후에는 식사를 대접한다.

둘째, 모세대학²⁴⁸⁾이다. 노인들 중에서도 상당수가 공부를 하고 싶어 하고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고 싶어 한다. 모세대학에서는 성경 기초반, 성경 통독반, 성경교리반 등을 개설하여 보다 체계적인 성경 공부에 참여하게 된다.

셋째, 취미 활동반을 개설한다. 선교 합창반을 통해 서로가 하나 되고 찬양으로 섬길 수 있도록 돕는다. 이 밖에도 악기를 배우고 싶어 하는 이들을 위해 악기반을 개설하여 배우게 할 수 있다.

넷째, 봉사활동에 참여시킨다. 봉사반을 통해 교회 안 봉사의 영역에 참여하거나 지역사회에 봉사할 수 있는 영역들을 준비하여 참여시킬 수 있다. 노인들은 대개 시간에 구애받지 않는 장점이 있기에 젊은 사람들이 할 수 없는 용이한 부분을 적극 활용하면 겹치지 않고 유익되게 섬길 수 있을 것이다.

그밖에도 청소와 조경, 성경 읽어주기, 등교 길 교통정리, 교회 내 재활용품 수집 및 정리 교회 행사의 지원 상담 자원 봉사, 전도와 심방의 지원 등 다양한 영역에서도 활동 할 수 있다.²⁴⁹⁾

248) 분당중앙교회는 노인공동체를 모세대학이라 칭하고 있는데 적절한 명칭이라 사료되어 인용하였다.

249) 이경화, “효과적인 노인 목회를 위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안양대학교 신학대학원, 2003),

(3) 다양한 섬김 프로그램

노인들을 위한 섬김 사역을 위해서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운용할 수 있는데 몇 가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노인 상담실 운영이다. 노인 상담 사업은 상담소를 설치하여 찾아오는 노인을 대상으로도 하지만 전화상담사업도 행해지고 있다. 담당 내용은 직업 상담, 건강 상담, 가정문제 상담, 그 외 교양, 오락 등 노인 복지 증진에 관한 내용이다. 상담 활동에서는 주로 이야기를 들어줌으로 불만을 해소케 하고, 왜곡된 정서를 바로 해주어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²⁵⁰⁾ 교회 안에서 이를 위해 헌신할 봉사자들을 모집하고 이를 위한 약간의 교육을 실시한 후 섬길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이다. 노인들이 이 사역에 직접 헌신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둘째, 독거노인 돌보기이다. 독거노인들을 위한 생계지원 및 이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지원한다. 특히 거동이 불편한 독거노인들을 위해서는 헌신된 봉사자들이 파트타임으로 섬기면 좋을 것이다. 이들의 집을 찾아가서 집안청소, 가구 이동, 식단 차리기, 목욕 돕기, 의복 및 침구세탁, 말씀 읽어주기 등 다양한 섬김의 일들을 할 수 있다.

셋째, 급식 배달 및 무료 급식이다. 급식 배달은 지역 복지센터에서 현재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봉사자들이 많이 모자라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교회가 참여하여 돕게 되면 전도의 영역이 확장될 수 있으며 교회의 덕을 세울 수 있게 된다. 또한 교회 자체적으로도 필요한 이들을 위해 도시락을 전달하고 무료 급식을 통해 섬길 수 있다.

넷째, 건강관리이다. 교회 내에서 의료 전문가들을 통해 정기적으로 이들의 건강을 돌보거나 외래 진료 전문기관을 통해 이들의 건강을 돌보는 것이다. 노인들은 건강에 신경을 많이 써야 하기 때문에 노인사역에 있어서 필수적인 중요한 사역이다.

다섯째, 우호방문 서비스이다. 정기적인 방문을 통하여 친구가 되어 주는 섬김의 일이다. 바둑이나 장기를 두고, 편지를 써주며, 쇼핑을 도와주고, 같이 대화를 나누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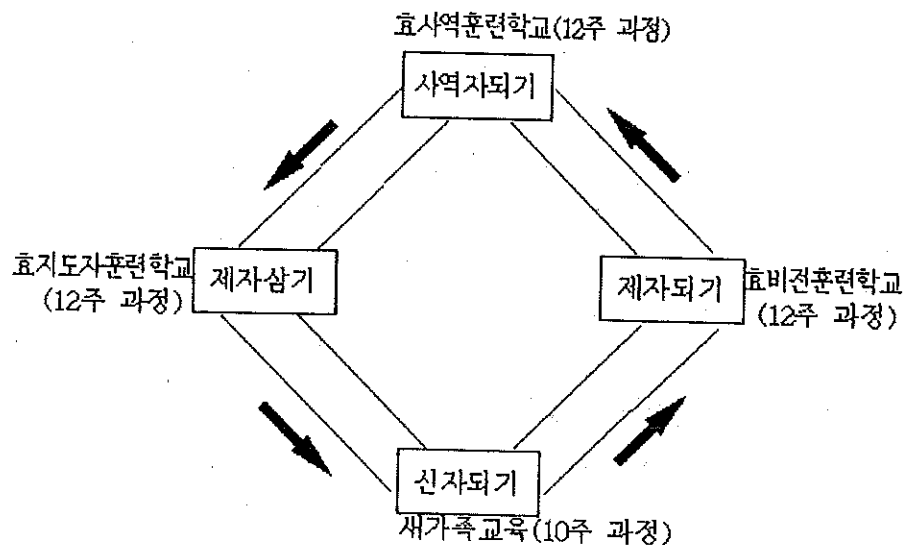
53-54.

250) 이경화, “효과적인 노인 목회를 위한 연구,” 54-55.

일 등이다. 책읽기, 말벗, 신문 읽어 드리기, 팔다리 주물러 드리기, 심부름하기, 행정 업무 대신하기 등 다양한 일상적인 일들을 도와주는 것이다. 이에는 학생들도 참여할 수 있다.

나. 순복음 인천교회²⁵¹⁾를 통해 살펴본 효(孝)의 실천사역

순복음 인천교회는 창립 초기부터 ‘성령 충만한 교회, 이웃과 함께하는 교회’라는 비전을 가지고 지역사회를 섬겨왔다. 그러던 중 1995년 7월 16일 주일 ‘기독교와 효’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면서 유교적 이념의 대표적 산물처럼 여기던 ‘효’를 성경적 시각으로 바라보며 교회와 성도가 성경에서 효를 찾고 실천해야 함을 선포하게 되었다. 성경적 효와 7대 사명 실천에 교인들을 동참시키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균형 잡힌 신앙으로 성장하도록 돕고 있다.²⁵²⁾ 순복음 인천교회에서 실시하고 있는 효 실천사역의 영역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참고 5> 순복음 인천교회 효 훈련 전체과정²⁵³⁾

251) 순복음 인천교회(최성규 목사 시무)는 효(孝) 훈련과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 이를 잘 실천하고 있는 대표적인 교회이다. 따라서 이 교회의 구체적인 효(孝)실천 사역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자세한 교회 정보는 <http://www.fgictv.com/> 에서 확인할 수 있다.

252) 최용석, “성경적 효 훈련을 통한 전인적 신앙성장에 관한연구” (D.Min. diss., Fuller Theological Seminary, 2008), 81.

253) Ibid., 81.

첫째, 효를 강조한 설교사역이다. 순복음 인천교회에서는 효(孝)의 실천을 위해 매주 선포되는 말씀가운데 지속적으로 이를 강조하고 있다. 심지어 주일설교의 45% 정도가 성도들의 삶의 변화와 말씀실천을 강조하고 있다.²⁵⁴⁾ 이를 통해 성도들은 효에 대한 의식을 갖게 되고, 자신을 반성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도록 노력하게 된다.

둘째, 효의 실천을 통한 전도사역이다. 성경적 효는 복음 전도에 많은 도움을 준다. 우리의 전통적인 사상이 효에서 출발하였기에 친숙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 또한 효를 강조하는 교회가 되면 더 자신 있게 복음을 전할 수 있다.²⁵⁵⁾

셋째, 효의 실천을 위한 사회봉사이다. 순복음 인천교회의 남다른 장점은 사회봉사 영역에서 꾸준히 봉사하여 교회의 위상을 높이고 있다는 것이다. 수해지역 구호품 전달과 봉사, 사랑의 헌혈운동, 자폐어린이들의 치료·교육기관 운영, 미국입양청소년 모국방문, 효마을 봉사단 운영, 결식노인 무료식사제공, 병원·양로원·고아원 등의 복지시설 자원봉사, 폐휴지수거 등을 통한 심장병 어린이 수술, 지역 어른 초청 효 경로잔치, 가출 청소년 쉼터, 지역 독거노인 결연, 내 고장 쌀 1만포 먹기 사랑운동, 생활보호대상 홀몸노인 결연, 불우 이웃과 함께 하는 추수감사절, 홀몸노인 돕기 효실천 가족달리기 대회, 홀몸노인·극빈자 추석선물 쟁, 광복절 60주년 정신대 할머니 쉼터 지원 등 전교인이 적극적으로 이에 동참하고 있다.²⁵⁶⁾

넷째, 사회 교육사역이다. 성경적 효를 교인들만이 아니라 일반 시민과 학생들에게 가르치고 실천하고 있는데 이를 위해 청소년육성재단을 설립하여 청소년들이 전인적으로 바르게 성장하도록 모범청소년대상을 시상하고 있다. 또한 전국 중고등학교에 효행봉사단을 창단하여 수련활동, 봉사활동, 예절교육, 부모자녀 사랑의 캠프, 문화공연, 체육활동 등을 통해 창조주 하나님의 섬김, 부모·어른·스승 공경을 몸소 실천하고 있다. 그 외에도 효실천 캠페인, 설날과 추석에 실시하는 효실천 캠페인, 설날 이웃 어른께 세배 드리기, 노인복지회관 운영, 효축제 및 효자효부 시상 등을 시행하고 있다.

무엇보다 성경적 효를 가르칠 지도자 양성을 위해 성산효도대학원대학교를 설립

254) 최용석, “성경적 효 훈련을 통한 전인적 신앙성장에 관한연구,” 82.

255) Ibid., 83.

256) Ibid., 84.

하여 운영하여 단기의 사역이 아니라 지속적이면서도 체계적인 효를 실천하고 뿌리내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²⁵⁷⁾

이상과 같이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교회 안에서 만들어 지고 실천될 수 있다. 교회가 이 사역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얼마든지 교회 실정에 맞춘 노인 섬김 사역들이 준비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교회 여건이 허락한다면 은퇴 목회자들을 위한 섬김 사역도 함께 병행하면 좋을 것이다.²⁵⁸⁾ 효(孝)를 실천하는 것은 교회의 덕을 세우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또한 성경적이기에 우리의 자녀들에게 좋은 신앙의 본을 보이고 가르칠 수 있다.²⁵⁹⁾ 이러한 사역들이 활성화 되면 보다 사역의 영역을 넓혀 노인복지 사업으로까지 확대할 수 있을 것이다.

제 2 절 한국적 정서를 고려한 예배

열린 예배는 미국과 한국에서 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자유주의 교회들, 신오순절 교회들뿐만 아니라 소위 보수진영 교회들까지 지역과 교파를 초월하여 급속도로 퍼지고 있다. 열린 예배는 북미, 특히 미국의 몇몇 성장하는 교회(월로우크릭, 새들백, 갈보리 등)의 예배형태인 ‘구도자 예배’(seeker’s service)에서 시작되었다. 구도자 예배란 믿지 않는 사람들이 누구이든지간에 그들이 좀 더 쉽게 예배의 자리에 나아올 수 있도록 배려하는 형식과 접근 방법을 통한 예배 스타일로, 현대 문화의 수용을 통한 예배 형식의 대중성을 추구하면서 근본적으로는 선교적 차원의 동기에서 이루어졌다.²⁶⁰⁾

열린 예배의 긍정적인 부분들도 있지만 한국에서의 열린 예배의 적용은 부정적인 부분들이 더 강하다고 볼 수 있다. 개혁주의 입장에서는 열린 예배에 대해 다음

257) 최용석, “성경적 효 훈련을 통한 전인적 신앙성장에 관한연구,” 85.

258) 한국교회의 현실적인 문제는 많은 목회자들이 은퇴를 하고 갈 곳이 없다는 것이다. 은퇴 목회자 현황은 2012년 기준으로 한국기독교 총연합회에 등록된 60개 교단 중 파악된 13 교단의 은퇴자만 5,244명이다. 변은민, “은퇴목회자 노후 생활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백석대학교 기독교전문대학원, 2012), 6.

259) 설은주, *고령화 시대의 노인목회*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1998), 49.

260) 김만형, “구도자 예배란 무엇인가,” *목회와 신학*, 1997년 4월호, 40-46.

몇 가지의 부정적인 것들을 지적할 수 있다.²⁶¹⁾

첫째, 감정 지향의 문제이다. 열린 예배는 감정적인 반응과 표현만을 중요시하고 있다는 지적을 많이 받아왔다.

둘째, 예배 본질에 있어서의 문제이다. 구도자 예배가 복음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을 갖도록 하는 전도의 도구로 사용되지만 예배의 주인이 하나님이라 아니라 사람이 되기 때문에 본질에서 벗어난다고 보는 것이다.

셋째, 예배학적 관점에서 불신자를 위한 예배는 가능한가? 또한 드리는 예배인가 보여주는 예배인가? 하는 의문을 가지게 한다. 거기다가 역사 신학적 문제와 선교신학적인 관점에서도 부정적인 요소를 발견할 수 있다.

이렇듯 한국교회 현실에서 열린 예배는 여러 가지 요소들로 비판받아 왔다. 우선 열린 예배의 대상을 누구로 할 것인가를 명확히 정하지 못함으로 오는 혼란, 양적 부흥이라는 목적 하에 진행되는 예배의 형태, 사회문화적인 개방성과 함께 진행되다보니 경건과 거룩이라는 요소의 결핍, 잘 들리도록 하기 위한 도구의 사용으로 인한 설교의 약화, 미국에서 시작되었지만 한국적인 정서와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무분별하게 받아들임으로서 오는 문화적인 차이, 용어 자체가 풍기는 오해 등으로 인해 한국교회에서는 여전히 부정적인 요소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

따라서 한국적인 정서를 고려한 예배가 필요하다. 열린 예배에서 한마음 예배²⁶²⁾를 지향해야 한다. 지금까지 한국 전통 사상의 특징을 살펴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한국교회 성도들이 서로 한마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오랜 기간 동안 형성되어온 인(仁)문화권 속에서 한국교회 교인들은 하나로 묶여야 안정이 되고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한마음’이라는 큰 범주 속에서 예배를 준비할 때 가장 한국적이면서도 성경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예배는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는 것이다. 우리말로 풀이하면 ‘예를 다하여 절한다’

261) 김도경, “개혁주의 입장에서 본 열린예배” (석사학위논문, 총신대학교 일반대학원, 2011), 54-70.

262) ‘한마음 예배’는 새로운 장르의 예배 형태를 제시하는 것이 아님을 밝혀둔다. 예배의 본질에서 벗어나지 않고 한국적인 정서를 고려한 예배의 형식을 고려하고자 하는 의도이다. 현대예배를 대표한다고 볼 수 있는 열린 예배와 비교하여 전통의 방식을 살리면서도 긍정적인 요소들은 수용하고자 하는 것이다.

는 뜻인데, 예배는 즉 경배의 대상인 하나님께 그를 신뢰하며 그를 섬기는 믿음의 표현이요, 신앙의 순종을 나타내는 행위이다. 그리고 교회는 회중의 공적인 모임을 통하여 이러한 의식으로서의 예배를 순서들의 진행으로 실현하고 있다.²⁶³⁾ 따라서 기독교의 예배는 이러한 예배의식을 떠나서는 하나님께로 향한 경배로서의 섬김을 표현할 길이 없는 것이다.

한마음 예배 또한 이에 기초한다. 한국적인 예배를 드린다고 성찬식에 막걸리와 떡을 사용하고 팽과리를 치며 찬양하는 그런 형식을 취하는 것이 아닌 한국적인 정서를 이해하고 특성을 살린 예배가 한국적인 예배라는 것을 먼저 밝히며 한마음 예배를 제시 하고자 한다.²⁶⁴⁾

1. 한마음 공동체 예배

한국은 전통적으로 가족중심주의이다. 이러한 가족 의식 때문에 효(孝)와 예(禮)가 강조되어 왔다. 이러한 영향은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다.²⁶⁵⁾ 그렇기 때문에 가정에서 예배가 정착이 되면 교회 안에서 공동체 예배를 통해 하나가 된다. 한마음 공동체 예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렇게 가정에서 교회로 나아가는 것이다. 가정이 하나 되면 온 교회가 하나 될 수 있다. 이렇게 온 성도들이 한 마음이 되어 드리는 예배가 한마음 예배인 것이다.

가. 한마음 공동체 예배의 구성 및 특징²⁶⁶⁾

(1) 온 가정이 교회 안에서 하나 되어 드리는 예배

한마음 공동체 예배는 온 가정이 교회 안에서 한마음이 되어 함께 드리는 예배라 할 수 있는데 그 특징은 다음과 같다.

263) 정일웅, *21세기를 향한 한국교회와 실천신학* (서울: 여수론, 1999), 257.

264) 본 논문은 한국전통사상이라는 큰 맥락 속에서 복음에 합당한 가치들을 찾고 그것을 목회사역과 예배에 적용하고자 하는 것이 목표이기에 세부적인 사항들은 이를 참고로 개교회에 맞게 적용하면 될 것이다.

265) 이기동, *한마음의 나라 한국*, 97.

266) 기존의 전통 예배와 한마음 공동체 예배는 형식에 있어서는 크게 다르지 않다. 왜냐하면 기존의 전통 예배를 살리면서 한국적인 정서를 고려하여 한국 성도들에게 예배를 통한 은혜의 감동을 더하기 위함이다.

첫째, ‘환영 및 교제의 시간’을 충분히 갖는다. 한국인들의 특성중 하나는 환영받지 못하면 의기소침해 진다. 먼저 나서서 다가오는 사람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지 못한 것을 볼 수 있다.²⁶⁷⁾ 예배를 드리기에 앞서 새신자들을 위한 특별한 배려를 해야 하며,²⁶⁸⁾ 성도들도 서로 반갑게 인사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것이 좋다. 이를 위해 전제되어야 할 것은 시간 엄수이다. 예배 시작 전·후 환영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는 특별히 이를 맡은 직분자들이 미리 준비하고 있어야 한다.

둘째, ‘축복의 시간’을 갖는다. 가정에서는 자녀를 위해 축복하며 서로의 기도제목을 나눌 수 있다. 교회에서는 형식적인 인사의 축복시간이 아니라 진정으로 따뜻하게 손을 잡으며, 포옹하며, 보듬어 주며, 축복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다. 축복의 시간을 통해 연약한 자들이 위로를 얻고 상처받은 자들이 치유되며, 미움의 마음이 용서의 마음으로 변화될 수 있다.²⁶⁹⁾

셋째, ‘말씀 암송’의 시간을 갖는다. 말씀암송은 육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많은 유익함이 있다. 특히 예배 가운데 함께 암송시간을 갖게 되면 말씀을 통해 하나로 묶여지게 된다.²⁷⁰⁾ 특별히 회중예배 가운데서도 기간을 정해 부담이 가지 않는 정도의 말씀을 함께 암송하며 예배를 드리거나 파하는 형식을 취하면 좋다. 지금까지 회중예배에서 신앙고백과 주기도문 등을 암송하지만 특별한 절기나 선포되어야 할 말씀이 있다면 예배 중 함께 말씀을 암송하며 선포하는 것도 예배를 더욱 풍성하게 하고 말씀중심의 교회를 만들어 갈 수 있다.

(2) 경건한 분위기를 잘 살린 예배

한마음 공동체 예배의 형식적인 특징은 경건한 분위기를 잘 살린 전통에 기반한 예배라 할 수 있다. 그 특징은 다음과 같다.

267) 이기동, *한마음의 나라 한국*, 26-27.

268) 바나바와 같은 새신자들을 진담하는 부서를 만들고 이를 준비한다. 등록을 위한 부담을 최소로 하고 친절하게 안내해 주는 방식을 취한다.

269) 앞서 기복신앙의 장·단점에 대해 설명하였다. 전통적인 백락에서 볼 때 ‘축복’의 행위를 통해 성도들은 서로 격려하고 마음이 하나 될 수 있다.

270) 윤수영, “기독교 신앙 교육에서의 창의적인 성경 암송 교육 방안” (석사학위논문, 고신대학교 대학원, 2012), 60-72.

첫째, 경건한 분위기를 잘 살린다. 한국교회는 전통적으로 경건한 분위기를 중요시 해왔는데 엄숙한 분위기의 경건이 아니라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의 경건이 살아나야 한다.²⁷¹⁾ 앞서 한국인들에게는 보편적으로 경건성이 있음을 말했다. 샤머니즘과 무속적인 영향도 있지만 특유의 종교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성도들에게도 경건성이 있다. 교회 아닌 다른 장소에서 드리는 예배는 온전한 예배라 여기지 않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그러한 특징이 부흥의 외형적인 모습이 되기도 했지만 다양한 예배를 드리지 못한 이유가 되기도 한다. 한국 교회 성도들은 경건함 가운데 감동을 받고 은혜를 잘 받는다. 이 경건함이 온전한 경건함이 될 수 있도록 목회자들은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하며 이러한 특성을 잘 살려 예배 분위기를 조성한다면 경건하면서도 효율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이다. 제사를 지낼 때 몸을 청결히 하고 정성스레 제사상을 차리고 온 정성을 다해 절을 했던 것처럼 이러한 경건의 모양을 살려야 한다. 또한 청결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 모든 성도들이 수동적인 자세로 예배에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예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예배의 작은 것 하나라도 섬길 수 있도록 허락하고 이끌어 주어야 한다.

둘째 ‘용서의 시간’을 갖는다. 이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릴 때도 마찬가지다. 가족들을 위해 ‘용서의 시간’을 갖는다. 이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온전한 예배를 드리기 위한 전제 조건이기도 하다.²⁷²⁾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 반드시 용서의 시간을 갖는다. 회중 예배에서도 자백의 시간을 통해 예배를 드리기 전 하나 되기 위한 준비를 한다. 진정한 용서를 통해 지체들과 하나 되며 순결한 마음을 통해 하나님과 하나 되는 것이다.

셋째, ‘여백이 있는 묵상의 시간’을 갖는다.²⁷³⁾ 이는 특정한 순서에 굳이 들어가지 않아도 성도들의 신앙이 성숙되었을 때 가지면 경건하면서도 풍성한 은혜의 체험을 할 수 있다. 이 시간을 통해 고요한 중에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으며

271) 박희중, “한국장로교회 예전회복” (D.Min. diss., Fuller Theological Seminary, 2005), 124.

272) 마태복음 5:23-24

273) 갑자기 조용한 묵상의 시간을 갖는 것이 오히려 예배의 흐름을 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들 수 있지만 체험해 본 바 경건한 시간이 될 수 있다. 또한 시간이 쫓기는 예배가 아니라 약간의 여유를 통해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경건한 예배가 될 수 있다.

자신을 말씀에 비취 돌아보게 된다. 이로서 하나님과 한마음이 되는 것이다.

(3) 음악적인 요소를 잘 활용하는 예배

교회에서 음악은 너무나 중요한 요소이다. 그렇기에 일부 기독교 대학에서는 ‘교회음악’과를 개설하기도 했다. 특히 감수성이 풍부한 한국인들에게 있어서 예배음악은 여러 가지의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마음을 열게 한다. 마음을 여는 음악은 경건한 분위기의 음악이어야 한다. 교회에서 고요히 울려 퍼지는 음악은 성도들의 마음 문을 열게 하고 기도하게 한다. 예배 시작 15분 전에는 은혜로운 찬양을 악기 팀에서 연주한다. 오르간이나, 피아노와 현악기를 함께 연주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여의치 않을 경우엔 녹음된 음반을 틀어 놓는 것도 괜찮지만 가능하면 직접 연주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²⁷⁴⁾

성가대가 찬양하고, 다양한 악기들이 어우러져 찬양하고, 온 회중이 함께 찬양하고, 특별히 찬양의 은사를 가진 자들이 또한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너무나 귀한 봉헌이 되는 것이다.²⁷⁵⁾ 특별히 한국 명절을 지키는 주일은 국악찬양을 곁들인다면 그 의미를 더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예배의 분위기가 더욱 고조되며 성도들 또한 보다 큰 은혜의 감동을 받게 된다.

(4) 고유명절과 절기의 조화를 잘 이루는 예배

예배는 ‘전통’과 ‘문화’라는 두 가지 축을 함께 가져야 한다.²⁷⁶⁾ 교회절기와 우리의 명절에 대한 부분은 이미 오래전부터 논란이 되어 왔다. 이제는 고유명절과 절기의 조화를 통해서 성도들이 혼란해 하는 일도 교회에서 비효율적인 행사로 에너지를 소비하는 일도 없어야 할 것이다. 먼저 교회 절기에 대해서 간략히 정리하면, 구약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3대 절기가 등장한다. 무교절, 맥추절, 수장절이다.

274) 장영대, “예배에 있어서 교회음악의 역할 연구” (석사학위논문, 관동대학교 선교신학대학원, 2009), 23-29.

275)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고후 9:7)

276) 조기연, *예배갱신의 신학과 실제*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0), 155.

물론 이러한 교회절기 중에서 오늘날 우리가 지키는 절기는 부활절을 더해서 백추 감사절, 추수감사절, 성탄절 정도이다.²⁷⁷⁾ 여기에다가 백추 감사절과 추수감사절의 성격이 비슷하다 하여 추수감사절만 지키는 교회들이 늘어나고 있다.

우리나라 고유명절에는 정월 초하루 설날, 정월 대보름, 한식, 오월 단오, 추석 등이 있다. 이 중에서 설과 추석은 온 국민이 지키는 대표적인 명절이다. 지금까지 교회 절기와 명절로 인해 혼란을 초래하지는 않았지만 이제는 우리 고유 명절을 우리의 신앙 안으로 끌어들여 '기독교화'해야 한다.²⁷⁸⁾

이를 위해 한국교회의 교회력과 성구 집에 설날이나 추석 등 민족 고유의 절기 뿐 아니라 광복절이나 삼일절 등 민족사의 중요 사건들도 포함시켜야 한다. 또한 한국인의 심성에 맞는 한국적 가락의 찬송가 개발도 좀 더 활발히 추진되어야 한다. 부르기 쉬운 곡조나 국악 리듬이나 모든 사람에게 친숙한 민요 곡조 등에 기독교의 내용을 담아 찬송가로 부르는 시도도 좀 더 활발히 이루어져야 한다.²⁷⁹⁾

(5)말씀과 성례전이 잘 어우러지는 예배

예배개신을 외치는 목소리의 중심에는 성례전의 회복이 있다. 이는 예배역사를 통해서 살펴보거나, 성경적 예전의 관점에서 살펴보거나, 우리의 전통사상적인 측면에서 살펴볼 때도 동일하게 강조되어야 할 부분이다. 한국 초대교회의 특징은 말씀 사경회중심이였다. 그때부터 말씀은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었다. 오늘날 문제는 말씀중심의 예배가 아니라 말씀만 있는 예배라는 것이다. 또한 문제는 그 말씀이 성경적이지 못하다는 것이다. 설교자의 개인적이고 주관적인 것들, 의도적인 강조, 정죄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이다. 그렇기에 말씀이 회복되어야 하고 성례전이 회복되어야 한다. 예배의 경건이 회복 되어야 한다.²⁸⁰⁾

277) 루터교의 교회력은 성경의 사건들과 결합시키면서 가톨릭보다도 더 많은 것들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장로교 등 개혁신교에서는 단지 성탄절과 부활절 등 큰 축일만을 지키고 있다.

278) 대부분의 전통 교회에서는 교회력에 근거한 절기를 지켜오고 있다. 한국 전통 명절에 여러 가지 행사들을 병행하지만 명절과의 조화를 이룬 예배에는 초점을 맞추지 않았다. 이에 전통 명절에 맞춘 예배를 준비하고 이질감을 없애기 위해 교회는 노력하고 지속적으로 초청하여 함께 어우러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279) 조기연, *예배개신의 신학과 실제*, 158.

우리 민족은 예부터 종교성이 강했고 경건을 중요시한 민족이었다. 서민들에게 쉽게 다가갔던 무속신앙의 모습 속에서도 정화수를 놓고 비는 경건의 모습을 보여 왔다. 누가 시켜서가 아닌 우리 민족 고유의 특성이요 본래의 모습이었다.

종교 개혁의 전통을 따르는 한국 개신교회의 성찬 예배는 일 년 2~4회 정도로 그 의미가 많이 약화되었다. 매일 성찬을 드렸던 초대교회에 비하면 너무나 많이 약화된 것이다.²⁸¹⁾ 성찬은 최고의 은혜의 수단이다.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자신을 성도에게 주신다. 또 성례전을 통하여 성도들 역시 그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수단이 된다. 그러므로 성찬 예배는 주님과 회중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신비로운 연합과 교제를 나눌 뿐만 아니라 성도들에게는 헌신적 삶을 도전케 하고 결단하는 신앙의 중요한 수단인 것이다. 그렇기에 성례전은 자주 드리는 것이 좋지만 한국교회 문화가 매주일 성찬예배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갑자기 늘리는 것 보다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좋다고 본다.

이렇듯 먼저 가정이 한 마음이 되고 교회가 한 마음이 될 때 보다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보다 말씀에 잘 순종하며 보다 더 많은 일에 헌신될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지금까지 그저 외형적인 부흥에 급급하여 무분별한 예배와 양육시스템을 도입하여 적용하려다 보니 오히려 부작용이 더 많음을 보게 된다. 한국적인 정서와 특성을 고려한 한마음 예배는 충분히 개교회의 특성에 맞게 준비될 수 있다. 많은 예산도 복잡한 매뉴얼도 외부 세미나도 필요 없다. 다만 목회자가 먼저 이를 이해하고 열정을 다한다면 가장 한국적인 아름다운 교회로 새롭게 성장하게 될 것이다.

나. 한마음 공동체 예배 형식 제안²⁸²⁾

위에서 살펴본 한국적인 정서를 고려한 예배의 요소들을 중심으로 예배 형식을

280)곽성덕, “전통교회 정체 극복과 활성화 방안” (D.Min. diss., Fuller Theological Seminary, 2010), 10-15.

281)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행 2:46)

282) 한마음 공동체 예배는 앞서 소개한 특징을 살려 다양하게 드릴 수 있다. 여기서 제시하는 형태는 전통적인 예전의 특징을 살리면서 약간의 순서를 추가한 모본이다. 따라서 순서가 많다. 이는 개교회에 맞게 조정하면 될 것이다.

제안해 보고자 한다. 하지만 한국의 개신 교회가 가져야 할 신학적, 전통적 순서가 있기에 독창적인 예배가 아니라 보편적인 것에 충실하면서 복음에 합당한 한국적인 정서를 살린 요소들을 가미했다.

(1) 예배를 위한 준비

- 환영과 교제의 시간 - 예배당 안에서 서로 반갑게 인사하며 맞이한다.
- 경건히 마음을 내려놓는 시간 - 예배시작 15~20분전 경건하면서도 조용한 음악을 연주하거나 틀어놓는다.
- 경배와 찬양 - 예배가 시작되면 모두 다 함께 일어서서 경배와 찬양을 한다.283)

(2) 예배예로의 초대

- 축복의 시간 - 목사와 성도 모두 한마음으로 진설되어 축복한다.
- 예배의 부름

(3) 찬양과 고백

- 송영
- 용서의 시간
- 사죄의 말씀 및 선포 - 이후 다시 한 번 서로 축복한다.
- 영광송

(4) 말씀의 예전

- 말씀암송 - 그 주에 함께 선포할 말씀을 미리 준비하여 온 성도들이 함께 암송한다.
- 찬송
- 목회기도
- 성경봉독(구약, 신약, 복음서)
- 찬양대 찬양284)
- 말씀선포
- 말씀 선포 후 기도

(5) 성찬예전

- 성찬 찬송
- 성물 봉헌(떡과 잔)285)
- 봉헌 기도
- 주기도문 혹은 사도신경
- 성찬 제정의 말씀
- 기도 (성령 임재를 위한 기도)
- 성체 분할 및 분명·분잔286)
- 성찬 참여
- 성찬 후 기도
- 응답의 찬송

(6) 봉헌과 강복선언

·예물 봉헌
·봉헌기도
·강복선언
(7) 파송의 말

2. 한마음 추도(추모) 예배

가. 추도예배의 의미

앞서 제사에 관한 부분을 살펴보았다. 이와 관련하여 아직까지도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추도예배이다. 예배형식의 추모 예식은 세계 교회의 어느 예식 문헌에도 있지 않다. 다만 중세이후 교회 전통에 따라 가졌던 추모 의식과 다른 추도예배의 경우와 같이 개신교가 조상제사 의식을 완강히 거부 못하고 제물과 절이 생략된 추모식을 행한 데서 시작됐다는 것이다.²⁸⁷⁾

‘추도식’이란 명칭은 조상을 추모하는 기도회라는 의미에서 발상된 명칭이다. 박근원은 ‘추도식’ 보다는 ‘추모제’로 명칭을 변경하자는 의견을 냈다.²⁸⁸⁾ 이는 좋은 의견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제사(祭祀)’라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해도 좋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불신자들에게 익숙한 단어이며 이질감을 주지 않으면서도 충분히 복음적인 예

283) 경배와 찬양 시간 또한 매주 다양하게 드릴 수 있다. 좀 더 경건한 분위기로 드려야 할 절기 때는 거기에 맞추거나 생략할 수도 있다. 찬양시간은 10-15분 정도가 적당하다.

284) 예배 설교와 맞는 곡을 선택하여 부르는 것이 바람직하다.

285) 부목사나 진행 위원들이 뒤에서부터 가지고 들어오는 것이 좋다. 또한 하나님 나라의 구원 잔치상을 연상할 수 있도록 함께 어울려 먹을 수 있고 또한 먹여 줄 수 있도록 원탁에 진설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286) 여기서 두 가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는 목사나 장로들이 떡과 잔을 가지고 돌아다니는 것보다는 신자들이 일어서서 앞으로 나와 떡과 잔을 받는 방법과 둘째는 한 덩이의 떡과 한 동이의 포도주를 놓고 성찬에 참여 하는 모든 신자들 자신이 직접 떡과 포도주를 먹을 수 있게 하는 방법이다.

287) 박근원, *기독교와 관혼상제*, 109.

288) 류순하, *기독교 예배와 유교제사* (서울: 숭실대학교 출판부), 205-206.

식을 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유교전통의 제사를 대신해서 기독교에서 드리는 것이 추도에 배로 알고 있다. 엄밀히 말해 그 성격은 분명히 다르다. 이로 인해 아직까지도 가족들 중 이에 반감을 가진 이들이 흡수되지 못하고 있다. 제사는 돌아가신 부모를 비롯하여 조상들에게 가족의 안녕과 복을 비는 행위이다. 이를 통해 위안을 받게 되고 기복적인 믿음을 갖게 된다. 또한 가족 친지들과 하나 되는 장으로 여기는 것이다. 물론 여기에는 미신적인 부분과 아름다운 전통이라는 두 가지 요소가 있다. 그렇기에 한국적인 정서를 고려한다면 추도예배는 제사의 정신과 형식일부를 수용할 필요가 있다.

나. 추도 예배의 종류

현재 드리고 있는 추도 예배는 공식화 되진 않았지만 일 년에 두 번 드릴 수 있는데 부모님 추도 예배와 추석 추도 예배를 들 수 있다.²⁸⁹⁾

첫째, 부모님 추도예배이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날을 매년 기념일로 정해 온 가족과 교우들이 고인의 사진, 약력, 유언 등을 준비하여 가족이 원하는 장소에서나 고인을 추모할 만한 장소에서 가질 수 있다. 부모님을 생각하며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임으로 가족들과 친지들이 한마음이 되어 예배드릴 수 있다. 한 부모아래에서 자라고 성장한 것을 기억하며 남은 가족들이 믿음의 결속을 다지며, 믿음 안에서 앞으로의 삶을 살아가고자 하는 굳은 의지를 다시 한 번 다지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다.

둘째, 추석 추도예배이다. 일용할 양식 등 의식주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 드리는 예배이나 수고한 농부들에게도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등 웃어른을 공경하면서 조상들에 대한 고마움의 표를 나타내며 친척, 이웃, 가족들과 함께 신앙과 사랑의 결속을 다짐한다. 특별히 추석 추도예배는 친척들을 전도할 수 있는 좋은 전도의 장이 될 수 있다. 추석 추도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와 감격이 흘러넘치고 가족·친지들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할 수 있다.

289) 최영식은 그의 논문에서 추도 예배를 부모님, 신년, 추석 등 세 가지로 구분했지만, 본 논문에서는 신년 추도예배를 생략하고 두 가지만 소개하고자 한다. 그 이유는 신년 추도예배는 구정을 기해 차례를 지내지만 따로 추도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최영식, “개신교 추도 예배의 발전 가능성 연구” (석사학위논문, 협성대학교 대학원, 2008).

다. 교회내의 신자들을 위한 방안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인식하게 하여 기독교 추모의식의 중요성을 알고 깨달아 실천할 수 있도록 한다.

첫째, 성경적 사후관에 대한 바른 인식이다. 우선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는 바른 사후관에 대해 알도록 가르쳐야 한다. 불신자들의 전통적 사후관은 죽은 혼이 이승과 저승을 떠도는 것으로 믿고 있다. 그런 인식으로 인해 조상숭배와 제례제도를 낳게 된 것이다. 그러나 성경적 사후관은 앞에서 살펴본 대로 단절사상이며, 한번 죽은 사람의 혼은 다시 돌아오거나 방황하는 것이 아니며 또 사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다.²⁹⁰⁾

둘째, 부활신앙과 영생의 소망을 갖는 기회이다. 전통적인 상제(喪祭)에는 죽음에 대하여 슬퍼하는 것뿐이요, 그 의식을 통하여 위로 받을 내용이나 근거가 없다. 그러나 기독교 추모식에서는 부활의 약속을 선포하는 말씀에 따라 복음적 소망을 갖게 하는 기회가 된다. 그러므로 추모식을 단순히 후손들의 윤리와 도덕적 각성에만 뜻을 두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소망과 영생의 소망을 갖게 하는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²⁹¹⁾

셋째, 부모와 조상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추모식을 통하여 부모와 조상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다. 이 땅에 가운데 조상과 부모를 허락하시고, 함께 할 수 있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불러 가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

넷째, 신앙상속 인식과 강한 구원의식을 갖는다. 기독교 추모식에는 신앙을 물려받은 것에 대한 감사와 함께 구원론적 의미가 상당히 내포되어 있다. 바울은 조상적 부터 섬겨 오는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젊은 디모데에게 외조모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을 상기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²⁹²⁾

다섯째, 하나님의 뜻과 섭리를 깨닫는 기회를 갖게 된다. 믿지 않고 돌아가신 부

290) 누가복음 16:19-31

291) 박병구, “한국전통제례와 추모식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목원대학교 신학대학원, 2003), 39.

292) 디모데후서 1:5

모나 조상을 기억하면서 그리스도 밖에서 이루어진 죽음이 얼마나 불행한가를 깊이 인식하면서,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로 후손들은 믿음으로 살게 된 것을 깨닫고 다시는 불신앙의 불행이 없도록 다짐하는 것이다.

여섯째, 진정한 효도를 배우는 기회가 된다. 기독교는 추모의식을 통해 하나님의 계명을 가르친 부모에 대한 진정한 효도를 배우게 한다. 부모에 대한 효도는 물론 생존 시에 베풀어지는 것이지만 사후에도 베풀어 질 수 있다. 생존하시는 부모는 인격적인 봉양과 공경으로 그 몸과 마음을 평안하고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요, 사후에는 부모의 유업을 받들어 그 분들이 걸어가셨던 믿음의 길을 더욱 신앙적인 삶으로 발전시켜 믿음의 가문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재현신을 다짐하는 시간으로 삼아 그 자식 된 도리를 다하는 것이다.²⁹³⁾

일곱째, 하나님 앞에서 가정의 공동체 인식을 갖는다. 가정은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기초적이면서도 핵심적이고 또 가장 이상적인 공동체이다. 가정 안에서 가족들은 서로를 염려하며 가정의 일을 분담하고 배려하며 사랑으로 섬기며 살아간다. 그리고 가정에서 부모를 생각하고 자녀를 생각하며 사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다.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가정을 허락하신 이유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가정을 통해서 몸소 알게 하신 배려이다. 그러므로 추모식은 흩어져 있던 가족이 만나 가족 간의 사랑과 정을 다시 확인하면서 가족의 유대를 굳게 하며 하나님을 중심한 공동체를 결속시키는 기회가 되는 것이다.

라. 교회 밖 불신자들을 위한 방안

기독교 추모의식은 교회 내 믿는 자들뿐만 아니라 교회 밖 불신자들을 위해서도 배려되어야 한다. 이를 위한 타당성에 대한 근거를 다음과 같이 제시해 보았다.

첫째, 불신자들을 위한 수용의 타당성이다. 기독교의 복음은 죽음과 부활의 메시지이며,²⁹⁴⁾ 복음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실현되는데 있다. 즉 초월자이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위에 역사 하는데 있는 것이다.²⁹⁵⁾ 복음의 토착화란 초월

293) 예레미야 35:14-18

294) 박은규, *예배의 재발견*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93), 246.

295) 이성우, “한국교회의 조상제사문제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1981), 59.

적인 복음의 진리가 일정한 역사상황 속에서 자신을 실현하기 위하여 자기를 변화시키는 것이다. 이것은 결코 역사적인 현실과의 타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자기의 독자성과 초월성을 가지고 자기가 처한 역사와 세계를 자기의 의도대로 개선하며 새롭게 창조해가는 것이다.²⁹⁶⁾ 오늘날 한국 교회가 지적 받아야 할 것은 서구적 전통이나 미국문화의 유대는 갖고 있으면서 정작 한국문화와의 유대는 단절되었다는 것이다.²⁹⁷⁾ 이것은 복음이 한국 사람들에게 토착화 될 수 없었던 요인이고 아직까지도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를 서양의 종교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부정적 요인이라 볼 수 있다.²⁹⁸⁾ 서양의 선교사들에게도 책임이 있다. 부모를 중심으로 한 동양의 가족주의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고, 그들이 선교함에 있어서 피선교지의 문화를 이해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노력하지 않았다. 결국 전통문화에 적응하지 못하고, 무의미한 마찰과 불행을 가져왔다.²⁹⁹⁾

제례의 본의는 결코 구복(求福)이나 벌을 면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종교적 미신이 아니라 단순히 효도를 표시하는 민간의식이었다.³⁰⁰⁾ 이것이 변질되어 미신적인 요소가 들어간 것은 사실이나 기독교의 복음은 무조건 제례를 배척할 것이 아니라 그 제례의 내용을 기독교적인 것으로 변혁적 수용을 했어야 했다. 서양 풍습이 전부 복음적인 것이며, 이교주의 문화를 전부 비복음적인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전혀 설득력을 갖지 못하는 것이다. 기독교는 마땅히 복음의 핵심에 서서 모든 문화 풍속을 복음화 해야 한다.³⁰¹⁾ 따라서 교회 밖 불신자들과의 단절이 아니라 이제는 제사라는 연결고리를 사용해서 그들과의 유대관계를 형성해야 한다. 지금부터라도 이러한 노력을 기울여 복음의 영역 안으로 그들을 불러 들여야 한다. 또한 이를 통해 그릇된 인식으로 형성된 담을 허물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회복되게 해야 할 것이다.

둘째, 불신자들을 위한 기독교적 재고이다. 제사가 성경에서 근거를 찾을 수 없다는 이유로 무조건 반대한다거나, 단지 절을 하는 것이 우상을 숭배하는 것이라 하

296) 유동식, *민족종교와 한국문화* (서울: 현대사상사, 1978), 123.

297) Ibid., 129.

298) Ibid., 123-125.

299) Ibid., 122.

300) Ibid.

301) Ibid., 123.

여 제사를 부정하거나, 조상에 대한 효행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믿지 않는 유족들은 절대로 믿음의 영역 안으로 들어올 수 없을 것이다. 지금까지 이러한 연유로 그들에게 지탄받아 왔음을 시인하지 않을 수 없다. 이제는 그들보다 더 정성을 들여 기독교가 효를 중요시하고 사랑을 실천한다는 것을 본을 통해 보여야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믿는 유족들은 음식을 만들되 정성을 다해 만드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조상이 즐겨 드시던 음식을 만들어 놓고 그들에게 소개하면 그들의 인식이 바뀌게 될 것이다. 그뿐 아니라 몸가짐, 의상, 태도 등 하나 하나를 그들의 본이 되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함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노력 없이는 믿지 않는 친지들을 믿음의 영역 안으로 이끌 수 없다.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계명이 우상숭배와 다른 신에게 절하며 섬기는 일이다.³⁰²⁾ 아직까지도 많은 이들이 동양전통 사상의 부정적인 영향으로 우상숭배를 좋아한다. 자기가 믿는 무속의 대상에게 절하며 섬기면 복이 저절로 찾아오는 것으로 생각하며 그렇게 하지 않으면 화가 미칠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죽은 자에게 절을 하고 혼령에게 절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분명 이러한 명백한 우상의 행위에 대해서는 배제를 하되 이들을 인도하기 위해서는 거부감을 주지 않으면서 인격적인 하나님을 소개하고 창조자와 피조물의 위치를 분명히 함으로 신앙상의 유익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아울러 조상제례에서의 허례허식, 주일에 행사하는 행위, 알지도 못하는 자들에게 알려 부담을 주는 행위, 기독교식이 아닌 다른 종교의식 행위, 지방을 써 붙이는 일, 향을 피우는 일, 음식물에 수저를 꽂는 일등은 지체롭게 배제되어야 할 것이다.

마. 한마음 추모예배 형식 제안³⁰³⁾

추모식(추모예배)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드리는 예배라는 인식이 객관적으로 증명될 수 있어야 하며, 동시에 비그리스도인이라 하더라도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제사를 지내지 않는다는 불평이 나오지 않는 수준에서 드러져야

302) 출애굽기 20:3-5

303) 한마음 추모예배의 대상은 믿는 성도들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모두 포함한다. 따라서 형식적으로는 제사의 기본 틀을 유지하지만 내용은 예배의 형식을 취한다. 이것만으로도 믿지 않는 가족·친지들과 한마음이 될 수 있을 거라 기대한다.

한다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추모예식은 형식상으로는 제사의 형태를, 그리고 그 내용은 기독교적인 방향으로 설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³⁰⁴⁾

(1) 제사상과 음식 마련

제사상과 음식은 가족들이 즐겨 먹는 것으로 정성껏 준비하며 상을 차린다. 제사상 앞에는 고인의 영정을 준비한다. 지방을 쓰는 것은 우상의 요소가 있기 때문에 배제하고 영정이 준비되지 않은 경우는 '고인의 몇 주기'라고 간략하게 써서 두는 것도 좋을 것이다.

(2) 가족소개

추모예식에 참석한 가족들의 근황을 서로 이야기하면서 그동안 떨어져 있으면서 나누지 못했던 가족 간의 유대를 확인하고 정을 나누는 시간으로 마련한다. 부득이 참석하지 못한 가족이 있다면 그의 사정을 아는 사람이 그에 대해 이야기를 하도록 한다.

(3) 묵상기도

모든 가족이 그리스도인이면 절을 할 필요가 없고 가족 중에 그리스도인이 아닌 가족이 있을 경우에 전통의 예를 따라 절하게 하고, 그리스도인들은 경건한 마음으로 침묵으로 기도 하면서 자리를 지킨다. 모든 가족이 그리스도인일 경우 묵상으로 기도하는 시간으로 가지면 된다.

(4) 찬송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에게 양해를 구한 뒤, 평소 고인이 즐겨 부르던 찬송을 선택해서 이것이 고인이 즐겨 부르던 찬송임을 밝힌 다음 함께 찬송을 부른다.

(5) 기도

가족 중에 한 사람이 대표로 기도하며, 모든 가족이 고인으로부터 비롯하여 한 몸임을 확인하고, 이것이 앞으로 가족공동체의 유대를 강화할 수 있고, 가족 간의 정을 돈독히 할 수 있기를 염원하는 내용의 기도와 부활신앙의 소망이 담겨 있는 기도를 준비하여 드리도록 한다. 이를 위하여 사전에 미리 기도문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이다.

(6) 약력 및 유품이나 유물 소개

304) 아래 추모식의 순서는 한경호 목사의 '추도식 모범'을 참조하여 개인적인 생각들을 수정 보완한 것임을 밝혀둔다. 한경호, "조상제례에 대한 기독교적 수용과 실천사례," 농촌과 목회, 2003년 여름호, 219-221.

어린 유가족들에게 교훈이 될 수 있는 고인에 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며 답소하는 시간을 갖는다. 이때 필요할 경우 약력이나 유품, 또는 유물이 있으면 함께 소개하며 고인이 살아있을 때의 일들을 추억하며 되새기는 시간이 되도록 한다. 이를 대비하여 고인의 생전 육성 녹음이나 녹화된 비디오테이프가 있다면 더 좋을 것이다. 이를 위해 미리 준비를 해두어야 한다.

(7) 사랑 나눔

참석자들 가운데 살면서 현재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있다면 위로를 전하고, 감사할 것이 있다면 축하와 축복의 메시지를 사회자가 미리 준비하여 하도록 하고, 또한 가족이 서로 축복하며 사랑의 말을 나누면서 유대감과 정을 재확인한다.

(8) 찬송

참석자 모두가 공유할 수 있는 결단을 담은 곡을 선택하여 부른다.

(9) 마침기도

축도 혹은 주기도문으로 마친다.

(10) 음식 나눔

준비한 음식을 함께 나누면서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 담소를 나누도록 한다. 음식이 충분하다면 추모예배 후 가까운 이웃과 함께 음식을 나누는 것도 좋을 것이다.

추모예배에서 꼭 유념해야 할 것은 고인을 추모하는 데에만 그치지 말고 죽음을 정복하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는 추모예배가 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에 오신 조상에 대해 기억하며 그분에 의한 은혜를 입고 사셨음에 감사드리고, 그러면서 동시에 그리스도를 향한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가지며 삶의 가치와 의미를 찾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는 추모식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지 않는 추모식은 기독교 추모식으로는 아무런 의미나 가치가 없다. 불신자들이 많은 가정이라면 제사를 드린 후에 함께 예배드리는 것도 제안하는 바다. 하지만 이때는 상황에 맞추어 조금 간소한 형식의 예배로 드리는 것이 좋다. 이럴 경우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은 제사의 정신을 추모예배로 대신할 수 있다는 설득과 함께 사랑으로 모본을 보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적으로 전개될 때 점차 이질감 없는 추모예배를 드릴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추모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믿지 않는 가족들과 친지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 되는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한국 전통사상의 유익한 가치들을 살려 목회 사역과 예배에 적용할 수 있는 요소들을 살펴보았다. 인(仁)문화권에 속한 교인들의 공통분모를 향내형의 특성으로 분류하여 여러 가지 사역의 방안들을 마련해 보았다. 이 과정에서 한국 성도들을 위한 목회 사역의 방향을 '한마음 목회'로 설정하게 되었다.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한마음이 되고 한마음으로 예배드리고 한마음으로 봉사의 일을 감당할 때 가장 한국적인 가치를 살린 모습이 됨을 알게 되었다. 나뉘는 목회가 아닌 하나 되는 목회, 하나 되는 예배를 위해 노력함으로 잃어버린 한국교회의 위상과 복음의 열정을 회복해 나가야 할 것이다.

제 6 장

결 론

제 1 절 요약

본 논문에서는 먼저 한국 전통 사상으로 대표되는 유교, 불교, 무속신앙인 샤머니즘의 핵심적인 사항들을 정리해 봄으로써 전통 사상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고자 하였다. 또한 유교적 토양이 형성된 조선후기에 기독교가 유입되면서 어떻게 교회가 형성되었고 예전이 형성되었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토대로 한국 교회와 성도들에게 미친 부정적인 영향과 긍정적인 영향에 대해 나누어 살펴보았고 전통 사상 중 복음에 합당한 유익한 가치들을 목회사역과 예배에 적용하기 위한 토대를 마련해 보았다. 각 장의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2장에서는 한국 전통사상으로 대표되는 유교, 불교와 무속신앙인 샤머니즘의 특징을 정리했다. 이들 중 한국전통사상에 가장 큰 영향을 준 것은 유교라 할 수 있는데, 유교의 가장 핵심이 되는 사상은 천(天)사상과 인(仁)사상이다. 천(天)에 대한 경외로 조상숭배와 제의(祭儀)문화를 형성하게 되었다. 천인합일(天人合一)의 사상을 통해 하늘과 내가 하나라 여겼으며, 인내천(人乃天) 사상을 통해 인간존중의 마음을 가졌다. 인(仁)은 도덕 감정과 윤리 규범의 결합이라 할 수 있을 정도로 폭넓게 적용되는 의미이다. 효(孝) 또한 그 근원을 인(仁)에 두고 있다. 공자의 사상을 계승하여 동양윤리를 집대성 시킨 인물이 맹자인데 맹자 또한 이를 바탕으로 동양윤리 사상의 지침을 제시한 오륜(五倫)사상을 집대성 하였다.

3장에서는 조선후기 유교적 토양 위에 어떻게 기독교가 뿌리를 내릴 수 있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역사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정치적으로나 종교적으로도 가장

혼란했던 시기에 선교사들을 통해 복음이 전해졌다. 놀랍게도 중국이나 일본에서 찾아볼 수 없었던 복음의 빠른 확산이 이루어 졌다. 유교, 불교와 온갖 미신적인 요소들이 가득했던 당시의 상황 가운데 복음의 씨앗은 뿌려졌고 자라나게 되었다. 거기에는 시대 상황과,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지식인들의 갈급함과, 선교사들의 노력 등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었다. 하지만 무엇보다 한국 전통사상 가운데 복음을 받아들이기 용이한 요소들이 이미 형성되어 있었다. 한국인들의 청렴, 근면성실함, 천(天)에 대한 경외의 마음, 특유한 종교성 등은 오랜 기간 형성되어 온 전통사상의 영향이었다. 하지만 조상숭배와 제사의 문제로 많은 마찰을 일으켰는데 이는 선교사들의 무지와 초기 지도자들의 그릇된 인식으로 말미암은 결과였다.

4장에서는 전통사상과 교회와의 상관성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 부정적인 영향과 긍정적인 영향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전통사상의 부정적인 영향은 이미 많은 자료들을 통해 알려져 있다. 그 중 대표되는 것이 바로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샤머니즘적인 요소들이다. 성도들에게서 엿볼 수 있는 신비주의적 열광주의, 신앙의 무속화, 무속적 축복관등 부정적인 요소들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또한 유교사상의 영향으로 가부장적 권위주의와, 공로 및 보상주의, 초월주의 등도 발견할 수 있다. 여기에다가 불교주의 영향 또한 발견할 수 있었다. 하지만 긍정적인 영향도 있다. 고대로부터 지녀온 천(天)사상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교회가 형성되어 가는데 유익한 역할을 했다. 또한 충효사상이 있었기에 섬김의 일들을 쉽게 감당하여 왔고, 인의(仁義)의 사상으로 말미암아 청렴하며 선한 일들 도모하였다. 이밖에도 한(韓)철학과 한마음 공동체, 서당교육과 제자훈련, 제의(祭儀)와 기도 등 유익한 가치들이 많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인(仁)문화권의 따뜻한 정서, 천인일체(天人一體)의 종교성, 수양철학(修養哲學)의 도덕성 등의 유익한 가치들이 목회사역에 적용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5장에서는 앞서 분석한 한국 전통사상의 유익한 가치들을 목회사역과 예배에 구체적으로 적용해 볼 수 있는 이론적이면서도 실질적인 토대를 마련해 보았다. 인(仁)문화권에 속한 한국교회 성도들의 특성을 향내형으로 분류하고 거기에 맞는 목회방안을 제시하였다. 성도들의 흥을 돋워 신바람을 일으키며 모두가 적극적으로 예배와 교회의 일에 참여하는 목회가 바로 한마음 목회이다. 한마음 목회사역을 위해 수양(修養)과, 삼강오륜(三綱五倫), 서당교육, 효사상 등을 함께 적용할 수 있음을 말하였다.

또한 한국적 정서를 고려한 예배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는데 이 또한 온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한마음이 될 수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보아 한마음 예배를 제안하였다. 한마음 예배를 위해서는 전통적 경건한 분위기를 살리고, 음악적인 요소를 활용하고, 고유명절과 절기의 조화를 이루고, 말씀과 성례전이 잘 조화되어야 한다. 한마음 공동체 예배의 특징은 성도들의 예배참여의 범위가 확대되고, 성도들이 예배를 통해 은혜의 감동을 받으며, 예배를 통해 하나 됨의 공동체 의식을 가지게 된다.

한국 전통사상 가운데 기독교에서 가장 큰 문제로 여겨왔던 제사에 대한 부분 역시 한마음 추모예배를 통해 극복될 수 있다. 한마음 추모예배의 가장 큰 의의는 기존 신자들뿐만 아니라 그동안 단절되었던 비신자들 까지도 믿음의 영역으로 끌어들이 수 있다는 것이다. 한마음 추모예배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끼고, 가족·친지 간의 사랑을 느끼며 효를 몸소 실천하며 자녀들에게 본을 보일 수 있게 된다.

제 2 절 제언

논문을 쓰면서 처음 의도와는 달리 한계점이 느껴졌다.

첫째, 범위를 설정하기가 쉽지 않았다. 동양사상 중에서도 한국인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준 유교사상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하지만 기존의 토착화 연구과 차별되면서도 복음에 합당한 핵심 가치들을 찾아 적용하는 과정이 쉽지 않았다. 또한 선행 연구 자료가 거의 없어 어려움이 있었다.

둘째, 보수적인 접근으로 인한 내용의 모호성이다. 동양철학 전공자로서 목회현장에서 목회를 하는 목회자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노력했지만 복음에 합당한 가치를 고려할 때 제약되는 부분들이 많았다. 물론 목회현장 가운데 활용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기대하지만 보다 깊이 있는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있다.

이 논문을 통해 기대하는 것은 두 가지이다.

첫째, 우리 전통 사상의 우수함과 가치성을 알았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동안 한국 전통 사상과 기독교의 상관성을 놓고 볼 때 부정적인 인식이 지배적이었다. 따라

서 본 논문을 통해 긍정적인 면을 부각시키고 가치성을 알기를 기대한다.

둘째, 한국의 전통 사상 이해를 통해 실질적인 목회 사역에 도움을 주는 것이다. 그동안 한국의 전통 사상에 대한 연구는 있어왔지만 목회 사역 현장가운데 적용을 위한 노력은 미비했다. 따라서 본 논문을 통해 한국의 정서를 잘 이해하고 이를 활용하여 보다 효율적인 방법으로 목회를 해나가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마지막으로 한국교회와 목회자들에 대한 몇 가지의 제언과 처음 논문을 시작하면서 가진 의문을 다시 한 번 되짚으며 글을 마무리 하고자 한다.

첫째, 한국 성도들에게 변하지 않는 마음을 찾고 갖도록 해야 한다. 변하지 않는 마음은 진리이다. 진리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것을 찾지 못하면 끊임없이 성도들은 변하지 않는 마음을 찾기 위해 방황할 것이다.

둘째, 효와 예를 강조하고 실천해야 한다. 이는 엄연히 성경에서도 가르치고 있는 말씀이며 우리 정서와 가장 잘 부합되는 것이다. 또한 효도를 통해서 가정이 하나 되고 친지와 하나 되고 교회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다. 예를 실천함으로 관계의 문제가 해결되고 서로를 신뢰하게 된다.

셋째, 경건함 마음을 갖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 일상생활 가운데 말씀묵상과 기도가 기본이 되어야 한다. 또한 경건성은 한국 성도들에게 형성되어 있는 바탕이기 때문에 목회자들은 이를 알고 잘 지도해야 할 것이다.

넷째, 바른 윤리의식을 갖는 것이다. 오늘날 한국 교회내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로 윤리의식의 부재를 꼽는다. 이로 인해 파생되는 문제가 너무나 많기 때문이다. 전통적인 예(禮)에 대한 의식과 성경적인 가치관이 조화를 이룰 때 목회자는 물론 성도들 또한 건전하고도 바른 신앙관을 가지고 생활하게 될 것이다.

가장 한국적인 교회는 어떠한 교회일까? 가장 한국적인 목회는 어떠한 목회일까? 필자는 가장 한국적인 교회는 ‘한마음 교회’이며 가장 한국적인 목회는 ‘한마음 목회’라고 대답하고 싶다. 이것은 또한 성경적인 가르침과도 상통한다. 목회자와 성도들이 한마음 한뜻이 되어 서로 섬기는 교회! 진정한 사랑의 부대낌이 있는 목회! 그것이 결국 우리가 회복해야 할 모습이다.

참 고 문 헌

1. 국내서적
- 곽성덕. “전통교회 정제 극복과 활성화 방안.” D.Min. diss., Fuller Theological Seminary, 2010.
- 금장태. “선진 유교의 제례.” *기독교와 관혼상제*. 박근원 편. 서울: 전망사, 1984, 260-266.
- . *유교사상과 종교문화*. 서울: 서울대학교 출판부, 1997.
- . *유교의 사상과 의례*. 서울: 예문서원, 2000.
- 김대성. “제자훈련을 통한 교회 갱신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장로회신학대학교 목회전문대학원, 2010.
- 김도경. “개혁주의 입장에서 본 열린예배.” 석사학위논문, 총신대학교 일반대학원, 2011.
- 김만형. “구도자 예배란 무엇인가.” *목회와 신학*. 1997년 4월호, 40-43.
- 김명환. “목회자 윤리 문제에 대한 기독교 윤리적 고찰.” 석사학위논문, 한남대학교 대학원, 2006.
- 김삼성. *셀교회에서 G12교회로*. 서울: 서로사랑, 2006.
- 김수진. *중국개신교회사*. 서울: 홍성사, 1997.
- . *한국 기독교의 발자취*.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5.
- 김의환. “한국교회의 성장 둔화와 변영신학.” *신학지남* 256 (1998 가을): 9-21.
- 김익원. *그리스도인이 본 불교*. 서울: 성광문화사, 1989.
- 김인수. *간추린 한국교회의 역사*.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2.
- 김인희. *한국 무속사상 연구*. 서울: 집문당, 1988.
- 김태곤. *황천 무가 연구*. 서울: 창문사, 1966.
- . *한국무속연구*. 서울: 집문당, 1995.
- 김태근. “한국 전통문화 속에서의 예배연구.” 석사학위논문, 한일장신대학교 대학원,

2003.

- 김해연. *한국문화와 기독교*. 서울: 성지출판사, 1999.
- 류순하. *기독교 예배와 유교제사*. 서울: 숭실대학교 출판부, 2000.
- 맹용길. *노인복지 목회론*. 서울: 장로교출판사, 1998.
- 무진장. *불교개설*. 서울: 홍법원, 1980.
- 민경배. *한국교회사*.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82.
- 박근원. *기독교와 관혼상제*. 서울: 전망사, 1984.
- 박병구. “한국전통제례와 추모식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목원대학교 신학대학원, 2003.
- 박상천. “교회부흥을 위한 문화전도전략에 대한연구.” D.Min. diss., Fuller Theological Seminary, 2008.
- 박선희. “가정예배를 통한 기독교 가정의 회복.” 석사학위논문, 관동대학교 선교신학대학원, 2010.
- 박아론. “한국교회의 급성장의 원인에 관한 고찰.” *신학지남* 256 (1998 가을): 22-37.
- 박은규. *예배의 재발견*. 서울: 대한기독교출판사, 1993.
- 박창환 외. *어떻게 예배를 드릴 것인가?*. 서울: 기독교사상, 1979.
- 박희중. “한국장로교회 예전회복.” D.Min. diss., Fuller Theological Seminary, 2005.
- 방현덕. *기독교 가정 교육론*. 서울: 서신사, 1985.
- 배요한. *기독교의 눈으로 타종교 이해하기*. 서울: 교육교회, 2009.
- 변선환. *전통 문화와 기독교*. 서울: 서울내외종교연구소, 1984.
- 변은미. “은퇴목회자 노후 생활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백석대학교 기독교전문대학원, 2012.
- 사호행. “선교지향적 목회를 통한 교회성장 연구.” 석사학위논문, 충신대학교 선교대학원, 2012.
- 서재성. *기독교와 불교의 비판론*. 서울: 도서출판 신애, 1992.
- 설은주. *고령화 시대의 노인목회*.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1998.
- 손진태. *조선 민속설화의 연구*. 서울: 을유문화사, 1947.
- 송순찬. “토착화를 위한 예배, 예전에 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호남신학대학교

- 대학원, 2003.
- 송준영. “교회력에 맞춘 가정예배 모델.” D.Min. diss., Fuller Theological Seminary, 2002.
- 신봉주. “맹자의 수양론 연구.”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2011.
- 안병기. “조선시대 유교와 무속신앙.”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교육대학원, 2005.
- 양정숙. “동학 인내천 사상의 연원과 특징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2007.
- 어춘수. “한국 기독교의 신비주의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2008.
- 원준수. “서당 교육의 특징과 현대적 의의.” 석사학위논문, 영남대학교 교육대학원, 2012.
- 유동식. *민속종교와 한국문화*. 서울: 현대사상사, 1978.
- . *한국 종교와 기독교*.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80.
- 유성태. “맹자·장자의 수양론 비교연구.” 박사학위논문, 원광대학교 일반대학원, 1990.
- 유학주임교수실. *유학사상*. 서울: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01.
- 윤계순. “한국 중소형 셀교회의 가정사역 활성화 방안들.” D.Min. diss., Fuller Theological Seminary, 2011.
- 윤수영. “기독교 신앙 교육에서의 창의적인 성경 암송 교육 방안.” 석사학위논문, 고신대학교 대학원, 2012.
- 윤이흠. “한국 고대종교 연구의 방법론적 문제.” *종교와 문화* 7 (2001): 1-21.
- 윌피터. “한국 교회 예배에 끼친 샤머니즘 영향에 관한 연구.” Th.M. thesis, Fuller Theological Seminary, 2006.
- 이광규. *한국문화의 구조인류학*. 서울: 집문당, 1997.
- 이광재. “한국교회에 기친 샤머니즘의 영향에 관한 연구.” D.Min. diss., Fuller Theological Seminary, 2008.
- 이기동. *꿈이 성공하는 나라*. 서울: 동인서원, 2005.
- . “공자사상의근본구조.” *대동문화연구* 22 (1988): 5-33.
- . *기독교와 동양사상*. 서울: 동인서원, 1999.

- _____. *한마음의 나라 한국*. 서울: 동인서원, 2010.
- _____. “행복에 관하여.” *유교문화연구* (2009): 151-161.
- 이대우. “맹자의 윤리사상 연구.”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2003.
- 이덕주. *초기 한국 토착교회 형성과 종교문화*. 서울: 한들출판사, 2005.
- 이동석. “메딕을 통한 침체된 주일학교 활성화 방안.” 석사학위논문, 총신대학교 선교대학원, 2009.
- 이만열. *한국 기독교 수용사 연구*. 서울: 두레시대, 1998.
- 이성우. “한국교회의 조상제사문제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1981.
- 이성희. *미래 사회와 미래 교회-21세기 한국교회 메가 트렌드*.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6.
- 이세영. “전통 종교가 평신도 신앙과 목회 사역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D.Min. diss., Fuller Theological Seminary, 2004.
- 이세현. “先秦 儒家의 天人關係論 研究.”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1999.
- 이영구. “조상숭배 문제에 대한 선교 신학적 이해.” 석사학위논문,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 1984.
- 이정배. *토착화와 세계화*. 서울: 한들출판사, 2007.
- 이종래. “효 사상의 현대적 의의에 관한연구.” 석사학위논문, 경인교육대학교 대학원, 2003.
- 이중호. “선교적 관점에서 바라본 조상숭배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목원대학교 대학원, 2010.
- 이한수. “한국교회 성장 정체와 그 윤리적 대안.” *신학지남* 256 (1998 가을): 80-107.
- 이후덕. “先秦 儒學의 仁思想 研究.” 박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대학원, 2000.
- 이훈구. *비교종교학*. 서울: 은혜출판사, 2000.
- 이희성. “지역교회의 효과적인 노인사역 방안.” D.Min. diss., Fuller Theological Seminary, 2010.
- 임성빈 엮음. *기독교 문화와 한국문화*.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2008.
- 임택진. *기독교 가정의례지침*. 서울: 한국문서선교회, 1985.
- 장남혁. *교회 속의 샤머니즘*. 서울: 집문당, 2007.

- 장명덕. “샤머니즘적 환경에 대응하는 목회계획-세광교회 목회사역을 중심으로.”
D.Min. diss., Fuller Theological Seminary, 1992.
- 장영대. “예배에 있어서 교회음악의 역할 연구.” 석사학위논문, 관동대학교
선교신학대학원, 2009.
- 전요섭. “기독교상담에서 격려의 이해와 활용 방안.” *복음과 실천신학* 20 (2009):
91-117.
- 전정숙. “셀 운동에 대한 교회론적 고찰.” 석사학위논문, 장로회신학대학교
목회전문대학원, 2012.
- 정병조. *인도철학사상사*. 서울: 경서원, 1977.
- _____. *지혜의 완성 반야심경*. 서울: 동국대학교 역경원, 1979.
- 정승섭. *100문 100답*. 서울: 대원정사, 1993.
- 정용섭. *교회 갱신의 신학*. 서울: 대한기독교 출판사, 1980.
- 정일웅. *기독교 예배학 개론*. 서울: 범지 출판사, 2005.
- _____. *21세기를 향한 한국교회와 실천신학*. 서울: 여수론, 1999.
- 정장복. *예배학 개론*. 서울: 예배와 아카데미, 2003.
- 정진홍. *신화의 구조적 분석-단군신화의 종교적 함의를 해석하기 위한 시론*. 서울:
온누리, 2000.
- 정태일. “수양회의 교육적인 의의.” *교육교회* 83 (1982): 1-5.
- 조기연. *묻고 답하는 예배학 Cafe*.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2009.
- _____. *예배 갱신의 신학과 실제*. 서울: 대한기독교서회, 1999.
- 조남준. “교회성장을 위한 효과적인 설교.” 석사학위논문, 총신대학교 선교대학원,
2004.
- 조민환. “유가예술사상에 있어서 천인합일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1985.
- 차용준. *효사상과 조상숭배*. 서울: 신아출판사, 2000.
- 최상태. *21세기 신교회론 이것이 가정교회다*. 서울: 국제제자훈련원, 2009.
- 최성규. *효가 살아야*. 서울: 성산서원, 1998.
- 최영갑. “先秦 儒家의 道德哲學에 關한 研究.” 박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1998.

최영식. “개신교 추도 예배의 발전 가능성 연구.” 석사학위논문, 협성대학교 대학원, 2008.

최용석. “성경적 효 훈련을 통한 전인적 신앙성장에 관한연구.” D.Min. diss., Fuller Theological Seminary, 2008.

최준식. *한국의 종교 문화로 읽는다*. 서울: 사계절 출판사, 1998.

최중현 편저. *개혁주의 입장에서 본 한국교회와 사미니즘*. 서울: 성광문화사, 1996.

최형묵. “이스라엘의 신앙교육을 통한 기독교 교육의 대안제시.” 석사학위논문, 안양대학교 신학대학원, 2004.

편찬위원회편. *기독교 대백과 사전*. 서울: 기독교문사, 1983.

한경호. “조상제례에 대한 기독교적 수용과 실천사례.” *농촌과 목회* 18 (2003): 208-223.

한국기독교사연구회. *한국기독교의 역사 I*. 서울: 기독교문사, 1989.

한국장로교회총회교육부. *한국교회와 노인목회*. 서울: 한국장로교출판사, 2000.

허 긴. “한국의 전통적 종교가 기독교에 미친 영향.” *침신논집* 1 (1977): 21-44.

허도화. *한국교회 예배사*. 서울: 한국강해설교학교 출판부, 2003.

홍세화. “교회와 이성.” *한겨레* 21. 2003년 2월호, 127-128.

홍승연. “가정 공동체 회복을 위한 목회 연구.” 석사학위논문, 목원대학교 신학대학원, 2003.

홍필선. “19세기중엽~20세기 전반기 한국, 중국 지식인들의 기독교 수용 비교연구.” 석사학위논문, 한국외국어대학교 국제지역대학원, 2012.

황상은. “불교의 구원관에 대한 기독교적 비판.” 석사학위논문, 합동신학대학교 대학원, 1988.

황성철. *예배학*. 서울: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1998.

2. 번역서적

勞思光. *중국철학사 (中國哲學史)*. 정인재 역. 서울: 探究堂, 1997.

朱子. *신역 소학 (小學)*. 이기석 역해. 서울: 홍신문화사, 1997.

- 蔡仁厚. 맹자의 철학 (孔孟荀哲學). 천병돈 역. 서울: 예문서원, 2000.
- 馮友蘭. 중국철학사 (中國哲學史). 박성규 역. 서울: 까치글방, 2001.
- Ching, Julia. 유교와 기독교 (*Confucianism and Christianity*). 임찬순, 최효선 공역. 서울: 서광사, 1993.
- Donahue, Bill. 월로우크릭 교회 소그룹 이야기 (*Leading Life-Changing Small Groups*). 송영선 역. 서울: 도서출판디모데, 2002.
- Grayson, James H. 한국종교사 (*Korea - A Religious History*). 강돈구 역. 서울: 민족사, 1995.
- Mensching, Gustav. 佛陀와 그리스도 (*Buddhha und Christus*). 변선환 역. 서울: 종로서적, 1987.
- Pateck, Kerry. 아버지는 가정 목회자 (*Father, the Minister of Home*). 김시완, 윤혜란 역. 서울: 미션월드라이브러리, 2003.
- Sachiya, Hiro. 소승불교와 대승불교 (大いなる教え興る : 大乘佛教). 강기희 역. 서울: 민족사, 1994.

3. 원전(原典)

孔子, 論語.

孟子, 孟子.

朱晦, 大學·中庸.

Vita of
Dae Woo Lee

Present Position

Assistant Pastor, The Early Church

Personal Data:

Birth date: September 8, 1975

Marital Status: Married to Jane Jeeyoung Lee
with two children, Yejin and Yejoo

Home Address: 1275 N Gilbert st #101, Fullerton, CA92833

Phone: 714-872-6448, 070-8200-0191

Denomination: The General Assembly of Presbyterian
Church in Korea (Hapdong)

Ordained: October, 2009

Education:

B. A. Sungkyunkwan University, Seoul, 2002

M. A. Sungkyunkwan University, Seoul, 2004

M. Div. Chongshin Theological Seminary, Seoul, 2008

D. Min. Fuller Theological Seminary, Pasadena, 2013

Personal Experience:

1/2006 to 12/2007: Assistant Pastor, Sujisarang Community
Church, Yong-in, (Korea)

1/2008 to 10/2011: Executive Pastor, Nambujeil Community
Church, Bucheon, (Korea)

10/2011 to 8/2012: Assistant Pastor, LA Immanuel Church,
Buena Park, (USA)

9/2012 to present Assistant Pastor, The Early Church, Garden
Grove, (USA)